

2027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가이드북
인문계열

MORE OPPORTUNITY

BETTER CHOICE

BECAUS

MORE
BETTER

2027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가이드북 **인문계열**

입학처장 인사말	03
----------------	----

I. 2027학년도 논술전형 안내

지원자격	04
전형일정	04
수능최저학력기준	06
전형요소별 반영 비율	06
논술	07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	09

II. 2026학년도 논술전형 결과분석

1. 모집인원 및 경쟁률	10
2. 지원자 및 합격자 분포	12
3. 논술/교과 성적 현황	14
4. 모집단위별 경쟁률 및 논술성적	17

III. 선배들이 들려주는 합격 가이드	19
-----------------------------	----

IV. 실전 대비 모의논술 문제풀이

1. 2027학년도 모의논술 문제(일반형) 인문사회계열	25
2. 2027학년도 모의논술 문제(일반형) 경영경제계열	38
3. 2027학년도 모의논술 문제(창의형) 인문사회계열	51
4. 2027학년도 모의논술 문제(창의형) 경영경제계열	62

V. 202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 기출문제 및 해설

1. 2026학년도 논술 기출문제(일반형) 인문사회계열	75
2. 2026학년도 논술 기출문제(일반형) 경영경제계열	87



“
여러분의 도전이
중앙대학교에서
더 큰 가능성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입학처장을 맡고 있는 생명과학과 김정웅 교수입니다.

푸른 꿈을 안고 중앙대학교를 향한 담대한 도전에 나선 수험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여정인 대학 입시의 목표로 중앙대학교를 선택해 주신 여러분의 무한한 신뢰와 열정을 가슴 깊이 새기며, 지금껏 쏟아 온 노력을 중앙대학교에서 찬란한 결실로 마주하게 될 그날을 여러분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중앙대학교 논술전형은 수험생의 깊이 있는 논리적 사고력을 검증하는 가장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 방법으로 오랜 시간 명성을 이어왔습니다. 정형화된 정답을 찾아내는 것을 넘어, 스스로 사유하고 이를 명확하게 서술하는 능력은 지식의 융합이 일어나는 AI시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중앙대학교 논술을 준비하며 다져진 논리적 복합 사고력은 대학 입학을 넘어, 훗날 여러분이 사회에서 트렌드를 주도하며 리더로 성장하는 데 있어 핵심 역량이 될 것입니다.

중앙대학교는 수험생 여러분의 가능성을 더 넓게 포용하고자 2027 학년도 논술전형을 혁신적으로 정비했습니다. 오랜 전통을 이어온 ‘논술(일반형)’과 더불어, 학교생활에 충실히 임한 학생들의 기초 학업능력을 평가하는 ‘논술(창의형)’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형이 늘어난 것을 넘어 중앙대학교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기회의 통로가 두 배로 넓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새롭게 도입된 논술(창의형)은 여러분의 입시 전략에 강력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 가능성, 모집단위,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출제 유형을 바탕으로 ‘일반형’과 ‘창의형’을 전략적으로 동시 검토한다면, 남들보다 한발 앞선 입시 전략을 세울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본 논술 가이드북은 여러분의 위대한 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올해 6월 전국 약 7천명의 고등학생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입증한 ‘창의형 모의논술’의 생생한 기출 문항은 물론 기존 ‘일반형 모의논술’의 문제들도 모두 담았습니다. 이에 더해 전년도 논술전형 결과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 출제 방향, 채점 기준까지 가이드북을 통해 아낌없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이드북을 넘기다 보면 여러분은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수했다면 중앙대학교 논술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확실한 자신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단언컨대 이 책은 중앙대학교로 향하는 여정에서 여러분을 합격으로 이끌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도전의 끝자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믿는 마음과 건강입니다. 남은 기간 건강 관리에 유의하며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중앙대학교 논술시험에서 유감없이 발휘해 주십시오. 중앙대학교는 그 어느 대학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통해 여러분의 역량을 세심하게 발견하고, 더 큰 세계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성장의 장을 마련해 두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벅찬 도전이 중앙대학교에서 위대한 미래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의혈중앙의 캠퍼스에서 여러분과 반갑게 마주할 그날을 고대하며,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대학교 입학처장

김 정 웅

I. 2027학년도 논술전형 안내

지원자격

일반형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학년 수료예정자 중 상급학교 진학대상자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창의형

- 2027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학년 수료예정자 중 상급학교 진학대상자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 취득예정자

※ 2026년에 고등학교 3학년을 이수하고 2026년 12월에 졸업한 자는 2027년 졸업예정자로 간주하여 지원 가능

※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고교 졸업(예정)자 지원 불가

전형일정

공통사항

구분	일시	비고
인터넷 원서접수	2026. 9. 8.(화) 10시 ~ 11.(금) 18시	
서류제출	2026. 9. 8.(화) 10시 ~ 15.(화) 16시	• 해당자에 한해 온라인 업로드
최초 합격자 발표	2026. 12. 18.(금) 14시	
최초 합격자 문서 등록	2026. 12. 21.(월) ~ 23.(수)	
충원 합격자 발표	2026. 12. 24.(목) ~ 29.(화) 18시	
합격자 전체 등록금 납부	2027. 2. 10.(수) ~ 12.(금)	

※ 상기 일정은 전형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공고

 전형일정

일반형

구분	일시
고사장 조회 및 수험생 유의사항 공고	2026. 11. 24.(화) 14시
논술고사	자연: 2026. 11. 28.(토) 인문: 2026. 11. 29.(일)

구분	2026. 11. 28.(토) - 자연계열		2026. 11. 29.(일) - 인문계열	
	대학	모집단위	대학	모집단위
1교시 (10:00-12:00)	자연과학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수학과	경영경제	경제학부, 응용통계학과, 광고홍보학부(광고홍보학), 국제물류학과, 경영학부 전체
	공과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전체, 건축학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화학공학과, 기계공학부, 첨단소재공학과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학부, SI학과		
	경영경제	산업보안학과(자연)		
	적십자간호	간호학과(자연)		
	생명공학	생명자원공학부 전체, 식품공학부 전체, 시스템생명공학과		
	예술공학	예술공학부		
2교시 (14:00-16:00)	창의ICT 공과	전자전기공학부, 융합공학부, 지능형반도체공학과	인문	국어국문학부(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과, 유럽문화학부 전체, 아시아문화학부 전체, 철학과, 역사학과
	약학	약학부	사회과학	정치국제학과, 심리학과, 문헌정보학과, 사회복지학부, 사회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공공인재학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의과	의학부	사범	교육학과, 영어교육과
			적십자간호	간호학과(인문)

창의형

구분	일시
고사장 조회 및 유의사항 공고	2026. 10. 7.(수) 14시
논술고사	2026. 10. 11.(일) 인문계열: 1교시(10:00 ~ 12:00) 자연계열: 2교시(14:00 ~ 16:00)

수능최저학력기준

일반형

캠퍼스	모집단위	영역별 기준		탐구영역 반영방법	공통
서울	인문/자연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과)	3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상위 1과목 반영	한국사 4등급 이내
	4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2과목 평균 ¹⁾		
				의학부	
다빈치	전체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하지 않음			

1) 2과목 평균은 소수점 자리 버림 없이 그대로 반영(예시: 4개 영역 등급 합 5.5인 경우 미충족)

※ 영어 등급 반영 시 1등급과 2등급을 통합하여 1등급으로 간주하여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를 산정

※ 제2외국어와 한문은 반영하지 않음

창의형

- 수능최저학력기준 : 없음

전형요소별 반영 비율

공통사항

선발단계	논술(%)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비교과(출결)
일괄합산	70	20	10

※ 최고점 1,000점, 최저점 0점 기준

논술

출제방향

공통사항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며 대학에서의 수학에 필요한 사고력과 쓰기 능력 측정에 중점을 둠

출제유형 및 시험시간

일반형

계열	논술유형	모집단위	출제유형 및 문항수		시험 시간
인문	인문사회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간호학과(인문)	언어논술 3문항		120분
	경영경제	경영경제대학(산업보안학과(자연) 제외)	언어논술 2문항, 수리논술 1문항		
자연	자연	산업보안학과(자연),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창의ICT공과대학, 소프트웨어대학, 간호학과(자연), 생명공학대학, 예술공학대학	수리논술	4문항	
		약학부, 의학부		5문항	

창의형

계열	논술유형	모집단위	출제유형 및 문항수		시험 시간
인문	인문사회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언어논술 3문항		120분
	경영경제	경영경제대학	언어논술 2문항, 수리논술 1문항		
자연	자연	공과대학, 창의ICT공과대학, 소프트웨어대학	수리논술	6문항	
		약학부, 의학부		8문항	

논술

출제범위

공통사항

계열	논술유형	출제유형	교과	과목명
인문	인문사회/ 경영경제	언어논술	국어 교과	국어, 화법과 작문, 문학, 독서, 언어와 매체
			사회 교과	통합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경영경제	수리논술	수학 교과	수학, 수학 I, 수학II, 확률과 통계

일반형

계열	논술유형	출제유형	교과	과목명
자연	자연	수리논술 (의/약학부 외)	수학 교과	수학, 수학 I, 수학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수리논술 (의/약학부)	수학 교과	수학, 수학 I, 수학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창의형

계열	논술유형	출제유형	교과	과목명
자연	자연	수리논술(의/약학부 외)	수학교과	수학, 수학 I, 수학II, 미적분
		수리논술(의/약학부)	수학교과	수학, 수학 I, 수학II, 미적분, 기하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

공통사항

-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반영대상 : 지원자 전체(단, 비교내신 대상자 제외)

교과		비교과(출결)
반영 교과	반영 교과의 반영방법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교과	석차등급 상위 5개 과목의 환산점수 활용 ※ 석차등급이 없는 과목은 반영하지 않음 ※ 교과별/학년별 가중치 없음	미인정 결석 일수 기준으로 환산점수 반영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반영 예시

학기	교과	과목	등급	학기	교과	과목	등급
1-1	국어	국어	5	1-2	국어	국어	6
	수학	수학	6		수학	수학	7
	영어	영어	3		영어	영어	3
	사회	통합사회	6		사회	통합사회	6
	과학	통합과학	6		과학	통합과학	5
2-1	국어	문학	5	2-2	국어	독서	4
	수학	수학 I	8		수학	수학II	7
	영어	영어 I	2		영어	영어II	4
	사회	세계지리	4		사회	세계지리	5
	사회	경제	6		사회	경제	5
	사회	사회문화	6		사회	사회문화	4
	과학	지구과학 I	6		과학	지구과학 I	5
3-1	국어	언어와 매체	5	논술전형 교과 20%에 반영되는 석차등급 상위 5개 과목			
	수학	확률과 통계	6				
	영어	영어 독해와 작문	3				
	사회	정치와 법	4				

- 비교내신 대상 및 반영방법

비교내신 대상	반영방법
• 국내고교 2025년 2월 이전 졸업자(2025년 2월 졸업자 포함) 일반형	논술성적에 의한 비교내신 적용
• 학교생활기록부가 없거나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석차등급을 산출할 수 없는 자 일반형 창의형	

- 학교폭력조치사항 반영방법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대해 1~7호는 10점~100점 감점 적용하며, 8~9호는 부적격 처리함
(단, 외국고교 출신자 등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될 수 있음)

Ⅱ. 2026학년도 논술전형 결과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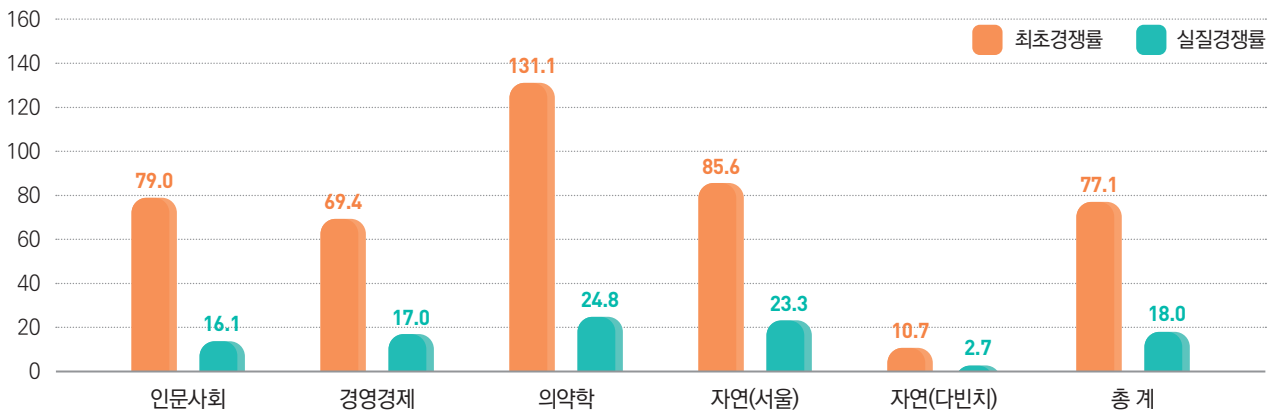
1. 모집인원 및 경쟁률

- ✓ 논술전형 경쟁률 77.12 : 1 (484명 모집, 37,325명 지원)
- ✓ 의학부(127.5:1), 약학부(133.83:1),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119.50:1), 전자전기공학부(106.94:1), 생명과학과(104.17:1), 정치국제학과(98.5:1), 기계공학부(98.18:1) 최상위 경쟁률 기록

표 1-1 논술전형 경쟁률 및 추가합격률

모집계열	모집인원(명)	지원인원(명)	최초경쟁률	실질경쟁률	충원율(%)
인문사회	149	11,776	79.0:1	16.1:1	12.1%
경영경제	89	6,176	69.4:1	17.0:1	12.4%
의약학	42	5,507	131.1:1	24.8:1	19.0%
자연(서울)	156	13,354	85.6:1	23.3:1	25.6%
자연(다빈치)	48	512	10.7:1	2.7:1	33.3%
총 계	484	37,325	77.1:1	18.0:1	19.2%

그림 1-1 2026학년도 논술전형 최초경쟁률 및 실질경쟁률



2026학년도 논술전형은 484명 모집에 37,325명이 지원하여 77.1:1의 최초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전년도 76.7:1과 비교해 전체 경쟁률은 소폭 상승하였다. 특히 경영경제 계열은 52.3:1에서 69.4:1로 크게 상승했고, 인문사회 계열도 72.1:1에서 79.0:1로 높아져 인문계열 모집단위에 대한 지원 집중이 두드러졌다. 반면 의약학 계열은 155.4:1에서 131.1:1로 최초경쟁률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전체 계열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의학부·약학부에 대한 선호가 지속되는 가운데, 높은 수능최저학력기준과 논술고사 부담을 고려해 지원이 다소 조정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논술전형은 매년 최초경쟁률에 비해 실질경쟁률이 크게 낮아지는 전형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5학년도에도 전체 최초경쟁률은 76.7:1이었지만 실질경쟁률은 19.46:1이었고, 2026학년도 역시 최초경쟁률 77.1:1에 비해 실질경쟁률은 18.0:1로 낮아졌다. 이는 논술고사 결시,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충족 등으로 실제 경쟁 대상자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험생은 원서접수 직후의 높은 경쟁률에 지나치게 위축되기보다는, 본인의 논술고사 준비도, 수능최저 충족 가능성, 모집단위별 실질경쟁률과 충원율을 함께 고려해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2027학년도에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논술(창의형)이 신설되는 만큼, 수능최저 충족 가능성에 따라 논술(일반형)과 논술(창의형)을 함께 검토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림 1-2 인문계열 최초경쟁률 상위 5개 모집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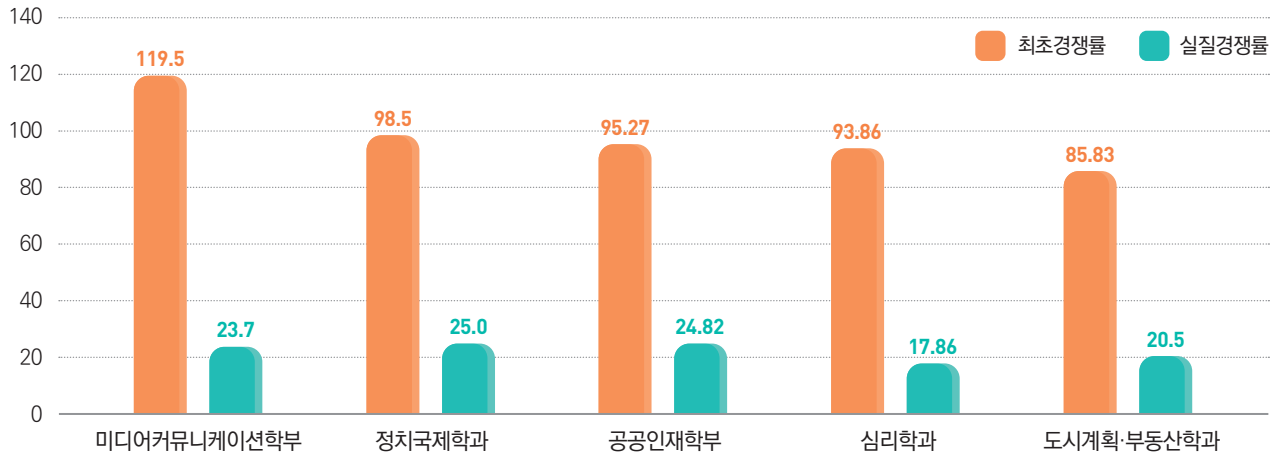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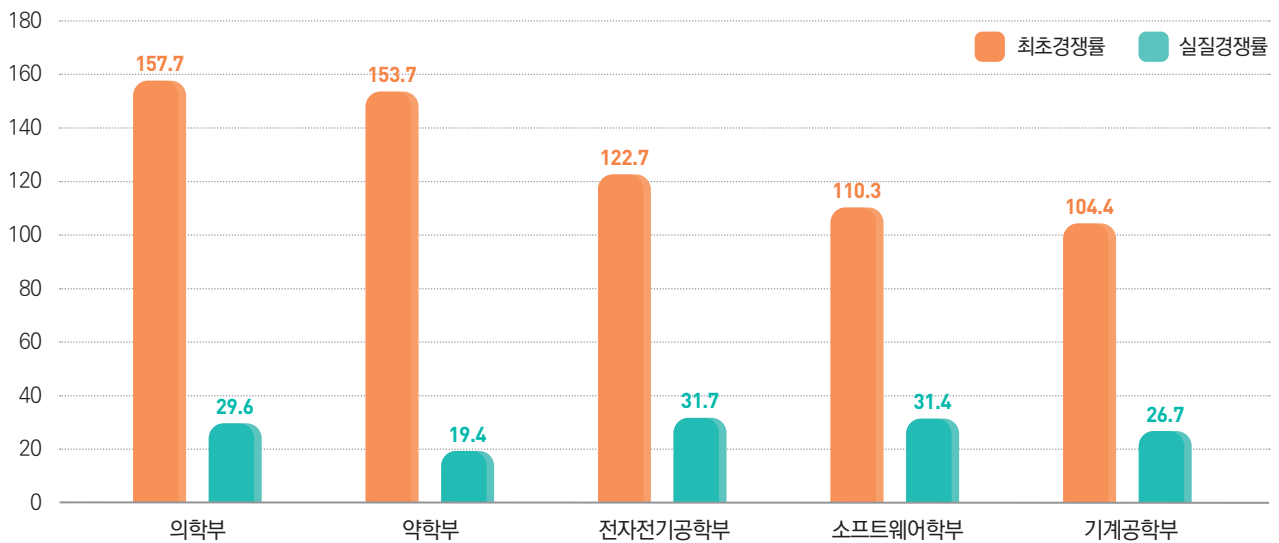


그림 1-3 자연계열 최초경쟁률 상위 5개 모집단위



인문계열에서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사회과학대학 소속 모집단위의 강세가 이어졌다. 2026학년도에도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가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최상위권을 유지했고, 정치국제학과, 공공인재학부, 심리학과 역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여기에 도시계획·부동산학과도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상승하며 상위권 흐름에 합류한 점이 눈에 띈다. 전반적으로 특정 학과에만 지원이 집중되기보다는 사회과학계열 전반에 대한 선호가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자연계열에서는 의학부·약학부의 높은 선호가 지속되었으나, 전년도와 비교하면 경쟁률은 다소 완화된 모습이다. 그럼에도 약학부와 의학부는 여전히 자연계열 최상위 경쟁률을 기록하며 의약학 계열에 대한 수험생의 높은 관심을 확인시켰다. 의약학부를 제외하면 전년도에 이어 전자전기공학부가 높은 경쟁률을 유지했다. 반면 전년도에 높은 관심을 보였던 소프트웨어학부, 시학과, 화학공학과 등 일부 모집단위는 경쟁률이 다소 완화된 반면, 생명과학과가 상위권에 진입하며 자연계열 내 지원 흐름에 일부 변화가 나타났다.

2. 지원자 및 합격자 분포

- ✓ 지원자 및 합격자의 약 80% 일반고 출신 학생이 차지
- ✓ 지원자의 약 39%, 합격자의 약 51%가 고3(졸업예정자)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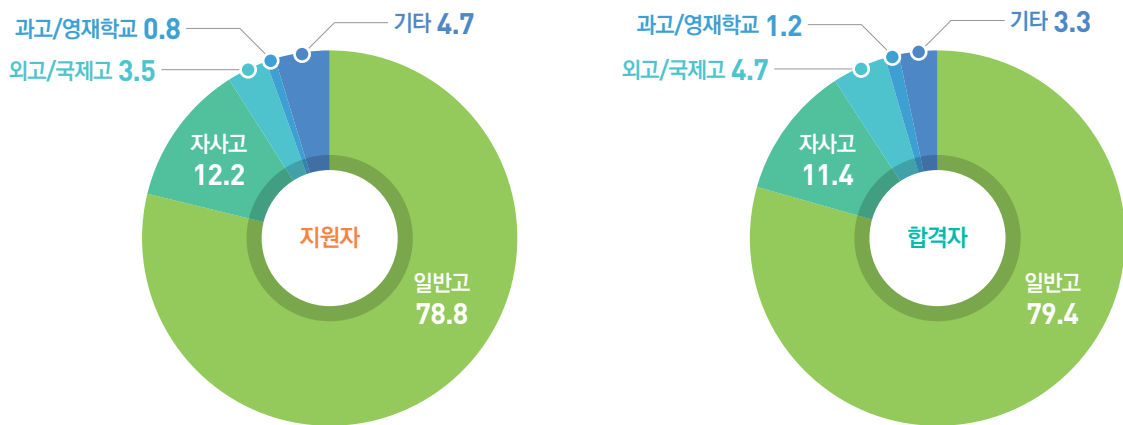
1) 고교 유형별 분석

고교 유형별 현황을 보면, 논술전형은 지원자와 합격자 모두 일반고 출신 비중이 가장 높은 전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기준으로 일반고 출신은 지원자 78.8%, 합격자 79.4%를 차지해 지원 비율과 합격 비율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논술전형이 특정 고교 유형에만 유리하게 작용하기보다는, 일반고 학생들도 충분히 도전하고 합격할 수 있는 전형임을 보여준다. 한편 자사고는 지원자 12.2%, 합격자 11.4%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외고·국제고는 지원자 3.5%에서 합격자 4.7%로 소폭 높아졌다. 전반적으로 고교 유형에 따른 큰 쏠림보다는 논술고사 준비도와 수능최저학력기준이 합격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1 논술전형 지원/합격자의 고교유형별 현황(%)

계열	지원					합격				
	일반고	자사고	외고/국제고	과고/영재학교	기타	일반고	자사고	외고/국제고	과고/영재학교	기타
인문	78.6%	8.2%	6.9%	0.0%	6.4%	81.3%	4.1%	9.7%	0.0%	4.9%
자연	79.0%	16.0%	0.3%	1.5%	3.2%	77.7%	17.7%	0.3%	2.3%	1.9%
계	78.8%	12.2%	3.5%	0.8%	4.7%	79.4%	11.4%	4.7%	1.2%	3.3%

그림 2-1 논술전형 지원/합격자의 고교유형별 현황(%)



2) 고교 졸업시기별 분석

논술전형은 일반적으로 재수 이상 졸업생의 지원 비중과 합격 비중이 높은 전형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2026학년도에는 고3 재학생의 지원 및 합격 비중이 예년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전체 지원자 중 26년 졸업예정자는 39.0%였으나, 합격자에서는 51.0%를 차지해 지원 비율보다 합격 비율이 높았다. 특히 자연계열에서는 고3 지원자 비율이 38.2%였던 데 비해 합격자 비율은 56.1%로 크게 높아져, 재학생의 강세가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이는 2026학년도 재학생 규모로 인한 입시 환경의 변화가 논술전형의 지원·합격자 구성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재수생 역시 전체 합격자의 32.8%를 차지하고 있어, 논술전형이 여전히 졸업생에게도 중요한 지원 기회로 활용되고 있음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2027학년도에 신설되는 논술(창의형)을 이해하는 데에도 참고할 만하다. 논술(창의형)은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를 중심으로 지원자격이 설정되어 있어, 고3 재학생에게 열려 있는 별도의 논술 기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모집인원 규모는 기존 논술(일반형)에 비해 크지 않으므로, 지원자는 본인의 지원자격, 수능최저 충족 가능성, 희망 모집단위, 논술 유형별 준비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일반형과 창의형의 지원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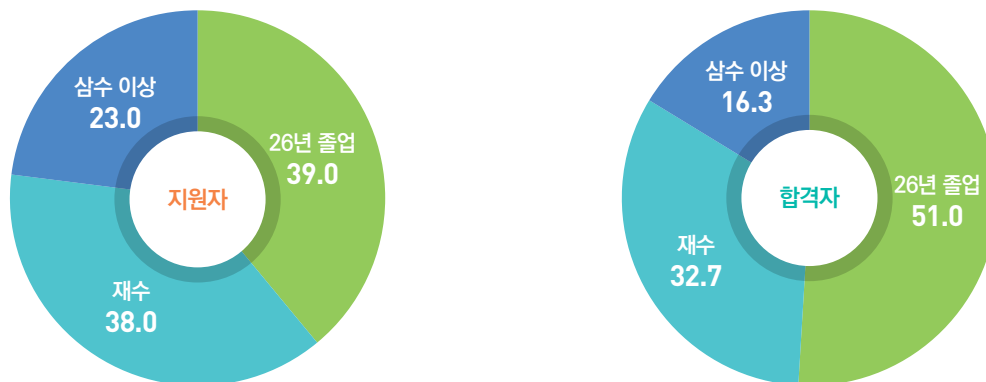
표 2-2

논술전형 지원/합격자의 고교 졸업시기별 현황(%)

계열	지원			합격		
	26년 졸업(고3)	재수	삼수 이상	26년 졸업(고3)	재수	삼수 이상
인문	39.9%	39.0%	21.1%	44.9%	34.1%	21.0%
자연	38.2%	37.0%	24.8%	56.1%	31.6%	12.3%
계	39.0%	38.0%	23.0%	51.0%	32.7%	16.3%

그림 2-2

논술전형 지원/합격자의 고교 졸업시기별 현황(%)



3. 논술/교과 성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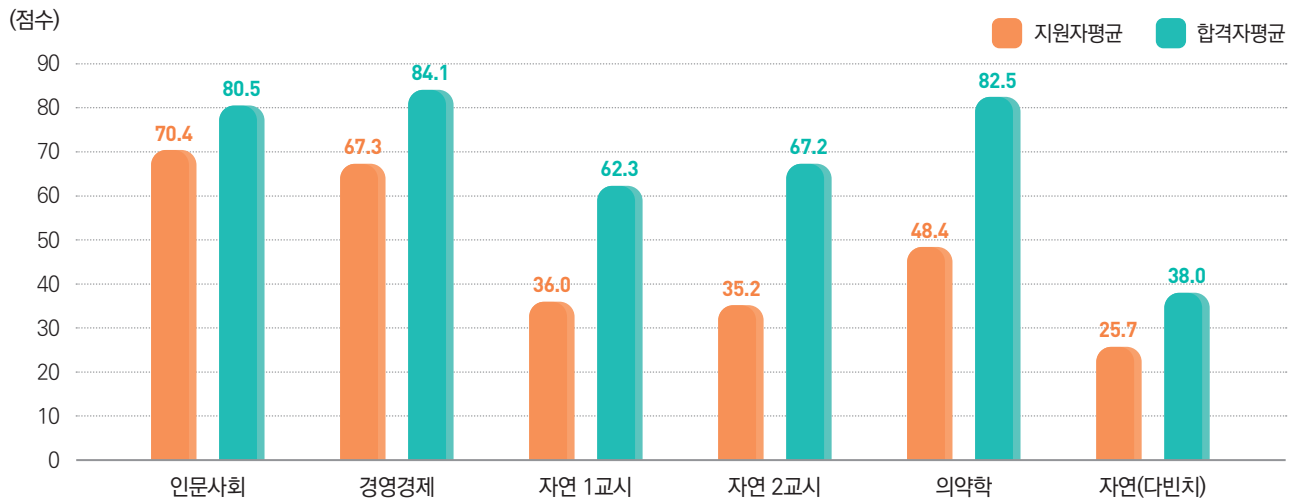
1) 논술성적 분석

표 3-1 논술 유형별 지원/합격자 논술성적 현황

(단위: 점)

캠퍼스	구분	교시	지원		합격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서울	인문사회		70.4	7.7	80.5	2.9
	경영경제		67.3	12.2	84.1	2.7
	자연 (의약학 제외)	1교시	36.0	12.1	62.3	6.0
		2교시	35.2	13.5	67.2	6.7
	의약학		48.4	17.7	82.5	7.6
다빈치	자연		25.7	12.0	38.0	8.4

그림 3-1 논술 유형별 지원/합격자 논술성적 현황



2026학년도 논술성적을 살펴보면, 인문사회 및 경영경제 계열은 전년도와 비교해 지원자 평균과 합격자 평균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반면 자연계열은 서울캠퍼스 자연계열과 의약학 계열 모두에서 지원자 평균과 합격자 평균이 낮아져, 전년도에 비해 수리논술의 체감 난도가 높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자연계열에서는 지원자 평균뿐 아니라 합격자 평균도 함께 낮아졌다는 점에서, 일반 지원자뿐 아니라 합격자 집단에게도 문항 해결 부담이 컸던 해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합격자 평균은 지원자 평균을 뚜렷하게 상회하고 있어, 고난도 문항 속에서도 핵심 개념을 정확히 적용하고 풀이 과정을 끝까지 완성하는 능력이 합격자 변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문항별로는 자연계열 전반에서 후반부 문항의 난도가 높게 나타났다. 자연계열은 교시별로 동일한 문제를 풀이하였으며, 1교시와 2교시 모두 4번 문항에서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문항들은 「기하」를 중심으로 「수학」, 「수학Ⅰ」의 개념을 함께 활용해 도형과 공간 상황을 해석해야 하는 문항으로, 단순 계산보다는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풀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2026학년도 자연계열 논술은 후반부 고난도 문항이 체감 난도를 높였으며, 주요 문항에서 풀이의 정확성과 완성도가 합격자 선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계열별 지원자 평균과 합격자 평균을 비교하면, 논술성적이 합격자 선별에 뚜렷하게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문사회 계열은 지원자 평균 70.4점, 합격자 평균 80.5점으로 나타났고, 경영경제 계열은 지원자 평균 67.3점, 합격자 평균 84.1점으로 합격자 평균이 가장 높았다. 인문계열 논술은 매년 출제 방향과 문항 유형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편이므로, 출제 유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시문을 분석하고 답안을 구성하는 방식에 익숙한 지원자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연계열은 전반적으로 지원자 평균과 합격자 평균이 인문계열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합격자 평균은 지원자 평균을 크게 상회하였다. 특히 의약학 계열은 지원자 평균 48.4점에서 합격자 평균 82.5점으로 점수 차이가 크게 나타나, 고난도 문항을 해결하고 풀이 과정을 완성하는 능력이 합격에 강한 변별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캠퍼스 자연계열도 교시별로 합격자 평균이 지원자 평균보다 크게 높아, 수리논술의 난도가 높았던 상황에서도 핵심 개념을 정확히 적용하고 논리적으로 답안을 전개한 지원자가 합격권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2

모집단위별 합격자 논술성적 현황

(단위: 점)

캠퍼스	구분	교시	대학	평균점수	최고점수	최저점수
서울	경영경제		경영경제대학	84.1	89.5	79.0
	인문사회		사범대학	81.6	87.0	77.0
			사회과학대학	81.4	91.0	74.5
			인문대학	80.3	85.0	75.0
			적십자간호대학	76.2	78.5	75.5
	의약학		약학대학	76.4	82.5	72.5
			의과대학	89.0	99.5	83.0
	자연(서울)	1교시	경영경제대학	61.0	66.5	56.0
			공과대학	63.6	87.5	52.0
			소프트웨어대학	62.8	73.5	57.5
			자연과학대학	62.0	91.5	52.0
			적십자간호대학	56.7	62.0	52.0
		2교시	창의ICT공과대학	67.2	87.8	57.0
다빈치	자연(다빈치)		공과대학	38.2	42.0	32.3
			생명공학대학	37.5	52.5	16.5
			예술공학대학	39.2	58.0	30.0

합격자의 논술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계열 및 모집단위별로 합격권을 형성한 점수대에 차이가 나타났다. 인문계열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합격자 평균이 80점 안팎으로 형성되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답안 완성도를 갖춘 지원자들이 합격권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자연계열은 수리논술의 난도 영향으로 합격자 평균이 인문계열보다 낮게 형성되었으나, 서울캠퍼스 자연계열 내에서도 대학별 평균과 최고점에 차이가 나타나 고난도 문항 속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고득점자가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의약학 계열의 경우 의과대학은 합격자 평균과 최저점이 모두 높게 나타나, 상위권 합격자의 논술 완성도가 매우 높았던 모집단위로 해석된다.

다만 최고점과 최저점은 해당 대학의 합격자 수, 지원자 풀, 충원 여부 등에 따라 개별 사례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곧바로 합격선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모집인원이 많지 않은 모집단위에서는 한두 명의 고득점 또는 저득점 사례가 최고·최저점에 직접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합격자 논술점수는 평균을 중심으로 계열별·대학별 전반적인 점수대를 파악하고, 최고점과 최저점은 합격자 내부의 점수 분포 폭을 참고하는 보조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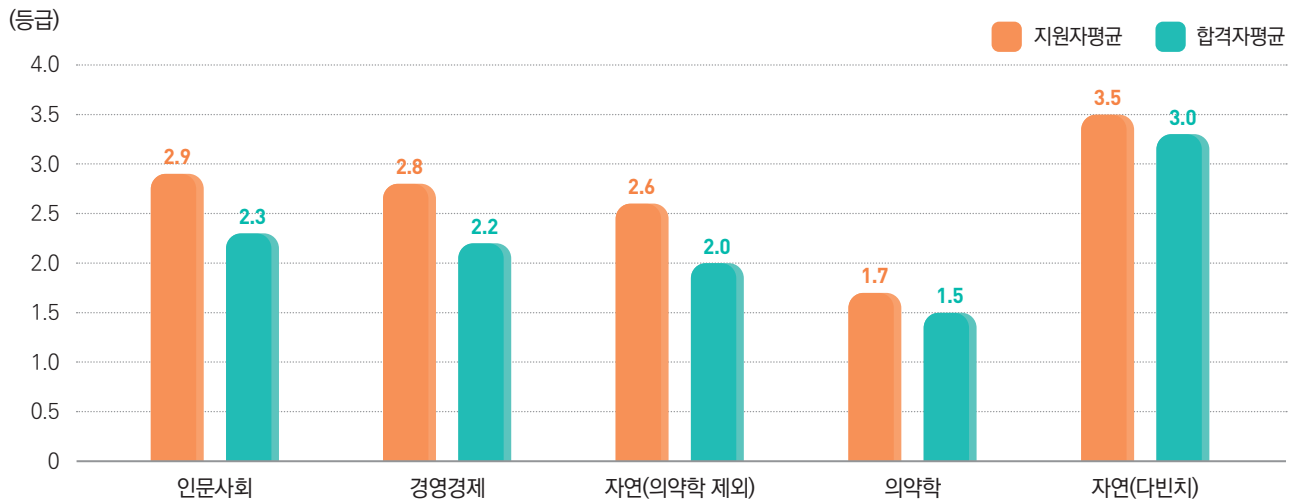
2) 교과 성적 분석

표 3-3 지원/합격자의 교과 성적 현황

(단위: 등급)

캠퍼스	구분	상위 5과목		전체	
		지원자	합격자	지원자	합격자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서울	인문사회	2.9	2.3	4.6	3.9
	경영경제	2.8	2.2	4.5	3.7
	자연(의약학 제외)	2.6	2.0	4.2	3.5
	의약학	1.7	1.5	3.3	2.5
다빈치	자연	3.5	3.0	5.0	4.5

그림 3-3 지원/합격자의 교과 성적(상위 5과목) 현황



중앙대학교 논술전형의 학생부 교과 성적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 중 상위 5과목만 반영한다. 따라서 지원자의 전체 교과 평균을 그대로 반영하는 방식이 아니며, 실제 반영 시에는 본인이 강점을 보이는 일부 과목의 성취도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전체 교과 평균보다 더 우수한 등급으로 산출될 수 있다. 표에서도 상위 5과목 평균 등급이 전체 교과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논술전형의 교과 반영 방식이 지원자의 일부 우수 과목을 중심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논술전형에서 교과 성적은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기보다 보조적인 전형 요소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실제 환산점수를 고려하면 등급 간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아 교과 성적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제한적이며, 당락에는 논술고사 성적이 더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수험생은 교과등급만으로 지원 가능성을 판단하기보다는, 논술고사 준비도와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 가능성, 모집단위별 경쟁률 및 충원율 등을 함께 고려하여 지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4. 모집단위별 경쟁률 및 논술성적

캠퍼스	계열	단과대학	모집단위	논술											논술 유형
				모집 인원	지원 인원	경쟁률	실질 경쟁률	총원율	지원자			합격자			
									교과등급 평균	교과등급 상위5	논술고사 성적	교과등급 평균	교과등급 상위5	논술고사 성적	
서울	인문	인문	국어국문학부(국어국문학)	6	446	74.3	19	0	4.54	2.67	69.7	3.75	2.2	79.6	인문사회
			영어영문학과	10	792	79.2	17.9	10	4.57	2.88	70.4	4.11	1.91	81	
			유럽문화학부(독일어문학)	8	485	60.6	9.1	0	4.84	3.23	67.7	3.89	2.08	76.8	
			유럽문화학부(프랑스어문학)	8	578	72.3	13	12.5	4.7	2.81	71.4	4.28	3.14	82.8	
			유럽문화학부(러시아어문학)	8	548	68.5	10.8	0	4.8	2.96	69.4	3.82	2.47	78.7	
			아시아문화학부(일본어문학)	6	393	65.5	11.7	16.7	4.68	2.99	71.1	4.54	2.95	80.3	
			아시아문화학부(중국어문학)	6	367	61.2	12.2	0	4.75	2.98	73.3	4.15	2.3	81.8	
			철학과	6	432	72	14	16.7	4.72	2.9	70.6	3.8	2.26	81.3	
	역사학과	6	404	67.3	12	33.3	4.49	2.87	68.6	3.61	2.45	80			
서울	인문	사회과학	정치국제학과	6	591	98.5	25	0	4.46	2.7	67	3.81	2.15	78.7	인문사회
			공공인재학부	11	1048	95.3	24.8	9.1	4.44	2.67	73.2	3.37	1.89	83.7	
			심리학과	7	657	93.9	17.9	28.6	4.62	2.83	71.4	4.44	2.55	80.7	
			문헌정보학과	6	418	69.7	16.7	0	4.38	2.76	66.9	4.11	2.37	76.5	
			사회복지학부	6	414	69	11.8	0	4.58	2.84	71.6	3.89	2.53	80.5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10	1195	119.5	23.7	40	4.66	3	72.1	4.15	2.53	83.2	
			사회학과	7	571	81.6	19.4	0	4.55	2.73	73	3.67	2.03	83.8	
			도시계획 · 부동산학과	6	515	85.8	20.5	33.3	4.57	2.96	68.2	3.75	2.24	79.6	
서울	자연	자연과학	물리학과	6	434	72.3	15.7	50	4.11	2.51	35.9	3.8	1.83	57.3	자연 1교시
			화학과	6	474	79	21.8	16.7	3.9	2.42	33.7	2.98	1.54	57.9	
			생명과학과	6	625	104.2	29.7	0	4.22	2.75	33.9	2.98	1.57	70.6	
			수학과	6	371	61.8	13.5	50	4.08	2.3	42.9	3.38	1.95	64.2	
서울	자연	공과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도시시스템공학)	6	495	82.5	19.2	0	4.21	2.66	33.3	3.63	2.2	62.5	자연 1교시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건설환경플랜트공학)	9	776	86.2	22.4	22.2	4.19	2.61	37.4	3.72	2.26	61.9	
			건축학부	11	994	90.4	19.4	9.1	4.48	2.95	30.5	4.33	2.6	60.5	
			화학공학과	10	835	83.5	24.2	20	3.94	2.37	36.8	3.42	1.72	63.6	
			기계공학부	17	1669	98.2	28.4	58.8	4.12	2.5	42.7	3.34	1.79	67.6	
			에너지시스템공학부	9	750	83.3	21.8	11.1	4.16	2.66	32.8	3.86	2.42	58.7	
서울	자연	창의 ICT공과	전자전기공학부	18	1925	106.9	31.8	27.8	4.08	2.47	35.6	3.5	2.16	68	자연 2교시
			융합공학부	8	699	87.4	27.5	37.5	4.01	2.54	34.1	3.08	1.89	65.6	
서울	자연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학부	17	1406	82.7	23.4	11.8	4.19	2.57	36	3.58	2.14	63	자연 1교시
			SI학과	8	658	82.3	23.5	25	4.24	2.59	34.5	2.86	1.51	62.6	
서울	인문	사범	교육학과	6	406	67.7	12.8	16.7	4.55	2.69	71.9	3.92	2.27	83.5	인문사회
			영어교육과	7	450	64.3	12.9	14.3	4.46	2.71	68.7	3.92	2.03	79.9	인문사회
		경영경제	경영학부(경영학)	54	3979	73.7	19.1	13	4.52	2.81	68.5	3.69	2.16	85.7	경영경제
			경영학부(글로벌금융)	6	372	62	12.8	0	4.58	2.95	64.3	3.85	2.24	80.7	
			경제학부	11	695	63.2	14.4	18.2	4.46	2.82	64.1	3.4	1.91	81.3	
			응용통계학과	6	374	62.3	14.7	33.3	4.28	2.68	66.7	3.74	2.17	82.6	
			광고홍보학부(광고홍보학)	6	377	62.8	12.5	0	4.69	3.02	65.1	3.91	2.47	81.3	
			국제물류학과	6	379	63.2	14.7	0	4.6	2.84	65.5	3.91	2.47	81.1	
			산업보안학과(자연)	6	492	82	26	0	4.09	2.57	33.4	3.19	2	61	
		자연	약학	약학부	24	3212	133.8	21.4	8.3	3.45	1.79	44.9	2.67	1.62	76.4
자연	의과	의학부	18	2295	127.5	29.3	33.3	3.15	1.6	51.8	2.34	1.17	89	자연 2교시	
자연	적십자간호	간호학과(인문)	13	1066	82	12.9	7.7	4.6	3.03	69.3	3.71	2.22	76.2	인문사회	
간호학과(자연)		13	751	57.8	12.7	38.5	4.23	2.59	33.3	3.49	2.14	56.7	자연 1교시		
다빈치	자연	생명공학	생명자원공학부(동물생명공학)	6	57	9.5	3	66.7	4.8	3.42	31.6	4.55	3.22	40.1	자연 1교시
			생명자원공학부(식물생명공학)	6	54	9	1.8	16.7	5.15	3.2	19.3	4.71	3.09	27.1	
			식품공학부(식품공학)	7	60	8.6	3.1	14.3	4.73	3.51	30.3	4.19	2.8	43.6	
			식품공학부(식품영양)	6	53	8.8	1.3	33.3	4.87	3.31	28.4	4.58	2.9	35	
			시스템생명공학과	6	78	13	3.8	33.3	4.67	3.16	23.6	3.83	2.3	39.6	
다빈치	자연	공과	첨단소재공학과	7	93	13.3	3	14.3	5.13	3.54	24	4.62	3.03	38.2	자연 1교시
다빈치	자연	예술공학	예술공학부	10	117	11.7	2.7	50	5.35	3.81	23.9	4.94	3.29	39.2	자연 1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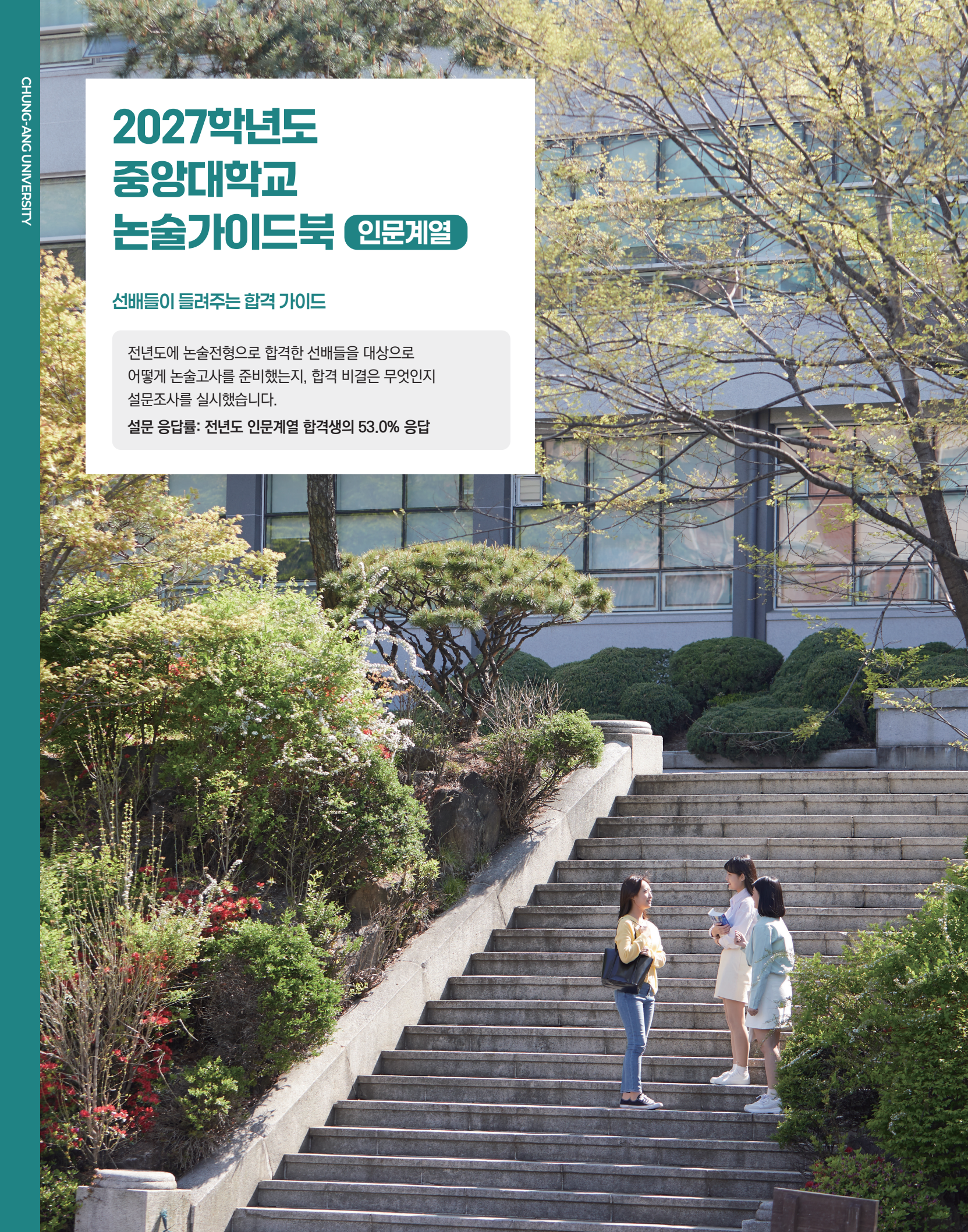
※ 교과등급 평균 산출기준: 국영수사과 이수단위 가중평균

2027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가이드북 **인문계열**

선배들이 들려주는 합격 가이드

전년도에 논술전형으로 합격한 선배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논술고사를 준비했는지, 합격 비결은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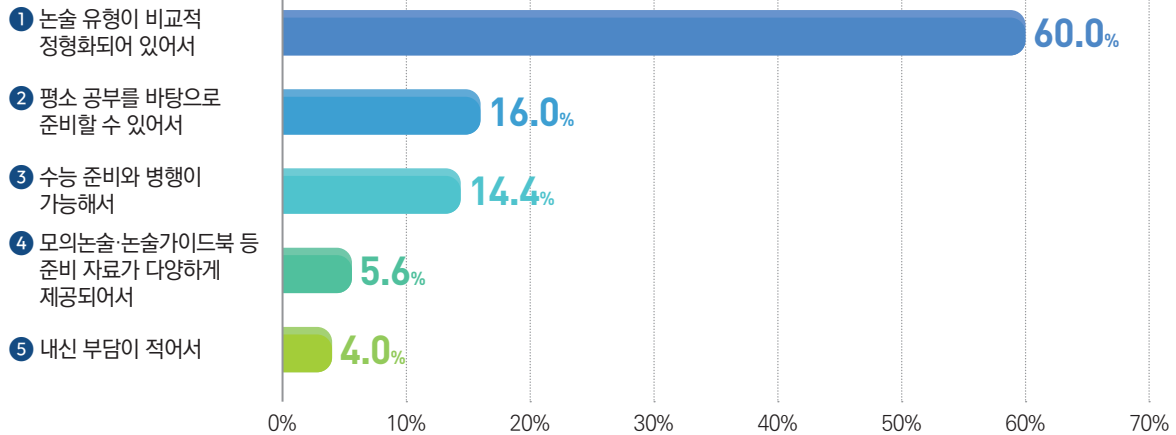
설문 응답률: 전년도 인문계열 합격생의 53.0% 응답



1. 합격생은 왜 중앙대학교 논술을 선택했을까?

“인문계열 합격생들은 ‘논술 유형이 비교적 정형화 되어 있어서’ 중앙대학교 논술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대학의 논술전형에 지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형화된 논술 유형

새로운 제시문이 나오더라도, 핵심 논지를 요약하고 제시문 간 관계를 비교하는 준비 방향은 기출문제와 모의논술 문제로 익힐 수 있습니다.



평소 학습과의 연계성

국어·사회 교과에서 쌓은 독해력은 제시문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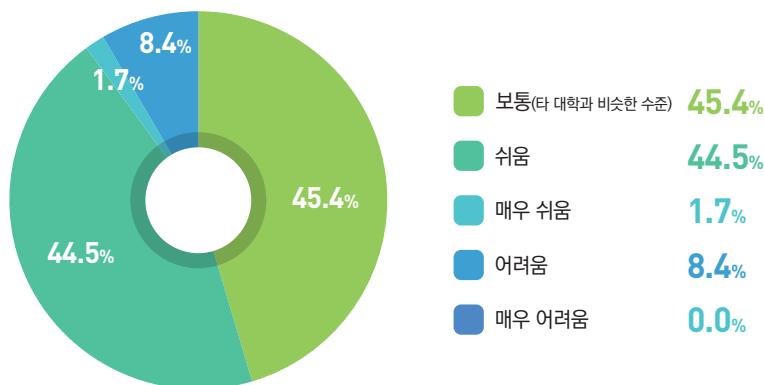


수능 준비와 병행 가능

수능 국어를 준비하며 기른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역량은 제시문 이해와 답안 구성으로 이어져, 우리 대학 논술 대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타 대학 논술 대비 체감 난이도

※ 타 대학 논술전형 응시 경험자 기준



91.6%

보통 또는
쉬운 편으로 응답

타 대학 논술을 경험한 선배들도 중앙대학교 인문계열 논술을 대체로 보통(타 대학과 비슷한 수준) 또는 쉬운 편으로 체감했습니다. 준비 방향을 알고 접근한다면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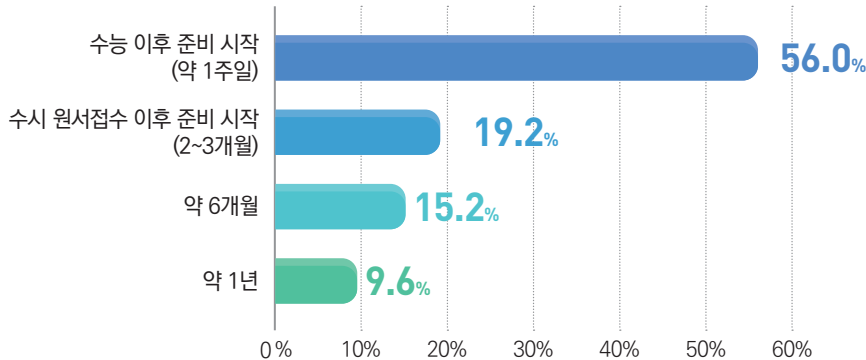
2. 합격생은 언제부터 논술을 준비했을까?

“인문계열 합격생 4명 중 3명은 **수시 원서접수 이후** 또는 **수능 이후** 논술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대학 논술전형 준비를 얼마나 하셨나요?

논술 준비 시작 시기



핵심 POINT

75.2% 3개월 이내 준비 시작

합격생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56.0%)이 수능 이후 본격적으로 논술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수시 원서접수 이후 준비를 시작한 합격생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75.2%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논술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 대학 인문 논술이 장기간의 별도 준비보다는 평소 학습과 수능 준비를 바탕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 인문사회 · 경영경제 논술, 무엇이 중요할까?

“인문사회 논술은 **제시문 이해와 비교·분석 역량**을, 경영경제 논술은 여기에 더해 **수학에 대한 기본 역량**을 함께 확인합니다.”

인문사회 논술

- 언어 논술 3문항
- 국어·사회 교과에서 출제
- 교과서 기반 제시문

경영경제 논술

- 언어 논술 2문항, 수리 논술 1문항
- 수리논술 출제 범위: 수학,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 수리 논술은 기출문제·모의논술 문제 확인

언어 논술 답안 작성 시 중요도

언어 논술에서 중요한 것은 글쓰기 실력이 아닙니다.

합격생들은 제시문의 핵심 논지 파악, 문제의 요구사항 확인, 제한된 분량 안에서의 답안 구조화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습니다.

※ 중요도: 1순위(가장 높음) ~ 5순위(가장 낮음)

평가 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제시문의 핵심 논지 파악	38.4%	36.0%	20.0%	4.8%	0.8%
문제의 요구사항 확인	32.0%	30.4%	24.8%	10.4%	2.4%
제한된 분량 내에서 효율적인 답안 구조 잡기	24.8%	21.6%	31.2%	17.6%	4.8%
문항별 시간 배분	2.4%	3.2%	16.0%	34.4%	44.8%
평소 글쓰기 실력이나 문장 표현력	2.4%	8.8%	8.0%	32.8%	47.2%

1순위 응답에서는 ‘제시문의 핵심 논지 파악’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체 순위 응답을 함께 보면 ‘문제의 요구사항 확인’과 ‘제한된 분량 안에서의 답안 구조화’ 역시 꾸준히 중요하게 인식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대학 언어 논술이 화려한 문장 표현보다, 정확히 읽고, 요구를 파악하고, 답안을 구조화하는 힘을 중요하게 본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경영경제 수리논술 문항, 어떻게 느꼈을까?

① '수능' 확률과 통계 공부하면서
함께 준비할 수 있었다.

53.5%

② 기출문제·모의논술문제로
준비방향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도움 되었다.

25.6%

③ 학교 공부 등 평소 학습 내용을
기반으로 대비 가능했다.

18.6%

④ 중앙대학교 논술을 위해 별도
준비가 필요했다.

2.3%

0% 10% 20% 30% 40% 50% 60%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수능 확률과 통계 공부와 함께 준비할 수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경영경제 합격생의 수능 수학 선택 과목



선택 과목	응답 비율
미적분	0.0%
기하	0.0%

“설문에 응답한
경영경제 합격생 **100.0%**가
수능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습니다.”

수능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다면,
경영경제 논술을 고려해보세요.

경영경제 수리 논술은 ‘수학,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범위에서 출제됩니다.

이에 설문에 응답한 경영경제 합격생의 53.5%가
‘수능 확률과 통계 공부와 함께 준비할 수
있었다’고 답했으며, 해당 응답자는 모두

수능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수능 확률과 통계 학습 과정에서 기본
개념 이해와 문제 해결력이 수리 논술 대비에도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TIP

「논술가이드북」을 적극 활용하세요.

중앙대학교는 매년 「논술가이드북」을 통해 기출문제, 모의논술 문제, 출제 의도 및 해설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합격생 설문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논술가이드북」은 실제 논술 시험의 출제 경향과 평가 요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학습 자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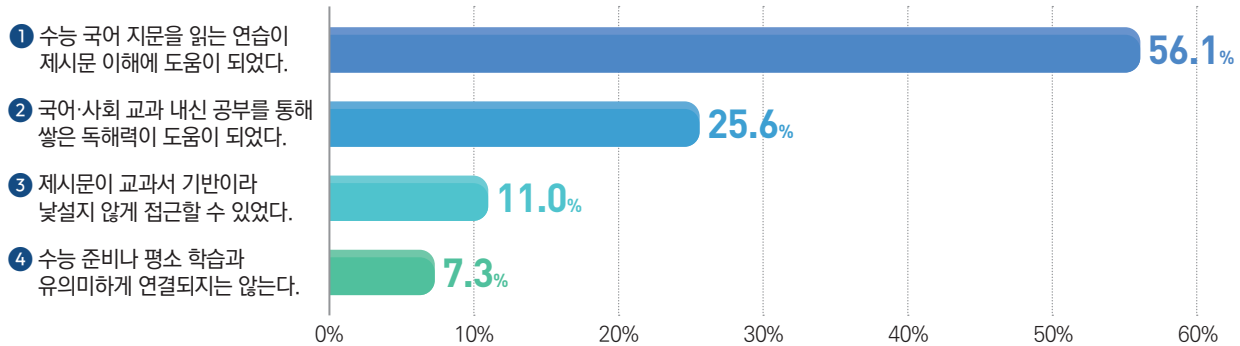
논술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논술가이드북」을 충분히 활용하여 중앙대학교 논술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4. 인문사회 논술은 평소에 읽고 이해한 힘에서 시작됩니다.

“인문사회 논술 합격생들은 우리 대학 논술이 수능 국어 준비와 평소 학습 과정에서 길러온 독해력과 실제로 연결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제시문을 읽고 핵심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수능 국어 지문 읽기 연습과 국어·사회 교과 학습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우리대학 인문사회 논술이 ‘수능 준비’ 또는 ‘평소 학습’과 어떻게 연결된다고 느꼈나요?



합격생의 56.1%는 수능 국어 지문을 읽는 연습이 제시문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25.6%는 국어·사회 교과 내신 공부를 통해 쌓은 독해력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11.0%는 제시문이 교과서 기반이라 낯설지 않게 접근할 수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우리 대학 인문사회 논술이 수능 준비 또는 평소 학습과 연결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92.7%에 이릅니다. 이는 우리 대학 인문사회 논술은 낯선 글쓰기 시험이 아니라, 평소에 길러온 독해력과 사고력을 제시문 이해와 답안 구성으로 연결해보는 논술임을 보여줍니다.

5. 이제 막 논술 준비를 시작하려는 후배에게



방향을 알고 시작하면, 조금 덜 막막해집니다.

“유형부터 익히세요.”

중앙대학교 논술은 기출문제와 모의논술 문제를 통해 문항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답안을 완성하려고 하기보다, 어떤 방식으로 묻고 어떤 구조로 답해야 하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제시문을 ‘잘 읽는’ 연습이 먼저입니다.”

좋은 답안은 멋진 표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각 제시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문제에서 어떤 기준으로 비교하거나 요약하라고 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답안 구조를 먼저 잡고 쓰세요.”

고사장에서 바로 문장을 쓰기 시작하면 중간에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쓰기 전에 핵심 논지, 비교 기준, 문단 순서를 간단히 정리해두면 제한된 시간 안에서도 답안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영경제 지원자는 수리 문항도 미리 확인하세요.”

경영경제 논술은 언어 문항과 함께 수리 문항도 출제됩니다. 확률과 통계 개념을 바탕으로, 기출문제와 모의논술의 수리 문항을 미리 풀어보며 풀이 방식에 익숙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선배들 중에도 논술을 오래 준비하지 않았던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 기간의 길이보다,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중심으로 준비할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이 합격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화려한 문장을 쓰는 시험이 아니라, 제시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묻는 것에 맞게 답하는 시험입니다. 글쓰기가 막연히 부담스럽다면, 먼저 제시문 요약과 답안 구조 연습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누구나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답안 작성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출문제와 모의논술 문제를 반복해 읽다 보면 자주 요구되는 답안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논술은 조금씩 ‘해볼 수 있는 시험’이 됩니다.



고사장에서는 차분함이 실력이 됩니다.

“시간과 분량을 계속 의식하세요.”

언어 논술은 제한된 분량 안에서 핵심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게 쓰는 것보다,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쓰는 연습이 고사 당일에 큰 도움이 됩니다.

“캠퍼스에 들어서는 순간의 마음을 기억하세요.”

많은 선배들이 고사장 분위기, 안내요원, 캠퍼스의 모습이 기억에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이지만, 그 긴장감은 이 대학에 오고 싶다는 마음의 다른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붙잡고, 준비한 만큼 차분히 써 내려가세요.

“완벽한 답안보다 끝까지 정리한 답안이 중요합니다.”

고사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문제의 요구사항을 놓치지 않고, 제시문 근거를 바탕으로 끝까지 답안을 완성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작년의 선배들도 처음부터 확신을 가지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답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문제를 읽고, 제시문의 핵심을 붙잡고, 자신이 준비한 만큼 답안을 완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앙대학교에서 새로운 시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길을 여러분이 걸어올 차례입니다.

중앙대학교 인문계열 논술은 특별한 글쓰기 실력을 가진 누군가만 도전할 수 있는 전형이 아닙니다.

국어·사회 교과 학습을 통해 쌓은 독해력, 수능 국어를 준비하며 길러온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힘, 그리고 「논술가이드북」을 따라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자신이 준비한 시간을 믿어보세요.

여러분의 도전을 중앙대학교가 응원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에서 만나요!

2027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가이드북 **인문계열**

실전 대비 모의논술 문제풀이

- | | | | |
|-------------------------|--------|-------|----|
| 1. 2027학년도 모의논술 문제(일반형) | 인문사회계열 | | 25 |
| 2. 2027학년도 모의논술 문제(일반형) | 경영경제계열 | | 38 |
| 3. 2027학년도 모의논술 문제(창의형) | 인문사회계열 | | 51 |
| 4. 2027학년도 모의논술 문제(창의형) | 경영경제계열 | | 62 |



2027학년도 모의논술 문제(일반형) 인문사회계열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앞부분 줄거리] ‘그’의 가족은 목욕탕 배수관에 문제가 생겨 수리를 하게 된다. 임 씨는 원래 연탄장수지만 여름에는 이런 일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이다. 공사를 하는 동안 부부는 그에게 불신과 경멸의 시선을 보낸다. 예상과 달리 임 씨는 간단하고도 깔끔하게 공사를 마치는데, 아내는 계약대로 돈을 주기 아까운 생각에 옥상 수리를 부탁한다.

간단하게 여겼던 옥상의 공사는 의외로 시간을 끌었다. 임 씨는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리고도 모자라 이왕 뒤편 놓은 곳을 으깨어 버리고 또 새로 흙손질을 거듭하곤 했다. 처음에는 이 사내가 견적대로의 돈을 다 받기가 민망하여 지어내는 열정이라고 여겼었다. 아내도 그런 뜻을 표했다.

“예상외로 옥상 일이 힘든가 보죠? 저 사람도 세상에 공돈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하지만 당한 쪽은 되레 그들이었다. 밤 여덟 시가 지나도록 잡역부 노릇에 시달린 그도 고생이었고, 부러 만들어 시킨 일로 심적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그의 아내 역시 안절부절못했으니까.

“시간이 벌써 이리 되었나요? 우리 사모님 오늘 너무 늦게까지 이거 고생이 많으십니다요.” (중략)

“돈 드려야지요. 그런데…….”

아내는 뒷말을 못 잇고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옥상 일까지 시켜놓고 돈을 다 내주기가 아깝다는 뜻이었다. 그때 임 씨가 먼저 손을 휘휘 내젓고 나갔다.

“사모님, 내 뽀아 드린 견적서 좀 줘 보세요. 돈이 좀 틀려질 겁니다.”

아내가 손에 쥐고 있던 견적서를 내밀었다. 그것을 임 씨가 한참씩이나 들여다보았다. 그와 그의 아내는 임 씨의 입에서 나올 말에 주목하여 잠깐 긴장하였다.

“사장님. 처음엔 전체를 뜯을 작정으로 견적을 뽑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이 썩 간단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임에서 사만 원이 빠지고 시멘트도 이게 다 안 들었고, 모래도 그렇고, 예, 쓰레기 치울 용달차도 빠지게 되죠. 방수액도 타일도 반도 못 썼으니 여기서도 요게 빠지고 또…….”

임 씨가 조목조목 남는 것들을 설명해 갔지만 그의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어깨의 빠근함과 함께 그를 짓누르고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해서 모두 칠만 원이면 되겠습니까요.”

“칠만 원요? 그럼 옥상은…….”

“옥상에 들어간 재료비도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거야 뭐 몇 푼 되나요.”

“그럼 우리가 너무 미안해서…….”

아내가 이번에는 호소하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할 수 없이 그가 끼어들었다.

“계산을 다시 해 봐요. 처음에는 십팔만 원이라고 했지 않소?”

“이거 돈을 더 내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에이, 사장님도. 제가 어디 공일 해줬나요. 조목조목 다 계산에 넣었습니다요. 옥상 일한 품값은 지가 써비스로다가…….”

“써비스?”

그는 아연해서 임 씨의 말을 되받았다.

“그럼요. 저도 써비스할 때는 써비스도 하지요.”

그는 뭐라 대꾸할 말이 없었다.

임 씨는 아내가 내민 칠만 원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일층 현관까지 내려가 임 씨를 배웅하기로 했다. 그는 무슨 말로 이 사내를 배웅할 것인가를 궁리해 보았다. 수고했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이 사내의 그 ‘씨비스’에 대면 너무 초라하지 않을까.

(나) [앞부분 줄거리] 은행장 승진을 앞둔 톨발 헬멜과 그의 아내 노라는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 노라는 결혼 초기 중병에 걸린 남편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죽은 부친의 서명을 위조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최근까지 빚을 갚고 있지만 그 일로 협박받고 있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헬멜은 자신의 사회적 위신 때문에 그 일이 불거지지 않도록 노심초사하며 노라를 질책한다.

노라 저는 당신과는 아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법이란 제가 여태껏 생각했던 것과는 아주 다르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여자에게는 친정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쳐 드리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 남편의 목숨을 구할 권리가 없다니 말입니다.

헬멜 당신은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가 어떤 것인지 이해를 하고 있지 않은 거요.

노라 오늘 밤처럼 모든 일에 대해서 선명하고 확실하게 본 일이라고는 한 번도 없었는걸요.

헬멜 그럼 아주 맑디맑은 정신으로 당신은 남편과 자식을 버리는 거요?

노라 정말 저도 괴로워요. 왜냐하면 당신은 제가 항상 생각해 온 것과 같은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헬멜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구려. 설명을 해 주구려.

노라 저는 완전히 확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이 나타나서 모든 책임을 한 몸에 지게 되리라고. 책임은 모두 나에게 있소, 하고 말하리라고 굳게 믿었던 거예요.

헬멜 나는 당신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할 수가 있소. 하지만 비록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자기의 명예를 희생할 수 있는 남자는 없을 것이요.

노라 수많은 여인들은 희생을 해 왔어요. 하지만 당신은 제 자신이 일생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한 사나이답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제 자신을 위협하게 되었대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 위험에 빠지게 될까 봐 별별 떨었으면서도 위험이 이제 지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당신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태연해지신 거란 말이에요. 단지 저는 작은 종달새고 당신의 인형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깨달은 거예요. 지난 8년 동안 저는 낯선 사나이와 생활해 왔다는 것, 그리고 그의 자식을 셋이나 낳았다는 것. 아, 참을 수 없어요. 이 몸을 갈기갈기 찢어 버리고 싶군요.

헬멜 (슬픈 어조로) 그렇소. 나도 알았소. 알아들었다고. 우리들 사이에는 분명히 커다란 틈이 있소. 아, 그러나 노라, 그 틈은 메워질 수 없는 것일까?

노라 당신의 손에서 인형이 치워진다면요.

헬멜 하지만 노라, 당신을 잃게 되다니. 아니, 아니요, 나로선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노라 (모자를 쓴다.) 안녕, 톨발. 애들은 보지 않겠어요. 지금의 저로서는 애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헬멜 그러나 당신은 내 아내요. 지금도 앞으로도 어떻게 변하든 간에.

노라 잘 들으세요, 톨발. 제가 듣자 하니 아내가 남편의 집에서 떠나면 법에 의하여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일체의 의무에서 해방된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저는 당신을 자유의 몸이 되게 한 거예요. 제가 그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듯이 당신도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우리 두 사람은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되어야 해요. 자아, 여기 당신이 준 반지를 돌려드리겠어요. 제 것도 돌려주세요.

헬멜 여기 있소이다.

노라 이걸로 모두가 끝났군요. 여기 집 열쇠가 있어요. 내일 제가 떠나게 되면 크리스티네가 와서 제가 친정에서

가져왔던 물건들을 짐을 꾸릴 거예요. 나중에 저에게 보내 주세요.
헬멜 끝났다! 모두가 끝났어!

그녀는 현관으로 나간다. 아래쪽에서 문이 광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려온다.

- (다) [앞부분 줄거리] 육이오 전쟁으로 ‘나’의 외가 식구들이 친가 식구들과 같이 살고 있던 집으로 피란을 오면서 모두 함께 살게 된다. 그 뒤로 빨치산과 국군의 전투가 벌어지고 빨치산의 주검을 읍내에 벌여 두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식구들은 삼촌이 죽었을 것이라는 체념에 빠진다. 그러나 할머니는 점쟁이가 삼촌이 살아 돌아오는 날이라고 말해 준 그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식구들에게 밤새도록 등을 환하게 밝혀 놓으라고 한다.

할머니의 노여움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것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 시동생을 끝까지 돌봐 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면서 정성의 기미가 보일 때까지 광과 장롱의 열쇠를 당신이 직접 맡아 관리하겠다고 선언해 버렸다.

“경사시런 날, 아적부텀” 예펜네가 집 안에서 큰소리를 하면 될 일도 안 되는 뱀이니까 이만침 혀 두고 참는다만, 후사는 느털이 알아서들 혀라. 나는 손구락 한나 깐닥 앓고 뒷전에서 귀경만 혀고 있을란다.”

말을 마치고 돌아서면서 할머니는 거둬 혀를 찼다.

“큰자식이라고 있다는 것이 저 모양이니 원, 쫄쫄.”

마침내 진시였다. 꿈틀꿈틀 기어 오는 기다란 것이 거기에 있었다. 눈어림으로만도 사람 키보다 훨씬 큰 한 마리의 구렁이였다. 난데없는 구렁이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은 삼시에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다. 무엇보다 큰 걱정이 할머니의 졸도였다. 외할머니는 천천히 감나무 아래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자꾸 대가리를 숙여 꺼뜩꺼뜩 위협을 주는 커다란 구렁이를 보고도 외할머니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외할머니는 두 손을 천천히 가슴 앞으로 모아 합장했다.

“에구 이 사람아, 집안일이 못 잊어서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왔는가? 자꼬 이러면은 못쓰네, 못써. 자네 심정은 내 짐작을 허겼네만 집안 식구들 생각도 혀야지. 자네 노친 양반께서 자네가 이려고 있는 꼴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미여지겠는가?”

외할머니는 꼭 산 사람을 대하듯 조용조용히 말을 건네고 있었다. (중략)

졸도한 지 서너 시간 만에야 겨우 할머니는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다. 할머니가 까무러친 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고모가 조용히 설명해 주었다. 외할머니가 사람들을 내쫓고 감나무 밑에 가서 타이른 이야기,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워 감나무에서 내려오게 한 이야기, 대밭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시종일관 행동을 같이하면서 바래다준 이야기…….

안에 있는 아들보다 밖에 있는 아들을 언제나 더 생각했던 할머니는 마지막 날 밤에 다 타 버린 촛불이 스러지듯 그렇게 눈을 감았다. 할머니의 긴 일생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면,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리고도 놀라운 기력으로 며칠 동안이나 식구들을 돌봐야 대면서 삼촌을 기다리던 그 짝막한 기간이 사실은 꺼지기 직전에 마지막 한순간을 확 타고르는 촛불의 찬란함과 맞먹는, 할머니에겐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에 넘치던 시간이었었나 보다.

*아적부텀: ‘아침부터’의 방언.

- (라) [앞부분 줄거리] 희준은 5년간의 동경 유학 생활을 마치고 고향인 원터 마을로 돌아온다. 그 사이 마을 주위에는 철로가 놓이고 제사공장이 들어섰으나 원터 마을 사람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희준은 농민들의 단결을 위해 두레를 결성하는 데 앞장선다.

두레가 난 뒤로 마을 사람들의 기분은 통일되었다. 백룡이 모친과 쇠득이 모친도 두레 바람에 화해를 하게 되었다.

인동이와 막동이 사이도 웅매들이 풀어졌다.

백룡이네 눈을 매려 와서 두레는 한바탕 들판에서 놀고 저녁때의 쉼 참이 되었다. 술을 많이 먹으면 눈을 거칠게 맨다고 그들은 누구에게나 한 번에는 한 사발 이상을 더 먹이지 않았다.

“아니 희준이는 그러다가 농군이 되기 쉽겠네. 풍물 치는 것은 어디서 그렇게 배웠나.”

김 선달은 앞니 빠진 말상 같은 얼굴을 흔들며 허허 웃는다.

“글쎄 말이지. 눈두 매면 곧잘 매겠는데.”

“왜 농군이 되면 못쓰나요?”

희준이는 그들을 쳐다보며 따라 웃는다.

“자네 같은 사람이야 농군이 안 되더라도 잘살 수가 있을 터인데. 참 저 사람은 별일이여! 왜 월급 생활은 않는단나?”

하고 조 첨지는 참으로 의심스러운 듯이 희준이를 노려본다.

“월급 생활보다도, 이런 일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래도 무슨 주의가 다르기에 그렇지 않은가. 우리 같은 무지한 백성이야 여복해서 땅을 파먹느냐 싶은데? 원 참.”

희준이는 잠자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지금 이들에게 노동은 신성하다. 사람은 누구나 노동을 해서 먹고사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라고, 농사짓는 것과 석탄 캐는 것과 고기 잡는 것과 길쌈하는 것 같은 생산적 노동은 그것들이 우리 생활에 직접으로 필요한 것인 만큼 더욱 귀중한 일이라고 설명을 한댔자, 잘 알아듣지 못한다. 그들은 놀고서도 잘사는 사람을 부러워한다. 놀면서 잘사는 까닭이 웬일인지는 몰라도 사실이 그런 것만은 거짓말이 아니다.

저녁때였다. 한참을 다시 눈을 땔 무렵에 희준이도 호미를 들고 논 안으로 들어섰다. 처음에는 호미가 잘 돌아가지 않았다. 장잎은 좌우로 얼굴을 스쳐서 까딱하면 눈을 찌르기 쉬운데 등허리에서는 불뿔이 내리쬐인다. 발밑에는 뜨거운 물이 부글부글 끓는다. 숨이 콕콕 막히며 얼굴에서는 땀방울이 철철 흐른다. 내 살을 꼬집어서 남의 아픈 사정을 알렸다고 육체적 노동의 고통을 당하고 보니 놀고먹던 허물이 뉘우쳐진다. 이들의 피땀의 결정인 곡식을 거저 앉아 먹은 것이 황송하다.

그날 밤에 희준이는 밤새도록 허리를 끙끙 앓았다.

*여복하다: 정도가 매우 심하거나 상황이 좋지 않다.

(마) [앞부분 줄거리] 종술은 대처로 떠돌며 살다가 고향에 돌아와서 하는 일 없이 낚시나 하며 지내고 있었다. 그런 종술에게 최 사장이 이곡리 판금 저수지 양어장의 감시를 맡긴다.

“종술이 자네가 원한다면 하얀 완장에다가 빨간 글씨로 감시원이라고 크막히게 써서 멋들어지게 채워 줄 작정이네.”

고단했던 생애를 통하여 직접으로 간접으로 인연을 맺어 온 술한 완장들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종술의 뇌리를 스쳤다. 완장의 나라, 완장에 얽힌 무수한 사연들로 점철된 완장의 역사가 바야흐로 흔들리기 시작하는 종술의 가슴을 유혹하고 있었다. 어느 시기나 다 마찬가지로 돈을 벌어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의 노력 앞에는 언제나 완장들이 도사리고 있었던 셈이다. 제각각 색깔 다르고 글씨도 다른 그 술한 완장들에 그간 얼마나 많은 한을 품어 왔던가. 그리고 다른 한 편으로는 그 완장들을 얼마나 또 많이 선망해 왔던가. (중략)

“뿔이여야? 완장이여?”

“예, 여그 요쪽 왼팔에다 감시원 완장을 처억 허니 돌르고 순시를 돌기로 했구만요. 고냥 맨몸명의로 단속에 나서면 권위가 없어서 낚시꾼들이 시뻘* 보고 말을 잘 안 들어 먹으니까요.”

그제서야 종술은 자라 콧구멍을 벌름거리고 메기 주둥이를 히죽거리며 가며 구태여 자랑스러움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

너무도 놀란 나머지 운암택은 눈앞이 다 캄캄해 왔다.

“너 그것 안 돌르고 감시원 헐 수는 없겠냐?”

당치도 않은 말쑤이었다. 순전히 완장의 매력 한 가지에 이끌려 말기로 한 감시원이었다.

“에이 참, 엄니도! 엄니는 동네서 사람 대접 조개 받고 살라고 그러는 아들이 그렇게도 여영 못마땅하요?”

“돌아가신 낭반 생각이 나서 안 그러냐.”

아버지 말이 나오는 바람에 종술은 갑자기 말문이 막혔다.

운암택이 맨 처음 완장하고 맞닥뜨린 것은 왜정 말기의 남원에서였다. 일본군 헌병들이었다. 그들이 차고 다니는, 하얀 바탕에 빨간 글씨로 ‘憲兵(헌병)’이라고 적힌 완장이었다. 헌병대에서 고문을 받아 남편의 오른손은 불구가 되어 있었다. 해방을 맞아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는데도 운암택의 뇌리에서는 완장의 악몽이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곧바로 한 집안의 운명을 좌우할 새로운 불행이 될 것만 같았다.

*시뻘: 별로 대수롭지 않은 듯하게.

(바) 철문 도어가 열리며 교수 등장. 도어를 닫고 소파에 힘들게 앉는다. 중년에 딱 마른 얼굴, 이마에는 주름살이 가고 찌푸린 얼굴은 돌 모양 변화가 없다. 잠시 후 피곤하다는 듯 크게 기지개를 한다. ‘아아’ 하고 토하는 큰 하품은 두들겨 맞아 죽는 비명같이 비참하게 들린다. 처가 소리를 안 내고 들어와 잠자는 교수의 주머니를 살살이 켜. 돈 부스러기를 몇 장 찾아내고 그 액수가 적음에 실망을 한다. 잠시 후 교수를 흔들며 깨운다.

처 지금 하시는 번역은 언제 끝나요?

교수 지금 하는 번역이 몇 가지나 있지?

처 그러니까 밤낮 원고료를 팔리우지요. 『자존심의 문제』, 『예술에 있어서의 창조성』, 『어떤 여자의 고백』……. 이렇게 뿐인가요?

교수 그렇겠지. 아이, 피곤해.

처 어떤 것이건 빨리 끝내야지, 어떻게 해요. 집도 수리해야겠구, 축음기도 사야겠구, 또 이달에 아버지 생일도 있잖아요.

교수는 번역을 시작한다. 처는 교수 옆에 앉더니 큰 자루를 벌리고 교수를 주시한다.

처 빨리! 빨리!

이때 무대 전체가 어두워지고 스포트라이트가 교수만을 포착한다. 교수 전면에 또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투사되며 천사가 미소를 지으며 가벼운 발레를 추면서 들어온다.

교수 (한참 있다) 오라, 생각이 나는 것 같아. 그래 바로 그거.

천사 나를 완전히 잊은 줄 알았어요.

교수 (일어서며) 아직 잊지를 않았어. 나의 희망, 나의 정열의 옛 모습이야.

천사 쥐꼬리만 한 기억력이 아직 남아 있군요.

교수 당신은 왜 나를 버렸어요? 요즈음은 통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서서히 사라진다. 꿈을 잃은 교수는 맥없이 전면을 바라보며 앉아 있다. 어둠 속에서 창을 여는 소리가 나며, 감독관이 얼굴을 나타낸다.

감독관 (회초리를 흔들며) 원고! 원고는 언제 쓰는 거야?

이 소리에 교수는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다시 비참한 표정으로 번역을 계속한다.

- (사) 선굴자(蟬橘子)에게 예덕 선생이라 부르는 벗이 한 사람 있다. 그는 날마다 마을 안의 똥을 치는 일을 생업으로 삼고 지냈는데 마을 사람들은 모두들 그를 엄 행수라 불렀다. ‘행수’란 막일꾼 가운데 나이가 많은 사람에 대한 칭호요, ‘엄’은 그의 성(姓)이다.

자목(子牧)이 선굴자에게 따져 묻기를,

“저 엄 행수라는 자는 마을에서 가장 비천한 막일꾼으로서 열악한 곳에 살면서 남들이 치욕으로 여기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선생님께서는 자주 그의 덕(德)을 칭송하여 선생이라 부르는 동시에 장차 그와 교분을 맺고 벗하기를 청할 것같이 하시니 제자로서 심히 부끄럽습니다.”

하니, 선굴자는 웃으면서 대답하였다.

“저 엄 행수란 사람은 나에게 알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나는 항상 그를 예찬하고 싶어 했지. 모두 엄 씨의 똥을 가져다 써야 땅이 기름지게 되어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으며 그 수입이 1년에 6천 푼이나 된다는. 하지만 그는 아침에 밥 한 사발이면 흡족해하고 저녁이 되어서야 다시 한 사발을 먹을 뿐이지. 남들이 반반한 옷이나 좀 입으라고 권하였더니, 넓은 소매를 입으면 몸에 익숙하지 않고 새 옷을 입으면 흙을 짚어질 수 없다고 하더군. 엄 행수와 같은 이는 아마도 ‘덕을 더러움으로 감추고 세속에 숨어 사는 대은’이라 할 수 있겠지. 노력 없이 재물을 모으면 막대한 부를 축적하더라도 이름에서 썩는 냄새가 나게 될 걸세. 이상을 통해 나는 깨끗한 가운데서도 깨끗하지 않은 것이 있고, 더러운 가운데서도 더럽지 않은 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네. 곤궁하게 산다고 하여 얼굴에까지 그 티를 나타내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 출세했다 하여 몸짓에까지 그것을 나타내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니, 엄 행수와 비교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을 자는 거의 드물 걸세.”

*대은(大隱): 크게 깨달아 세속의 괴로움 없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산야에 묻혀 숨어 사는 사람을 이룸.

- (아) 문학을 함으로써 우리는 서유럽의 한 위대한 지성이 탄식했듯 배고픈 사람 하나 구하지 못하며, 물론 출세하지도, 큰돈을 벌지도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다. 인간에게 유용한 것은 대체로 그것이 유용하다는 것 때문에 인간을 억압한다. 그러나 문학은 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다. 인간은 문학을 통하여 억압하는 것과 억압당하는 것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 부정적 힘을 인지한다. 그 부정적 힘의 인식은 인간으로 하여금 세계를 개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당위성을 느끼게 한다. 한 편의 아름다운 시는 그것을 향유하는 자에게 그것을 향유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부끄러움을, 한 편의 침통한 시는 그것을 읽는 자에게 인간을 억압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자각을 불러일으킨다.

- (자) 구글이 알파고에 도입한 딥러닝은 기계학습의 한 종류이다. 알파고의 개발자인 데미스 하사비스 박사는 알파고를 개발하면서 프로 바둑 기사의 대국 기보 3,000만 건을 입력했다고 말했다. 이후 알파고는 입력된 기보를 바탕으로 쉬지 않고 바둑을 두며 학습했는데, 무려 1,000년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바둑을 학습한 수준이라고 한다. 알파고는 경험을 쌓아 스스로 학습하고 전략을 짜기 때문에 개발자들도 알파고가 어느 단계까지 진화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딥러닝 활용 분야는 자율 주행 자동차이다. 자율 주행 자동차는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와 같은 정해진 물음에 답할 뿐 아니라, 안전하거나 위험한 상황을 담은 동영상 정보를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해 자동차를 운행한다. 무엇이 더 중요한 정보인지 판단해 그것을 다음 연산에 반영하는 것이다. 참조할 자료가 많을수록 인공지능은 단련된다.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창의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한다.

- (차) 인간이 사회 구성원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술, 규범, 가치 등을 학습하는 과정을 사회화라고 한다. 사회화는 인간이 태어난 후 언어적 상호 작용이나 보상과 처벌의 경험, 모방이나 동일시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인은 사회화 과정을 거쳐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지니게 된다. 또한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사고방식과 태도, 욕구 충족 방식 등을 습득한다. 사회화는 평생에 걸쳐 일어나지만, 영·유아기에 이루어지는 사회화는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사회화는 개인이 자아 정체성과 인성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개인이 사회적 존재로 성장하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을 습득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청소년기와 성년기에 들어선 후 개인은 영·유아기에 익힌 사회화의 내용을 심화하거나 전문화하여 새로운 규범과 문화를 습득한다.

- (가) 헌법 제2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학문의 자유를 헌법에 근거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학문의 자유는 연구 대상의 선정, 연구 방법, 연구 내용, 연구 시기, 연구 장소 결정 등과 관련된 연구의 자유를 포괄하는 범주다. 학문의 자유에 대한 이 헌법 조항은 학문 활동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왜냐하면 학문 활동이란 기본적으로 인간 정신의 자유로운 추구를 기반으로 하므로 학문을 수행하는 개인의 인격적이고 자율적인 책임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학 연구의 자유는 무제한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가? 혹여 과학 연구로 말미암아 전에 없던 위험이 발생한다고 해도 과학의 진보를 위해서는 그 연구를 허용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현재 많은 법학자들은 연구의 자유는 민주 사회에서 충분히 보장받아야 하는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연구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보장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연구의 자유라는 가치는 다른 모든 가치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보장되어야 하는 절대적 가치는 아니라는 것이다. 즉 연구의 자유도 생명, 신체, 자기 결정권, 인간의 존엄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각각 임 씨, 노라, 할머니, 희준의 삶을 이끄는 ‘가치’를 그들의 ‘행위’를 통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타인의 반응’을 찾아 쓰시오. 그리고 임 씨, 노라, 할머니, 희준의 ‘삶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을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춘 ‘완성된 글’의 형식으로 작성할 필요 없음.

- [문제 2]** 제시문 (마)의 종술과 (바)의 교수가 보이는 ‘삶의 태도’의 차이를 비교하여 쓰고, 이들의 가족이 두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를 각각 쓰시오. 그리고 제시문 (사)를 바탕으로 종술이, 제시문 (아)를 바탕으로 교수가 추구해야 할 ‘삶의 자세’를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 [문제 3]** 제시문 (자)의 기계학습과 제시문 (차)의 사회화에 나타나는 학습 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고, 인공지능이 연구의 주체가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시문 (가)를 토대로 서술하시오. [20점, 330-350자]

1. 제시문 출전과 해설

- 제시문 (가) 양귀자,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류수열 외 7인, 『문학』, 금성출판사, 2019, 20-25쪽.
- 제시문 (나) 헨리크 입센, 「인형의 집」, 김동환 외 6인, 『문학』, 천재교과서, 2019, 104-109쪽.
- 제시문 (다) 윤홍길, 「장마」, 박영민 외 7인, 『국어』, 비상교육, 2018, 66-78쪽.
- 제시문 (라) 이기영, 「고향」, 김동환 외 6인, 『문학』, 천재교과서, 2019, 215-219쪽.
- 제시문 (마) 윤홍길, 「완장」, 김창원 외 11인, 『문학』, 동아출판, 2019, 119-122쪽. 윤홍길, 「완장」, 류수열 외 10인, 『국어』, 금성출판사, 2019, 354-360쪽.
- 제시문 (바) 이근삼, 「원고지」, 방민호 외 5인, 『문학』, 미래엔, 2019, 256-263쪽. 이근삼, 「원고지」, 정재찬 외 5인, 『문학』, 지학사, 2019, 274-279쪽.
- 제시문 (사) 박지원, 「예덕선생전」, 서혁 외 6인, 『독서』, 좋은책신사고, 2019, 162-166쪽.
- 제시문 (아) 김현,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성영 외 5인, 『국어』, 천재교육, 2018, 98-99쪽.
- 제시문 (자) 이종호, 「인공 지능의 미래, 딥 러닝」, 한철우 외 6인, 『독서』, 비상교육, 2019, 191-194쪽.
- 제시문 (차) 「사회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손영찬 외 4인, 『사회·문화』, 미래엔, 2018, 58-59쪽.
- 제시문 (카) 이영희,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규제」, 민현식 외 12인, 『국어』, 좋은책신사고, 2018, 43-47쪽.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문학』(금성출판사, 2019)에 실린 양귀자의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에서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수정·편집한 글이다. 이 작품은 ‘문학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단원 중 ‘사람의 도리에 관한 질문과 대답’ 영역에 수록되어 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진선미를 추구하는 문학의 본질적 기능으로서 인식적, 윤리적, 미적 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학을 감상하는 것이다.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는 집을 수리한 경험을 통해 타인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보여 주는 소설이다. 이 작품에서 발췌한 제시문 (가)에는 임 씨에 대한 불신이 오해였음을 깨닫게 되는 과정에서 부부가 느낀 감정 변화가 제시되어 있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문학』(천재교과서, 2019)에 실린 헨리크 입센의 「인형의 집」에서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수정·편집한 글이다. 이 작품은 ‘문학의 수용과 생산’ 단원 중 ‘문학의 수용과 소통’ 영역에 수록되어 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문학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익히고 활용하는 것이다. 「인형의 집」은 결혼 생활에서 비롯된 여성의 정체성 인식의 변화를 다룬 희곡이다. 이 작품에서 발췌한 제시문 (나)에는 노라가 차용증 사건을 둘러싼 남편과의 갈등을 계기로 세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가기로 결심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국어』(비상교육, 2018)에 실린 윤홍길의 「장마」에서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수정·편집한 글이다. 이 작품은 ‘문학의 네 가지 빛깔’ 단원 중 ‘서사 갈래’ 영역에 수록되어 있으며, 단원의 학습 목표는 문학의 갈래별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다. 「장마」는 화자가 어린 시절에 겪은 육이오 전쟁의 체험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서술한 소설이다. 이 작품에서 발췌한 제시문 (다)에는 자식을 전쟁터에 보낸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이념 대립의 현실에서도 자식 잃은 어머니로서 서로를 이해하며 공감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문학』(천재교과서, 2019)에 수록된 이기영의 「고향」에서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수정·편집한 글이다. 이 작품은 ‘한국 문학의 흐름’ 단원 중 ‘일제 강점기의 문학’에 수록되어 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한국 문학의 흐름을 파악하고 주제적인 관점으로 문학사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다. 「고향」은 일제 강점기 농촌 현실을 잘 보여 주고 있는 장편 소설이다. 이 작품에서 발췌한 제시문 (라)에는 주인공 김희준이 이념을 앞세우는 지식인의 전형에서 벗어나 농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농민과 호흡하며 두레를 결성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문학』(동아출판, 2019)과 고등학교 『국어』(금성출판사, 2018)에 실린 윤홍길의 「완장」의 지문을 출제 의도에 맞게 발췌하여 일부 편집한 글이다. 이 글은 각각 ‘II. 문학의 수용과 생산’ 단원 중 ‘3. 문학 지평의 확대’와 ‘9. 문학사의 지평에서’ 단원 중 ‘(3) 근현대의 한국 문화’에 실렸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문학과 인접 분야의 관계를 이해하고 문학이 다양한 매체로 실현되는 양상을 이해하는 것과 근현대 한국 문화의 전개 양상과 그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다. 1980년대에 발표된 「완장」은 ‘완장’이라는 소재를 통해 권력에 대한 과대한 집착과 허황한 의식을 비판한 장편 소설이다. 제시문 (마)에서 완장은 권력을 상징한다. 완장의 위력에 주눅 들어 살아온 종술에게 완장은 선망의 대상인 반면, 어머니 운암댁에게 완장은 두려움의 대상이다. 남편이 완장 찬 사람들에게 고초를 겪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행을 겪은 운암댁은 종술이 완장을 찾는 것을 우려한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문학』(미래엔, 2019)과 고등학교 『문학』(지학사, 2019)에 실린 이근삼의 「원고지」의 발췌문을 출제 의도에 맞게 발췌하여 일부 편집한 글이다. 각각 ‘4. 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 단원 중 ‘(4) 근현대 문학’과 ‘4. 한국 문학의 흐름’ 단원 중 ‘(3) 국 갈래의 흐름’에 수록되었다.

해당 작품은 무의미하고 부조리한 현대인의 생활상을 풍자한 희곡으로서, 물질문명 속에서 혼돈과 무기력함을 느끼는 교수와 그 가족들을 그렸다. 제시문 (바)에서는 꿈과 열정을 잃고 반복되는 번역 작업을 무기력하게 이어가는 교수와 그를 돈 벌어 오는 기계처럼 대하는 처의 모습이 중점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 『독서』(좋은책신사고, 2019) 교과서에 실린 박지원의 「예덕선생전」을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편집한 글이다. 'Ⅲ. 독서의 분야' 단원 중 '(4) 시대적 특성을 고려한 글 읽기'에 실렸으며,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시대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글쓰기 관습이나 독서 문화에 반영되어 있음을 이해하며, 글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대에서 생산된 가치 있는 글을 읽어 보는 것이다. 제시문 (사)에서 '선굴자'라는 호를 가진 조선 후기의 학자 이덕무는 제자 자목의 질문을 받고 마을 안의 뚝을 치는 일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엄 행수를 벗으로 삼아 '예덕 선생'이라 부르며 존중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아)는 고등학교 『국어』(천재교육, 2019) 교과서에 실린 김현의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출제 의도에 맞게 편집하여 발췌한 글이다. '2. 문학의 특성' 단원의 '(4) 고술'에 실렸으며, '글뚝뚝 발뚝뚝'으로서 글쓰이의 견해에 공감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대상으로 제시되었다. 물질적 이익을 주기 어려운 문학을 하는 것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서술하였다. 제시문 (아)를 통해서 인간이 문학을 통해 억압하는 것과 억압당하는 것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 부정적 힘을 인지함으로써 세계를 개조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느끼게 됨을 이해할 수 있다.

제시문 (자)는 고등학교 『독서』(비상교육, 2019) 교과서에 실린 「인공 지능의 미래, 딥 러닝」을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편집·수정한 글이다. 해당 지문은 기술 분야의 글 읽기 단원에 수록되어 있으며,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글에 담긴 과학적 원리의 응용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읽는 것이다. 제시문 (자)에는 인공지능 기계학습의 원리를 알파고와 자율 주행 자동차를 예시로 활용하여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시문 (차)는 고등학교 『사회·문화』(미래엔, 2018) 교과서의 「사회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단원에서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편집·수정한 글이다. 해당 단원의 학습 목표는 사회화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고, 사회화 기관의 유형과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다. 제시문 (차)에는 사회화의 의미, 기능,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시문 (카)는 고등학교 『국어』(좋은책신사고, 2018) 교과서의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규제」를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편집한 글이다. 해당 지문은 쓰기과 읽기로 만나는 세상 단원에 수록되어 있다. 제시문 (카)는 헌법상 보장된 학문의 자유가 지니는 가치를 설명함과 동시에, 그것이 인간의 존엄이나 생명과 같은 가치를 침해할 수 있는 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2. 예시 답안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각각 임 씨, 노라, 할머니, 희준의 삶을 이끄는 '가치'를 그들의 '행위'를 통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타인의 반응'을 찾아 쓰시오. 그리고 임 씨, 노라, 할머니, 희준의 '삶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을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춘 '완성된 글'의 형식으로 작성할 필요 없음.

(가)의 임 씨의 삶을 이끄는 가치는 성실함과 정직함이다. 이는 그가 꼼꼼하게 공사를 마친 후 수리비를 명세서보다 적게 받는 행위로 나타난다. 부부는 임 씨의 행동을 보고 자신들의 의심과 아박함에 부끄러움과 미안함을 느낀다. (나)의 노라는 주체적인 삶과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추구한다. 노라는 남편의 위선적 태도를 알게 된 후 크게 실망하여 남편을 비판하고 집을 떠난다. 헬멜은 노라를 설득하려 하지만 체념하고 만다. (다)에서 할머니를 이끄는 삶의 가치는 아들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과 사랑이다. 할머니는 가족들을 닦달하며 삼촌을 기다리던 끝에 구령이가 나타나자 졸도한다. 외할머니는 할머니에게 공감하고 구령이를 삼촌으로 생각하여 정성스레 대한다. (라)의 희준은 노동의 진정성과 공동체 정신을 추구한다. 이는 희준이가 두레를 결성해 마을 사람들을 화합하고, 농사일에 직접 참여하며 농군으로 사는 행위로 나타난다. 마을 사람들은 희준을 마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그의 선택에 의아해한다. 결론적으로 네 사람은 확고한 자신의 믿음에 따라 삶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며 타인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는 삶의 태도를 보인다. [570자]

[문제 2] 제시문 (마)의 종술과 (바)의 교수가 보이는 '삶의 태도'의 차이를 비교하여 쓰고, 이들의 가족이 두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를 각각 쓰시오. 그리고 제시문 (사)를 바탕으로 종술이, 제시문 (아)를 바탕으로 교수가 추구해야 할 '삶의 자세'를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제시문 (마)의 종술은 일 자체의 본질적 의미에는 무관심한 채 완장을 통해 겉으로 드러나는 권위에 기대어 스스로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기과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제시문 (바)의 교수는 자신의 일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수동적이며 무기력한 태도로 일관한다. 제시문 (마)의 어머니는 종술이 완장을 차고 일하는 것을 우려하여 만류한다. 이는 완장이 과거에 남편에게 가해진 무자비한 폭력을 떠올리게 하여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제시문 (바)의 처는 교수가 벌어오는 돈에 집착하며 이를 독촉하는 억압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는 오로지 생계 유지를 위한 금전적 이익에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종술은 천하게 여겨지는 일을 하면서도 타인의 시선을 신경쓰지 않고 공동체적 관점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묵묵히 해내는 제시문 (사)의 엄 행수의 자세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교수는 제시문 (아)의 주장과 같이 현실적으로 유용한 것이 오히려 자신을 억압할 수 있음을 깨닫고, 유용하지 않더라도 잃어버린 꿈과 열정을 되살림으로써 자신을 둘러싼 억압의 부정적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이다. [561자]

[문제 3] 제시문 (자)의 기계학습과 제시문 (차)의 사회화에 나타나는 학습 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고, 인공지능이 연구의 주체가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시문 (카)를 토대로 서술하시오. [20점, 330~350자]

(자)의 기계학습과 (차)의 사회화는 경험과 지식의 누적을 통해 진화하는 지속적 학습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학습의 결과가 다음 단계의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그러나 기계학습은 초기에 입력된 자료를 바탕으로 스스로 학습하고 적용하는 방식인 반면, 사회화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차이가 있다. 한편 인공지능은 (카)에서 말하는 연구 주체로서의 인격적이고 자율적인 책임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이는 연구 결과에 대한 윤리적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며, 생명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결과에 대해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342자]

3. 채점 기준

[문제 1]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 (-5점)

- 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 ②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③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각각 임 씨, 노라, 할머니, 희준의 삶을 이끄는 ‘가치’를 그들의 ‘행위’를 통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타인의 반응’을 찾아 쓰시오. (36점)

(가) 가치: 성실함과 정직함. (3점)

행위: 견적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행위. (3점)

타인의 반응: 부부는 임 씨의 행동을 보고 자신들의 의심과 야박함에 부끄러움과 미안함을 느낌. (3점)

(나) 가치: 주체적인 삶과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3점)

행위: 남편의 위선적 태도를 알게 된 후 크게 실망하여 남편을 비판하고 집을 떠남. (3점)

타인의 반응: 노라를 설득하려 하지만 체념함. (3점)

(다) 가치: 아들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과 사랑. (3점)

행위: 가족들을 뒤통하며 삼촌을 기다리던 끝에 구령이가 나타나자 줄도함. (3점)

타인의 반응: 할머니에게 공감하고 구령이를 삼촌으로 생각하여 정성스레 대함. (3점)

(라) 가치: 노동의 진정성과 공동체 정신. (3점)

행위: 희준이는 두레를 결성해 마을 사람들을 화합하고, 농사일에 직접 참여하며 농군으로 살기로 함. (3점)

타인의 반응: 마을 사람들은 희준을 마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그의 선택에 의아해함. (3점)

2) 임 씨, 노라, 할머니, 희준의 '삶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을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4점)

- ① 네 인물의 '삶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을 하나로 찾아 제시 (2점)
- ② 한두 문장의 간략한 결론으로 잘 도출하여 요약했는지 여부 (2점)

*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춘 '완성된 글'의 형식으로 작성할 필요 없으나 서론을 작성하더라도 감점하지 않는다.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1]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등장인물이 삶을 이끄는 '가치'를 그들의 '행위'를 통해 설명하고 '타인의 반응'을 찾아 제시 (36점)	1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4~9점
		2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10~18점
		3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19~27점
		4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28~36점
	② 공통점을 하나로 찾아 간략히 제시 (4점)	공통점을 하나로 찾아 제시한 경우	1~2점
		한 두 문장의 간략한 결론으로 잘 도출하여 요약했는지 여부	1~2점

[문제 2]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 (-5점)

- 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 ②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 ③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1) 제시문 (마)의 종술과 (바)의 교수가 보이는 '삶의 태도'의 차이를 비교하여 쓰시오. (12점)

- ① (마)의 종술이 보이는 '삶의 태도'를 파악. 겉으로 드러나는 권위에 기대어 스스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기과시적 태도를 파악하여 기술. (5점)
- ② (바)의 교수가 보이는 '삶의 태도'를 파악. 수동적인 태도로 무기력하게 일하고 있음을 파악하여 기술. (5점)
- ③ (마)의 종술과 (바)의 교수가 각각 자신이 하게 될 혹은 하고 있는 일의 의미에 관련하여 가지는 태도의 차이를 본질적 의미에 대한 무관심과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함으로 비교하여 언급. (2점)

2) 제시문 (마)의 종술과 (바)의 교수를 대하는 가족의 태도와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를 각각 쓰시오. (12점)

- ① (마)의 어머니가 종술을, (바)의 처가 교수를 대하는 태도를 기술. (마)에서 완장을 차고 일하는 것을 우려하여 만류한다는 내용을 찾아냄. (3점)
(바)에서 교수가 벌어오는 돈에 집착하며, 이를 독촉하는 억압적인 태도를 찾아냄. (3점)
- ② (마)의 어머니가 종술을, (바)의 처가 교수를 대하는 태도의 원인을 파악. (마)에서 완장이 남편에게 가해진 무자비한 폭력을 떠올리게 하여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임을 서술. (3점) (바)에서 생계 유지를 위한 금전적 이익에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임을 서술. (3점)

3) 제시문 (사)를 토대로 종술이, 제시문 (아)를 토대로 교수가 추구해야 할 '삶의 자세'를 논술하시오. (16점)

- ① (사)에 나타난 (마)의 종술이 본받을 만한 '삶의 자세'를 파악. (사)의 엄 행수가 천하게 여겨지는 일을 하면서도 신경 쓰지 않음을 언급함. (4점)
공동체적 관점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묵묵히 해내고 있음을 언급함. (4점)

- ② (아)에서 제시한 문학의 의미를 (바)의 교수가 일에서 찾아야 할 의미에 적용. 금전적 이익과 같은 현실적 유용성이 오히려 자신을 억압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함을 서술함. (4점) 잃어버린 꿈과 열정을 되살림으로써 자신을 둘러싼 억압의 부정적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야 함을 서술함. (4점)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2]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제시문 (마)의 종술과 (바)의 교수가 보이는 '삶의 태도'의 차이를 비교하여 서술하였는지 평가	제시문 (마)와 (바)에 나타난 '삶의 태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비교도 적절히 하지 못한 경우	1~4점
		제시문 (마)와 (바)에 나타난 '삶의 태도'는 파악하였으나, 비교의 초점을 찾지 못한 경우	5~8점
		제시문 (마)와 (바)에 나타난 '삶의 태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비교의 초점을 찾아 적절히 제시한 경우	9~12점
	② 제시문 (마)의 종술과 (바)의 교수를 대하는 가족의 태도를 기술하고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를 찾아서 서술했는지 평가 (12점): 1~12점 부여	(마)의 어머니가 종술을 대하는 태도와 원인, (바)의 처가 교수를 대하는 태도와 원인 중 3가지 이상의 서술이 부적절한 경우	1~3점
		(마)의 어머니가 종술을 대하는 태도와 원인, (바)의 처가 교수를 대하는 태도와 원인 중 2가지의 서술이 부적절한 경우	4~6점
		(마)의 어머니가 종술을 대하는 태도와 원인, (바)의 처가 교수를 대하는 태도와 원인 중 1가지의 서술이 부적절한 경우	7~8점
		(마)의 어머니가 종술을 대하는 태도와 원인, (바)의 처가 교수를 대하는 태도와 원인을 모두 찾아 서술한 경우	10~12점
	③ 제시문 (사)와 (아)에 제시된 '삶의 자세'를 잘 파악하여, 각각 (마)의 종술과 (바)의 교수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적용하였는지 평가 (16점): (1~16점) 부여	제시문 (사)와 (아)에 제시된 '삶의 자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마)의 종술과 (바)의 교수의 상황에 맞추어 적절히 적용되지 않은 경우	1~4점
		제시문 (사)와 (아)에 제시된 '삶의 자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으나, (마)의 종술과 (바)의 교수의 상황에 맞추어 적절히 적용되지 않은 경우	5~8점
		제시문 (사)와 (아)에 제시된 '삶의 자세'를 각각 (마)의 종술과 (바)의 교수의 상황에 맞추어 적절히 적용한 경우	10~16점

[문제 3] 2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 (-5점)

- 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330~35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 ②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③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 (20점)

1) 제시문 (자)의 기계학습과 제시문 (차)의 사회화에 나타나는 학습 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였는지 평가한다. (12점)

- ① 기계학습과 사회화의 공통점을 파악하여 이를 명확하게 기술할 수 있어야 함. 경험과 지식의 누적, 진화하는 지속적 학습, 학습 결과가 다음 단계의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중심으로 공통점을 서술해야 함. (6점)

- ② 기계학습과 사회화의 차이점을 파악하여 이를 명확하게 기술할 수 있어야 함. 기계학습은 초기에 입력된 자료를 바탕으로 스스로 학습하고 적용하는 방식인 반면, 사회화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전개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차이점을 서술해야 함. (6점)

- 기계학습과 사회화를 비교하여 학습 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핵심 내용을 모두 설명한 경우, 12점 부여
- 기계학습과 사회화를 비교하여 학습 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내용을 서술했으나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9점 부여
- 기계학습과 사회화를 비교하여 학습 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 중 어느 하나만 서술했을 경우, 6점 부여

2) 인공지능이 연구의 주체가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시문 (가)를 토대로 서술하였는지 평가한다. (8점)

- ① 인공지능은 (가)에서 말하는 연구 주체로서의 인격적이고 자율적인 책임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서술해야 함.
- ② 인공지능이 수행한 연구의 결과는 윤리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생명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결과에 대해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서술해야 함.

-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인격적이고 자율적인 책임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연구 결과에 대한 윤리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 결과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핵심적 내용들을 모두 서술했을 경우, 6~8점.
-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연구의 주체가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서술하였으나, 제시문에서 파악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3~5점 부여함.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 최대 3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3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3]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20점)	① 제시문 (자)의 기계학습과 제시문 (차)의 사회화에 나타나는 학습 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였는지 평가함: 3~12점 부여	공통점과 차이점 중 어느 하나만 서술했을 경우	3~6점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내용을 서술했으나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7~9점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핵심 내용을 모두 설명한 경우	10~12점
	② 인공지능이 연구의 주체가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서술하였는지 평가함: 3~8점 부여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서술하였으나, 제시문에서 파악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3~5점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은 인격적이고 자율적인 책임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연구 결과에 대한 윤리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 결과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핵심적 내용들을 모두 서술했을 경우	6~8점

2027학년도 모의논술 문제(일반형) 경영경제계열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앞부분 줄거리] ‘그’의 가족은 목욕탕 배수관에 문제가 생겨 수리를 하게 된다. 임 씨는 원래 연탄장수지만 요즘에는 이런 일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이다. 공사를 하는 동안 부부는 그에게 불신과 경멸의 시선을 보낸다. 예상과 달리 임 씨는 간단하고도 깔끔하게 공사를 마치는데, 아내는 계약대로 돈을 주기 아까운 생각에 옥상 수리를 부탁한다.

간단하게 여겼던 옥상의 공사는 의외로 시간을 끌었다. 임 씨는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러고도 모자라 이왕 덮어 놓은 곳을 으깨어 버리고 또 새로 흙손질을 거듭하곤 했다. 처음에는 이 사내가 견적대로의 돈을 다 받기가 민망하여 지어내는 열정이라고 여겼었다. 아내도 그런 뜻을 표했다.

“예상외로 옥상 일이 힘든가 보죠? 저 사람도 세상에 공돈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하지만 당한 쪽은 되레 그들이었다. 밤 여덟 시가 지나도록 잡역부 노릇에 시달린 그도 고생이었고, 부러 만들어 시킨 일로 심적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그의 아내 역시 안절부절못했으니까.

“시간이 벌써 이리 되었나요? 우리 사모님 오늘 너무 늦게까지 이거 고생이 많으십니다요.” (중략)

“돈 드려야지요. 그런데…….”

아내는 뒷말을 못 잇고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옥상 일까지 시켜놓고 돈을 다 내주기가 아깝다는 뜻이었다. 그때 임 씨가 먼저 손을 휘휘 내젓고 나쳤다.

“사모님, 내 뽀아 드린 견적서 좀 쥐 보세요. 돈이 좀 틀려질 겁니다.”

아내가 손에 쥐고 있던 견적서를 내밀었다. 그것을 임 씨가 한참씩이나 들여다보았다. 그와 그의 아내는 임 씨의 입에서 나올 말에 주목하여 잠깐 긴장하였다.

“사장님. 처음엔 전체를 뜯을 작정으로 견적을 뽑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이 썩 간단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임에서 사만 원이 빠지고 시멘트도 이게 다 안 들었고, 모래도 그렇고, 예, 쓰레기 치울 용달차도 빠지게 되죠. 방수액도 타일도 반도 못 썼으니 여기서도 요게 빠지고 또…….”

임 씨가 조목조목 남는 것들을 설명해 갔지만 그의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어깨의 빠근함과 함께 그를 짓누르고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해서 모두 칠만 원이면 되겠습니까요.”

“칠만 원요? 그럼 옥상은…….”

“옥상에 들어간 재료비도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거야 뭐 몇 푼 되나요.”

“그럼 우리가 너무 미안해서…….”

아내가 이번에는 호소하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할 수 없이 그가 끼어들었다.

“계산을 다시 해 봐요. 처음에는 십팔만 원이라고 했지 않소?”

“이거 돈을 더 내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에이, 사장님도. 제가 어디 공일 해줬나요. 조목조목 다 계산에 넣었습니다요. 옥상 일한 품값은 지가 써비스로다가…….”

“써비스?”

그는 아연해서 임 씨의 말을 되받았다.

“그럼요. 저도 써비스할 때는 써비스도 하지요.”

그는 뭐라 대꾸할 말이 없었다.

임 씨는 아내가 내민 칠만 원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일층 현관까지 내려가 임 씨를 배웅하기로 했다. 그는 무슨 말로 이 사내를 배웅할 것인가를 궁리해 보았다. 수고했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이 사내의 그 ‘서비스’에 대면 너무 초라하지 않을까.

(나) [앞부분 줄거리] 은행장 승진을 앞둔 톨발 헬멜과 그의 아내 노라는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 노라는 결혼 초기 중병에 걸린 남편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죽은 부친의 서명을 위조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최근까지 빚을 갚고 있지만 그 일로 협박받고 있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헬멜은 자신의 사회적 위신 때문에 그 일이 불거지지 않도록 노심초사하며 노라를 질책한다.

노라 저는 당신과는 아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법이란 제가 여태껏 생각했던 것과는 아주 다르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여자에게는 친정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쳐 드리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 남편의 목숨을 구할 권리가 없다니 말입니다.

헬멜 당신은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가 어떤 것인지 이해를 하고 있지 않은 거요.

노라 오늘 밤처럼 모든 일에 대해서 선명하고 확실하게 본 일이라고는 한 번도 없었는걸요.

헬멜 그럼 아주 맑디맑은 정신으로 당신은 남편과 자식을 버리는 거요?

노라 정말 저도 괴로워요. 왜냐하면 당신은 제가 항상 생각해 온 것과 같은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헬멜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구려. 설명을 해 주구려.

노라 저는 완전히 확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이 나타나서 모든 책임을 한 몸에 지게 되리라고. 책임은 모두 나에게 있소, 하고 말하리라고 굳게 믿었던 거예요.

헬멜 나는 당신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할 수가 있소. 하지만 비록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자기의 명예를 희생할 수 있는 남자는 없을 것이요.

노라 수많은 여인들은 희생을 해 왔어요. 하지만 당신은 제 자신이 일생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한 사나이답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제 자신을 위협하게 되었대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 위험에 빠지게 될까 봐 별별 떨었으면서도 위험이 이제 지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당신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태연해지신 거란 말이에요. 단지 저는 작은 종달새고 당신의 인형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깨달은 거예요. 지난 8년 동안 저는 낯선 사나이와 생활해 왔다는 것, 그리고 그의 자식을 셋이나 낳았다는 것. 아, 참을 수 없어요. 이 몸을 갈기갈기 찢어 버리고 싶군요.

헬멜 (슬픈 어조로) 그렇소. 나도 알았소. 알아들었다고. 우리들 사이에는 분명히 커다란 틈이 있소. 아, 그러나 노라, 그 틈은 메워질 수 없는 것일까?

노라 당신의 손에서 인형이 치워진다면요.

헬멜 하지만 노라, 당신을 잃게 되다니. 아니, 아니요, 나로선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요.

노라 (모자를 쓴다.) 안녕, 톨발. 애들은 보지 않겠어요. 지금의 저로서는 애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헬멜 그러나 당신은 내 아내요. 지금도 앞으로도 어떻게 변하든 간에.

노라 잘 들으세요, 톨발. 제가 듣자 하니 아내가 남편의 집에서 떠나면 법에 의하여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일체의 의무에서 해방된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저는 당신을 자유의 몸이 되게 한 거예요. 제가 그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듯이 당신도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우리 두 사람은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되어야 해요. 자아, 여기 당신이 준 반지를 돌려드리겠어요. 제 것도 돌려주세요.

헬멜 여기 있소이다.

노라 이걸로 모두가 끝났군요. 여기 집 열쇠가 있어요. 내일 제가 떠나게 되면 크리스티네가 와서 제가 친정에서 가져왔던 물건들을 짐을 꾸릴 거예요. 나중에 저에게 보내 주세요.

헬멜 끝났다! 모두가 끝났어!

그녀는 현관으로 나간다. 아래쪽에서 문이 쿵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려온다.

(다) [앞부분 줄거리] 육이오 전쟁으로 ‘나’의 외가 식구들이 친가 식구들과 같이 살고 있던 집으로 피란을 오면서 모두 함께 살게 된다. 그 뒤로 빨치산과 국군의 전투가 벌어지고 빨치산의 주검을 읍내에 벌여 두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식구들은 삼촌이 죽었을 것이라는 체념에 빠진다. 그러나 할머니는 점쟁이가 삼촌이 살아 돌아오는 날이라고 말해 준 그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식구들에게 밤새도록 등을 환하게 밝혀 놓으라고 한다.

할머니의 노여움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것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 시동생을 끝까지 돌봐 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면서 정성의 기미가 보일 때까지 광과 장롱의 열쇠를 당신이 직접 맡아 관리하겠다고 선언해 버렸다.

“경사시런 날, 아적부텀” 예펜네가 집 안에서 큰소리를 하면 될 일도 안 되는 뽀이니께 이만침 혀 두고 참는다만, 후사는 느털이 알아서들 혀라. 나는 손구락 한나 깐닥 앓고 뒷전에서 귀경만 혀고 있을란다.”

말을 마치고 돌아서면서 할머니는 거들 혀를 찼다.

“큰자석이라고 있다는 것이 저 모양이니 원, 쫓쫓.”

마침내 진시였다. 꿈틀꿈틀 기어 오는 기다란 것이 거기에 있었다. 눈어림으로만도 사람 키보다 훨씬 큰 한 마리의 구렁이였다. 난데없는 구렁이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은 삽시에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다. 무엇보다 큰 걱정이 할머니의 졸도였다. 외할머니는 천천히 감나무 아래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자꾸 대가리를 숙여 껌꺼뻌 위험을 주는 커다란 구렁이를 보고도 외할머니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외할머니는 두 손을 천천히 가슴 앞으로 모아 합장했다.

“예구 이 사람아, 집안일이 못 잊어서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왔는가? 자꼬 이러면은 못쓰네, 못써. 자네 심정은 내 짐작을 혀졌네만 집안 식구덜 생각도 혀야지. 자네 노친 양반께서 자네가 이려고 있는 꼴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미여지겠는가?”

외할머니는 꼭 산 사람을 대하듯 조용조용히 말을 건네고 있었다. (중략)

졸도한 지 서너 시간 만에야 겨우 할머니는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다. 할머니가 까무러친 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고모가 조용히 설명해 주었다. 외할머니가 사람들을 내쫓고 감나무 밑에 가서 타이른 이야기,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워 감나무에서 내려오게 한 이야기, 대밭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시종일관 행동을 같이하면서 바래다준 이야기…….

안에 있는 아들보다 밖에 있는 아들을 언제나 더 생각했던 할머니는 마지막 날 밤에 다 타 버린 촛불이 스러지듯 그렇게 눈을 감았다. 할머니의 긴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면,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러고도 놀라운 기력으로 며칠 동안이나 식구들을 돌봐 대면서 삼촌을 기다리던 그 짝막한 기간이 사실은 꺼지기 직전에 마지막 한순간을 확 타오르는 촛불의 찬란함과 맞먹는, 할머니에겐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에 넘치던 시간이었었나 보다.

*아적부텀: ‘아침부터’의 방언.

(라) [앞부분 줄거리] 희준은 5년간의 동경 유학 생활을 마치고 고향인 원터 마을로 돌아온다. 그 사이 마을 주위에는 철로가 놓이고 제사공장이 들어섰으나 원터 마을 사람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희준은 농민들의 단결을 위해 두레를 결성하는 데 앞장선다.

두레가 난 뒤로 마을 사람들의 기분은 통일되었다. 백룡이 모친과 쇠득이 모친도 두레 바람에 화해를 하게 되었다. 인동이와 막동이 사이도 웅매들이 풀어졌다.

백룡이네 눈을 매려 와서 두레는 한바탕 들판에서 놀고 저녁때의 쉴 참이 되었다. 술을 많이 먹으면 눈을 거칠게 맨다고 그들은 누구에게나 한 번에는 한 사발 이상을 더 먹이지 않았다.

“아니 희준이는 그러다가 농군이 되기 쉽겠네. 풍물 치는 것은 어디서 그렇게 배웠나.”

김 선달은 앞니 빠진 말상 같은 얼굴을 흔들며 허허 웃는다.

“글쎄 말이지. 눈두 매면 곧잘 매겠는데.”

“왜 농군이 되면 못쓰나요?”

희준이는 그들을 쳐다보며 따라 웃는다.

“자네 같은 사람이야 농군이 안 되더라도 잘살 수가 있을 터인데. 참 저 사람은 별일이여! 왜 월급 생활은 않는다나?”

하고 조 침지는 참으로 의심스러운 듯이 희준이를 노려본다.

“월급 생활보다도, 이런 일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래도 무슨 주의가 다르기에 그렇지 않은가. 우리 같은 무지한 백성이야 여복해서* 땅을 파먹느냐 싶은데? 원 참.”

희준이는 잠자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지금 이들에게 노동은 신성하다. 사람은 누구나 노동을 해서 먹고사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라고, 농사짓는 것과 석탄 캐는 것과 고기 잡는 것과 길쌈하는 것 같은 생산적 노동은 그것들이 우리 생활에 직접으로 필요한 것인 만큼 더욱 귀중한 일이라고 설명을 한댔자, 잘 알아듣지 못한다. 그들은 높고서도 잘사는 사람을 부러워한다. 놀면서 잘사는 까닭이 웬일인지는 몰라도 사실이 그런 것만은 거짓말이 아니다.

저녁때였다. 한참을 다시 눈을 땔 무렵에 희준이도 호미를 들고 논 안으로 들어섰다. 처음에는 호미가 잘 돌아가지 않았다. 장잎은 좌우로 얼굴을 스쳐서 까딱하면 눈을 찌르기 쉬운데 등허리에서는 불별이 내리쬐인다. 발밑에는 뜨거운 물이 부글부글 끓는다. 숨이 콕콕 막히며 얼굴에서는 땀방울이 철철 흐른다. 내 살을 꼬집어서 남의 아픈 사정을 알렸다고 육체적 노동의 고통을 당하고 보니 높고먹던 허물이 뉘우쳐진다. 이들의 피땀의 결정인 곡식을 거저 앉아 먹은 것이 황송하다.

그날 밤에 희준이는 밤새도록 허리를 끔끔 앓았다.

*여복하다: 정도가 매우 심하거나 상황이 좋지 않다.

(마) [앞부분 줄거리] 종술은 대처로 떠돌며 살다가 고향에 돌아와서 하는 일 없이 낚시나 하며 지내고 있었다. 그런 종술에게 최 사장이 이곡리 판금 저수지 양어장의 감시를 맡긴다.

“종술이 자네가 원한다면 하얀 완장에다가 빨진 글씨로 감시원이라고 크막하게 써서 멋들어지게 채워 줄 작정이네.”

고단했던 생애를 통하여 직접으로 간접으로 인연을 맺어 온 술한 완장들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종술의 뇌리를 스쳤다. 완장의 나라, 완장에 얹힌 무수한 사연들로 점철된 완장의 역사가 바야흐로 흔들리기 시작하는 종술의 가슴을 유혹하고 있었다. 어느 시기나 다 마찬가지로 돈을 벌어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의 노력 앞에는 언제나 완장들이 도사리고 있었던 셈이다. 제각각 색깔 다르고 글씨도 다른 그 술한 완장들에 그간 얼마나 많은 한을 품어 왔던가. 그리고 다른 한 편으로는 그 완장들을 얼마나 또 많이 선망해 왔던가. (중략)

“뭇이여야? 완장이여?”

“예, 여그 요짜 왼팔에다 감시원 완장을 처억 허니 돌르고 순시를 돌기로 했구만요. 고냥 맨몸뎅이로 단속에 나서면 권위가 없어서 낚시꾼들이 시뻘* 보고 말을 잘 안 들어 먹으니까요.”

그제서야 종술은 자라 콧구멍을 벌름거리고 메기 주둥이를 히죽거리 가며 구태여 자랑스러움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

너무도 놀란 나머지 운암택은 눈앞이 다 캄캄해 왔다.

“너 그것 안 돌르고 감시원 혈 수는 없겠냐?”

당치도 않은 말쑤이었다. 순전히 완장의 매력 한 가지에 이끌려 맡기로 한 감시원이었다.

“에이 참, 엄니도! 엄니는 동네서 사람 대접 조개 받고 살라고 그러는 아들이 그렇게도 여영 못마땅허요?”

“돌아가신 낭반 생각이 나서 안 그러냐.”

아버지 말이 나오는 바람에 종술은 갑자기 말문이 막혔다.

운암택이 맨 처음 완장하고 맞닥뜨린 것은 왜정 말기의 남원에서였다. 일본군 헌병들이었다. 그들이 차고 다니는, 하얀 바탕에 빨간 글씨로 ‘憲兵(헌병)’이라고 적힌 완장이었다. 헌병대에서 고문을 받아 남편의 오른손은 불구가 되어 있었다. 해방을 맞아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는데도 운암택의 뇌리에서는 완장의 악몽이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곧바로 한 집안의 운명을 좌우할 새로운 불행이 될 것만 같았다.

*시뻘: 별로 대수롭지 않은 듯하게.

(바) 철문 도어가 열리며 교수 등장. 도어를 닫고 소파에 힘들게 앉는다. 중년에 찍 마른 얼굴, 이마에는 주름살이 가고 찌푸린 얼굴은 돌 모양 변화가 없다. 잠시 후 피곤하다는 듯 크게 기지개를 한다. ‘아아’ 하고 토하는 큰 하품은 두들겨 맞아 죽는 비명같이 비참하게 들린다. 처가 소리를 안 내고 들어와 잠자는 교수의 주머니를 살살이 툄다. 돈 부스러기를 몇 장 찾아내고 그 액수가 적음에 실망을 한다. 잠시 후 교수를 흔들며 깨운다.

처 지금 하시는 번역은 언제 끝나요?

교수 지금 하는 번역이 몇 가지나 있지?

처 그러니까 밤낮 원고료를 잘리우지요. 『자존심의 문제』, 『예술에 있어서의 창조성』, 『어떤 여자의 고백』……. 이렇게 뿐인가요?

교수 그렇겠지. 아이, 피곤해.

처 어떤 것이건 빨리 끝내야지, 어떻게 해요. 집도 수리해야겠구, 축음기도 사야겠구, 또 이달에 아버지 생일도 있잖아요.

교수는 번역을 시작한다. 처는 교수 옆에 앉더니 큰 자루를 벌리고 교수를 주시한다.

처 빨리! 빨리!

이때 무대 전체가 어두워지고 스포트라이트가 교수만을 포착한다. 교수 전면에도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투사되며 천사가 미소를 지으며 가벼운 발레를 추면서 들어온다.

교수 (한참 있다) 오라, 생각이 나는 것 같아. 그래 바로 그거.

천사 나를 완전히 잊은 줄 알았어요.

교수 (일어서며) 아직 잊지를 않았어. 나의 희망, 나의 정열의 옛 모습이야.

천사 쥐꼬리만 한 기억력이 아직 남아 있군요.

교수 당신은 왜 나를 버렸어요? 요즈음은 통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서서히 사라진다. 꿈을 잃은 교수는 맥없이 전면을 바라보며 앉아 있다. 어둠 속에서 창을 여는 소리가 나며, 감독관이 얼굴을 나타낸다.

감독관 (회초리를 흔들며) 원고! 원고는 언제 쓰는 거야?

이 소리에 교수는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다시 비참한 표정으로 번역을 계속한다.

(사) 선굴자(蟬橘子)에게 예덕 선생이라 부르는 벗이 한 사람 있다. 그는 날마다 마을 안의 똥을 치는 일을 생업으로 삼고 지냈는데 마을 사람들은 모두들 그를 엄 행수라 불렀다. ‘행수’란 막일꾼 가운데 나이가 많은 사람에 대한 칭호요, ‘엄’은 그의 성(姓)이다.

자목(子牧)이 선굴자에게 따져 묻기를,

“저 엄 행수라는 자는 마을에서 가장 비천한 막일꾼으로서 열악한 곳에 살면서 남들이 치욕으로 여기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선생님께서는 자주 그의 덕(德)을 칭송하여 선생이라 부르는 동시에 장차 그와 교분을 맺고 벗하기를 청할 것같이 하시니 제자로서 심히 부끄럽습니다.”

하니, 선굴자는 웃으면서 대답하였다.

“저 엄 행수란 사람은 나에게 알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나는 항상 그를 예찬하고 싶어 했지. 모두 엄 씨의 똥을 가져다 써야 땅이 기름지게 되어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으며 그 수입이 1년에 6천 푼이나 된다네. 하지만 그는 아침에 밥 한 사발이면 흡족해하고 저녁이 되어서야 다시 한 사발을 먹을 뿐이지. 남들이 반반한 옷이나 좀 입으라고 권하였더니, 넓은 소매를 입으면 몸에 익숙하지 않고 새 옷을 입으면 흙을 짚어질 수 없다고 하더군. 엄 행수와 같은 이는 아마도 ‘덕을 더러움으로 감추고 세속에 숨어 사는 대은’이라 할 수 있겠지. 노력 없이 재물을 모으면 막대한 부를 축적하더라도 이름에서 썩는 냄새가 나게 될 걸세. 이상을 통해 나는 깨끗한 가운데서도 깨끗하지 않은 것이 있고, 더러운 가운데서도 더럽지 않은 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네. 곤궁하게 산다고 하여 얼굴에까지 그 티를 나타내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요, 출세했다 하여 몸짓에까지 그것을 나타내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니, 엄 행수와 비교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을 자는 거의 드물 걸세.”

*대은(大隱): 크게 깨달아 세속의 괴로움 없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산야에 묻혀 숨어 사는 사람을 이름.

(아) 문학을 함으로써 우리는 서유럽의 한 위대한 지성이 탄식했듯 배고픈 사람 하나 구하지 못하며, 물론 출세하지도, 큰돈을 벌지도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다. 인간에게 유용한 것은 대체로 그것이 유용하다는 것 때문에 인간을 억압한다. 그러나 문학은 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다. 인간은 문학을 통하여 억압하는 것과 억압당하는 것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 부정적 힘을 인지한다. 그 부정적 힘의 인식은 인간으로 하여금 세계를 개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당위성을 느끼게 한다. 한 편의 아름다운 시는 그것을 향유하는 자에게 그것을 향유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부끄러움을, 한 편의 침통한 시는 그것을 읽는 자에게 인간을 억압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자각을 불러일으킨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각각 임 씨, 노라, 할머니, 희준의 삶을 이끄는 ‘가치’를 그들의 ‘행위’를 통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타인의 반응’을 찾아 쓰시오. 그리고 임 씨, 노라, 할머니, 희준의 ‘삶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을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춘 ‘완성된 글’의 형식으로 작성할 필요 없음.

【문제 2】 제시문 (마)의 종술과 (바)의 교수가 보이는 ‘삶의 태도’의 차이를 비교하여 쓰고, 이들의 가족이 두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를 각각 쓰시오. 그리고 제시문 (사)를 바탕으로 종술이, 제시문 (아)를 바탕으로 교수가 추구해야 할 ‘삶의 자세’를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 어느 기업의 제품 생산 공정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이 상황에 기초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풀이 과정 포함)

- 이 공정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에너지 효율에 따라 1, 2, 3 (등급) 중 하나로 판정된다. 등급 변동성을 평가하기 위해 임의추출한 3개 제품의 등급을 각각 판정한 후, 이 중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를 확률변수 X 라 하고 그 기댓값을 E 라 하자. (단, 각 등급으로 판정될 확률은 동일하다.)
- 이 공정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성능지표는 평균이 m 이고 표준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생산된 제품 중 10개를 새롭게 임의추출할 때, 성능지표의 표본평균을 Y 라고 하자.
- 이 공정의 경제적 가치 V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V = 10Y^2 - aE - 20m \quad (\text{단, } a > 0 \text{ 인 실수})$$

- 관리자는 $1 \leq m \leq 10$ 인 범위에서 평균 m 을 전략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문제 3】 관리자가 V 의 기댓값을 최대화하도록 m 을 선택했을 때, V 의 기댓값이 800 이상이 되도록 하는 a 의 최댓값을 구하시오. [20점, 원고지 작성법을 준수할 필요 없음]

1. 제시문 출전과 해설

- 제시문 (가) 양귀자,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류수열 외 7인, 『문학』, 금성출판사, 2019, 20-25쪽.
- 제시문 (나) 헨리크 입센, 「인형의 집」, 김동환 외 6인, 『문학』, 천재교과서, 2019, 104-109쪽.
- 제시문 (다) 윤홍길, 「장마」, 박영민 외 7인, 『국어』, 비상교육, 2018, 66-78쪽.
- 제시문 (라) 이기영, 「고향」, 김동환 외 6인, 『문학』, 천재교과서, 2019, 215-219쪽.
- 제시문 (마) 윤홍길, 「완장」, 김창원 외 11인, 『문학』, 동아출판, 2019, 119-122쪽. 윤홍길, 「완장」, 류수열 외 10인, 『국어』, 금성출판사, 2019, 354-360쪽.
- 제시문 (바) 이근삼, 「원고지」, 방민호 외 5인, 『문학』, 미래엔, 2019, 256-263쪽. 이근삼, 「원고지」, 정재찬 외 5인, 『문학』, 지학사, 2019, 274-279쪽.
- 제시문 (사) 박지원, 「예덕선생전」, 서혁 외 6인, 『독서』, 좋은책신사고, 2019, 162-166쪽.
- 제시문 (아) 김현,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성영 외 5인, 『국어』, 천재교육, 2018, 98-99쪽.
- 「II-2-2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이준열 외 7인, 『수학』, 천재교육, 2022, 67-72쪽.
- 「II-2-3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배종숙 외 6인, 『수학』, 금성출판사, 2019, 74-77쪽.
- 「II-2-2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권오남 외 7인, 『수학』, 교학사, 2023, 65-67쪽.
- 「II-2-3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고성은 외 5인, 『수학』, 좋은책신사고, 2023, 64-67쪽.
- 「III-1-1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고성은 외 5인, 『확률과 통계』, 좋은책신사고, 2023, 79-84쪽.
- 「III-1-1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권오남 외 14인, 『확률과 통계』, 교학사, 2023, 82-88쪽.
- 「III-1-1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배종숙 외 6인, 『확률과 통계』, 금성출판사, 2019, 93-98쪽.
- 「III-1-1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이준열 외 7인, 『확률과 통계』, 천재교육, 2022, 83-89쪽.
- 「III-1-2 이산확률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고성은 외 5인, 『확률과 통계』, 좋은책신사고, 2022, 84-90쪽.
- 「III-1-2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과 표준편차」, 권오남 외 14인, 『확률과 통계』, 교학사, 2023, 89-95쪽.
- 「III-1-2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과 표준편차」, 배종숙 외 6인, 『확률과 통계』, 금성출판사, 2019, 99-102쪽.
- 「III-1-2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과 표준편차」, 이준열 외 7인, 『확률과 통계』, 천재교육, 2022, 91-96쪽.
- 「III-1-4 정규분포」, 고성은 외 5인, 『확률과 통계』, 좋은책신사고, 2020, 97-105쪽.
- 「III-1-4 정규분포」, 황선욱 외 9인, 『확률과 통계』, 미래엔, 2020, 97-104쪽.
- 「III-1-4 정규분포」, 권오남 외 14인, 『확률과 통계』, 교학사, 2020, 102-108쪽.
- 「III-1-5 정규분포」, 배종숙 외 6인, 『확률과 통계』, 금성출판사, 2019, 114-120쪽.
- 「III-1-4 정규분포와 그 성질」, 이준열 외 7인, 『확률과 통계』, 천재교육, 2022, 104-110쪽.
- 「III-2-1 모집단과 표본」, 고성은 외 5인, 『확률과 통계』, 좋은책신사고, 2020, 110-116쪽.
- 「III-2-2 모평균과 표본평균」, 권오남 외 14인, 『확률과 통계』, 교학사, 2020, 118-122쪽.
- 「III-2-1 모집단과 표본」, 배종숙 외 6인, 『확률과 통계』, 금성출판사, 2019, 126-130쪽.
- 「III-2-1 모집단과 표본」, 이준열 외 7인, 『확률과 통계』, 천재교육, 2022, 115-120쪽.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문학』 (금성출판사, 2019)에 실린 양귀자의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에서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수정·편집한 글이다. 이 작품은 「문학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단원 중 「사람의 도리에 관한 질문과 대답」 영역에 수록되어 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진선미를 추구하는 문학의 본질적 기능으로서 인식적, 윤리적, 미적 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학을 감상하는 것이다.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는 집을 수리한 경험을 통해 타인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보여 주는 소설이다. 이 작품에서 발췌한 제시문 (가)에는 임 씨에 대한 불신이 오해였음을 깨닫게 되는 과정에서 부부가 느낀 감정 변화가 제시되어 있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문학』 (천재교과서, 2019)에 실린 헨리크 입센의 「인형의 집」에서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수정·편집한 글이다. 이 작품은 「문학의 수용과 생산」 단원 중 「문학의 수용과 소통」 영역에 수록되어 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문학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익히고 활용하는 것이다. 「인형의 집」은 결혼 생활에서 비로써 여성의 정체성 인식의 변화를 다룬 희곡이다. 이 작품에서 발췌한 제시문 (나)에는 노라가 차용증 사건을 둘러싼 남편과의 갈등을 계기로 세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가기로 결심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국어』(비상교육, 2018)에 실린 윤홍길의 「장마」에서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수정·편집한 글이다. 이 작품은 「문학의 네 가지 빛깔」 단원 중 「서사 갈래」 영역에 수록되어 있으며, 단원의 학습 목표는 문학의 갈래별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다. 「장마」는 화자가 어린 시절에 겪은 육이오 전쟁의 체험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서술한 소설이다. 이 작품에서 발췌한 제시문 (다)에는 자식을 전쟁터에 보낸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이념 대립의 현실에서도 자식 잃은 어머니로서 서로를 이해하며 공감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문학』(천재교과서, 2019)에 수록된 이기영의 「고향」에서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수정·편집한 글이다. 이 작품은 「한국 문학의 흐름」 단원 중 「일제 강점기의 문학」에 수록되어 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한국 문학의 흐름을 파악하고 주제적인 관점으로 문학사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다. 「고향」은 일제 강점기 농촌 현실을 잘 보여 주고 있는 장편 소설이다. 이 작품에서 발췌한 제시문 (라)에는 주인공 김희준이 이념을 앞세우는 지식인의 전행에서 벗어나 농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농민과 호흡하며 두레를 결성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문학』(동아출판, 2019)과 고등학교 『국어』(금성출판사, 2018)에 실린 윤홍길의 「완장」의 지문을 출제 의도에 맞게 발췌하여 일부 편집한 글이다. 이 글은 각각 「II. 문학의 수용과 생산」 단원 중 「3. 문학 지평의 확대」와 「9. 문학사의 지평에서」 단원 중 「(3) 근현대의 한국 문학」에 실렸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문학과 인접 분야의 관계를 이해하고 문학이 다양한 매체로 실현되는 양상을 이해하는 것과 근현대 한국 문화의 전개 양상과 그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다. 1980년대에 발표된 「완장」은 「완장」이라는 소재를 통해 권력에 대한 과대한 집착과 허황한 의식을 비판한 장편 소설이다. 제시문 (마)에서 완장은 권력을 상징한다. 완장의 위력에 주눅 들어 살아온 종술에게 완장은 선망의 대상인 반면, 어머니 운암댁에게 완장은 두려움의 대상이다. 남편이 완장 찬 사람들에게 고초를 겪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행을 겪은 운암댁은 종술이 완장을 찾는 것을 우려한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문학』(미래엔, 2019)과 고등학교 『문학』(지학사, 2019)에 실린 이근삼의 「원고지」의 발췌문을 출제 의도에 맞게 발췌하여 일부 편집한 글이다. 각각 「4. 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 단원 중 「(4) 근현대 문학」과 「4. 한국 문학의 흐름」 단원 중 「(3) 극 갈래의 흐름」에 수록되었다. 해당 작품은 무의미하고 부조리한 현대인의 생활상을 풍자한 희곡으로서, 물질문명 속에서 혼돈과 무기력함을 느끼는 교수와 그 가족들을 그렸다. 제시문 (바)에서는 꿈과 열정을 잃고 반복되는 번역 작업을 무기력하게 이어가는 교수와 그를 돈 벌어 오는 기계처럼 대하는 처의 모습이 중점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 『독서』(좋은책신사고, 2019) 교과서에 실린 박지원의 「예덕선생전」을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편집한 글이다. 「III. 독서의 분야」 단원 중 「(4) 시대적 특성을 고려한 글 읽기」에 실렸으며,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시대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글쓰기 관습이나 독서 문화에 반영되어 있음을 이해하며, 글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대에서 생산된 가치 있는 글을 읽어 보는 것이다. 제시문 (사)에서 「선굴자」라는 호를 가진 조선 후기의 학자 이덕무는 제자 자목의 질문을 받고 마을 안의 똥을 치는 일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엄 행수를 벼로 삼아 「예덕 선생」이라 부르며 존중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아)는 고등학교 『국어』(천재교육, 2019) 교과서에 실린 김현의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출제 의도에 맞게 편집하여 발췌한 글이다. 「2. 문학의 특성」 단원의 「(4) 교술」에 실렸으며, 「글돋움 발돋움」으로서 글쓰이의 견해에 공감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대상으로 제시되었다. 물질적 이익을 주기 어려운 문학을 하는 것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서술하였다. 제시문 (아)를 통해서 인간이 문학을 통해 억압하는 것과 억압당하는 것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 부정적 힘을 인지함으로써 세계를 개조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느끼게 됨을 이해할 수 있다.

2. 예시 답안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각각 임 씨, 노라, 할머니, 희준의 삶을 이끄는 ‘가치’를 그들의 ‘행위’를 통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타인의 반응’을 찾아 쓰시오. 그리고 임 씨, 노라, 할머니, 희준의 ‘삶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을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춘 ‘완성된 글’의 형식으로 작성할 필요 없음.

(가)의 임 씨의 삶을 이끄는 가치는 성실함과 정직함이다. 이는 그가 꼼꼼하게 공사를 마친 후 수리비를 명세서보다 적게 받는 행위로 나타난다. 부부는 임 씨의 행동을 보고 자신들의 의심과 야박함에 부끄러움과 미안함을 느낀다. (나)의 노라는 주제적인 삶과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추구한다. 노라는 남편의 위선적 태도를 알게 된 후 크게 실망하여 남편을 비판하고 집을 떠난다. 헬멧은 노라를 설득하려 하지만 체념하고 만다. (다)에서 할머니를 이끄는 삶의 가치는 아들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과 사랑이다. 할머니는 가족들을 뒤통하며 삼촌을 기다리던 끝에 구렁이가 나타나자 졸도한다. 외할머니는 할머니에게 공감하고 구렁이를 삼촌으로 생각하여 정성스레 대한다. (라)의 희준은 노동의 진정성과 공동체 정신을 추구한다. 이는 희준이가 두레를 결성해 마을 사람들을 화합하고, 농사일에 직접 참여하며 농군으로 사는 행위로 나타난다. 마을 사람들은 희준을 마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그의 선택에 의아해한다. 결론적으로 네 사람은 확고한 자신의 믿음에 따라 삶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며 타인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는 삶의 태도를 보인다. [570자]

[문제 2] 제시문 (마)의 종술과 (바)의 교수가 보이는 ‘삶의 태도’의 차이를 비교하여 쓰고, 이들의 가족이 두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를 각각 쓰시오. 그리고 제시문 (사)를 바탕으로 종술이, 제시문 (아)를 바탕으로 교수가 추구해야 할 ‘삶의 자세’를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제시문 (마)의 종술은 일 자체의 본질적 의미에는 무관심한 채 완장을 통해 겉으로 드러나는 권위에 기대어 스스로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기과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제시문 (바)의 교수는 자신의 일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수동적이며 무기력한 태도로 일관한다. 제시문 (마)의 어머니는 종술이 완장을 차고 일하는 것을 우려하여 만류한다. 이는 완장이 과거에 남편에게 가해진 무자비한 폭력을 떠올리게 하여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제시문 (바)의 처는 교수가 벌어오는 돈에 집착하며 이를 독촉하는 억압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는 오로지 생계 유지를 위한 금전적 이익에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종술은 천하게 여겨지는 일을 하면서도 타인의 시선을 신경쓰지 않고 공동체적 관점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묵묵히 해내는 제시문 (사)의 엄 행수의 자세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교수는 제시문 (아)의 주장과 같이 현실적으로 유용한 것이 오히려 자신을 억압할 수 있음을 깨닫고, 유용하지 않더라도 잃어버린 꿈과 열정을 되살림으로써 자신을 둘러싼 억압의 부정적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이다. [561자]

[문제 3]

▶ 확률변수 X 는 가질 수 있는 값이 0, 1, 2뿐이며, 전체 경우의 수는 $3^3 = 27$ 개이다.

- $X = 0$ 인 경우: 3개 제품의 등급이 모두 동일한 경우이므로 총 3가지이다.

$$P(X=0) = \frac{3}{27} = \frac{1}{9}$$

- $X = 2$ 인 경우: 1과 3이 모두 적어도 한 번 나와야 한다.

• 1이 두 번, 3이 한 번 나오는 경우 → 3가지

• 1, 2, 3이 한 번씩 나오는 경우 → 6가지

• 1이 한 번, 3이 두 번 나오는 경우 → 3가지

$$P(X=1) = \frac{3+6+3}{27} = \frac{4}{9}$$

- $X = 1$ 인 경우

$$P(X=1) = 1 - P(X=0) - P(X=2) = 1 - \frac{1}{9} - \frac{4}{9} = \frac{4}{9}$$

▶ 따라서, 확률변수 X 의 확률분포표는 다음과 같다.

x	0	1	2
$P(X=x)$	$\frac{1}{9}$	$\frac{4}{9}$	$\frac{4}{9}$

이를 통해 확률변수 X 의 기댓값은 $E = 0 \times \frac{1}{9} + 1 \times \frac{4}{9} + 2 \times \frac{4}{9} = \frac{4}{3}$ 로 구해진다.

제품의 성능지표를 확률변수 Z 라 하면, $Z \sim N(m, 16)$ 이고, 임의추출한 10개 제품의 성능지표 표본평균인 Y 는 $Y \sim N(m, \frac{16}{10})$ 이다. 따라서,

$$E(Y^2) = \text{Var}(Y) + \{E(Y)\}^2 = \frac{16}{10} + m^2$$

이다.

▶ V 의 기댓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V) = E(10Y^2 - \frac{4}{3}a - 20m) = 10E(Y^2) - \frac{4}{3}a - 20m = 10m^2 - 20m + 16 - \frac{4}{3}a$$

이는 $m = 1$ 에서 최솟값을 가지는 이차함수 형태이므로, $1 \leq m \leq 10$ 범위에서 최댓값은 $m = 10$ 에서 발생한다.

▶ $m = 10$ 일 때의 $E(V)$ 값은 $816 - \frac{4}{3}a$ 이므로,

$$816 - \frac{4}{3}a \geq 800$$

$$a \leq 12$$

이다. 따라서 a 의 최댓값은 12이다.

3. 채점 기준

[문제 1]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 (-5점)

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②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③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 (40점)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각각 임 씨, 노라, 할머니, 희준의 삶을 이끄는 ‘가치’를 그들의 ‘행위’를 통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타인의 반응’을 찾아 쓰시오. (36점 만점)

(가) 가치: 성실함과 정직함. (3점)

행위: 견적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행위. (3점)

타인의 반응: 부부는 임 씨의 행동을 보고 자신들의 의식과 야박함에 부끄러움과 미안함을 느낌. (3점)

(나) 가치: 주체적인 삶과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3점)

행위: 남편의 위선적 태도를 알게 된 후 크게 실망하여 남편을 비판하고 집을 떠남. (3점)

타인의 반응: 노라를 설득하려 하지만 체념함. (3점)

(다) 가치: 아들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과 사랑. (3점)

행위: 가족들을 뒤통하며 삼촌을 기다리던 끝에 구령이가 나타나자 졸도함. (3점)

타인의 반응: 할머니에게 공감하고 구령이를 삼촌으로 생각하여 정성스레 대함. (3점)

(라) 가치: 노동의 진정성과 공동체 정신. (3점)

행위: 희준이는 두레를 결성해 마을 사람들을 화합하고, 농사일에 직접 참여하며 농군으로 살기로 함. (3점)

타인의 반응: 마을 사람들은 희준을 마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그의 선택에 의아함. (3점)

2) 임 씨, 노라, 할머니, 희준의 ‘삶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을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4점)

① 네 인물의 ‘삶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을 하나로 찾아 제시 (2점)

② 한두 문장의 간략한 결론으로 잘 도출하여 요약했는지 여부 (2점)

*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춘 ‘완성된 글’의 형식으로 작성할 필요 없으나 서론을 작성하더라도 감점하지 않는다.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1]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등장인물이 삶을 이끄는 '가치'를 그들의 '행위'를 통해 설명하고 '타인의 반응'을 찾아 제시 (36점)	1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4~9점
		2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10~18점
		3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19~27점
		4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28~36점
	② 공통점을 하나로 찾아 간략히 제시 (4점)	공통점을 하나로 찾아 제시한 경우	1~2점
		한 두 문장의 간략한 결론으로 잘 도출하여 요약했는지 여부	1~2점

[문제 2] 40점 만점**1. 기술적(記述的) 측면 (-5점)**

- 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 ②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③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 (40점)**1) 제시문 (마)의 종술과 (바)의 교수가 보이는 '삶의 태도'의 차이를 비교하여 쓰시오. (12점)**

- ① (마)의 종술이 보이는 '삶의 태도'를 파악. 겉으로 드러나는 권위에 기대어 스스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기과시적 태도를 파악하여 기술. (5점)
 ② (바)의 교수가 보이는 '삶의 태도'를 파악. 수동적인 태도로 무기력하게 일하고 있음을 파악하여 기술. (5점)
 ③ (마)의 종술과 (바)의 교수가 각각 자신이 하게 될 혹은 하고 있는 일의 의미에 관련하여 가지는 태도의 차이를 본질적 의미에 대한 무관심과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함으로 비교하여 언급. (2점)

2) 제시문 (마)의 종술과 (바)의 교수를 대하는 가족의 태도와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를 각각 쓰시오. (12점)

- ① (마)의 어머니가 종술을, (바)의 처가 교수를 대하는 태도를 기술. (마)에서 완장을 차고 일하는 것을 우려하여 만류한다는 내용을 찾아냄. (3점)
 (바)에서 교수가 벌어오는 돈에 집착하며, 이를 독촉하는 억압적인 태도를 찾아냄. (3점)
 ② (마)의 어머니가 종술을, (바)의 처가 교수를 대하는 태도의 원인을 파악. (마)에서 완장이 남편에게 가해진 무자비한 폭력을 떠올리게 하여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임을 서술. (3점) (바)에서 생계 유지를 위한 금전적 이익에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임을 서술. (3점)

3) 제시문 (사)를 토대로 종술이, 제시문 (아)를 토대로 교수가 추구해야 할 '삶의 자세'를 논술하시오. (16점)

- ① (사)에 나타난 (마)의 종술이 본받을 만한 '삶의 자세'를 파악. (사)의 엄 행수가 천하게 여겨지는 일을 하면서도 신경 쓰지 않음을 언급함. (4점)
 공동체적 관점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묵묵히 해내고 있음을 언급함. (4점)
 ② (아)에서 제시한 문학의 의미를 (바)의 교수가 일에서 찾아야 할 의미에 적용. 금전적 이익과 같은 현실적 유용성이 오히려 자신을 억압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함을 서술함. (4점) 잃어버린 꿈과 열정을 되살림으로써 자신을 둘러싼 억압의 부정적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야 함을 서술함. (4점)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2]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제시문 (마)의 종술과 (바)의 교수가 보이는 '삶의 태도'의 차이를 비교하여 서술하였는지 평가 (12점): 1~12점 부여	제시문 (마)와 (바)에 나타난 '삶의 태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비교도 적절히 하지 못한 경우	1~4점
		제시문 (마)와 (바)에 나타난 '삶의 태도'는 파악하였으나, 비교의 초점을 찾지 못한 경우	5~8점
		제시문 (마)와 (바)에 나타난 '삶의 태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비교의 초점을 찾아 적절히 제시한 경우	9~12점
	② 제시문 (마)의 종술과 (바)의 교수를 대하는 가족의 태도를 기술하고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를 찾아서 서술했는지 평가 (12점): 1~12점 부여	(마)의 어머니가 종술을 대하는 태도와 원인, (바)의 처가 교수를 대하는 태도와 원인 중 3가지 이상의 서술이 부적절한 경우	1~3점
		(마)의 어머니가 종술을 대하는 태도와 원인, (바)의 처가 교수를 대하는 태도와 원인 중 2가지의 서술이 부적절한 경우	4~6점
		(마)의 어머니가 종술을 대하는 태도와 원인, (바)의 처가 교수를 대하는 태도와 원인 중 1가지의 서술이 부적절한 경우	7~8점
		(마)의 어머니가 종술을 대하는 태도와 원인, (바)의 처가 교수를 대하는 태도와 원인을 모두 찾아 서술한 경우	10~12점
	③ 제시문 (사)와 (아)에 제시된 '삶의 자세'를 잘 파악하여, 각각 (마)의 종술과 (바)의 교수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적용하였는지 평가 (16점): (1~16점) 부여	제시문 (사)와 (아)에 제시된 '삶의 자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마)의 종술과 (바)의 교수의 상황에 맞추어 적절히 적용되지 않은 경우	1~4점
		제시문 (사)와 (아)에 제시된 '삶의 자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으나, (마)의 종술과 (바)의 교수의 상황에 맞추어 적절히 적용되지 않은 경우	5~8점
		제시문 (사)와 (아)에 제시된 '삶의 자세'를 각각 (마)의 종술과 (바)의 교수의 상황에 맞추어 적절히 적용한 경우	10~16점

[문제 3] 20점 만점

1. 출제 의도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확률적 사건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확률분포의 기댓값과 분산을 계산하는 과정은 통계적 사고 및 의사결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본 문제는 이산확률분포와 정규분포 및 표본평균에 대해 이해하고 특정 조건에서 기댓값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2. 채점 기준

1. 확률변수 X 의 기댓값을 올바르게 계산한 경우: +8점
2. 확률변수 Y 의 분포를 올바르게 구하고, 평균 분산 공식을 이용하여 $E(Y^2)$ 을 올바르게 계산한 경우: +7점
3. V 의 기댓값을 m 에 대한 이차함수 형태로 올바르게 구하고 최댓값을 올바르게 구한 경우: +5점

※ 계산 실수로 틀렸어도 논리 전개 과정이 맞으면 해당 부분에 1~2점의 부분 점수를 부여함.

※ 각 부분에서 바르게 답안을 작성한 경우에도 답안의 완성도에 따라 총점 20점 이내에서 ±1점 추가 점수 부여 가능함.

2027학년도 모의논술 문제(창의형) 인문사회계열

[문제 1] 제시문 (가)의 주장에 대해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20점, 300-330자]

(가) 주인이 없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넓은 목초지에 소들이 먹기 좋은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공짜인 풀을 먹이기 위해 자신의 소를 공유지인 목초지로 끌고 나와 방목하였다. 만약 각자 한두 마리씩만 방목을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많은 소들을 방목하면서 목초지는 황무지가 되고 말았다.

소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은 한정되어 있는데, 지나치게 많은 소들을 목초지에 방목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공짜 풀을 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처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쉽게 고갈되는 현상을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한다. 이 사례 속 목초지와 같은 재화를 공유 자원이라고 한다. 지하자원, 공기, 물 등이 공유 자원에 해당한다. 공유 자원을 이용한다고 해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로 인해 공유 자원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 수준에 비해 많이 소비되는 경향이 있다. 즉,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 상태인 ‘시장 실패’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나)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전형적인 인간형으로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를 설정한다.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유일한 관심은 물질적 측면이고, 그는 오직 물질적 동기에 의해 움직인다. 한마디로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전형적 인간형으로 보는 시각에 반기를 드는 경제학자들이 나타났다.

이기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비용을 들여 공공재를 생산하면 여기에 편승해 그 혜택을 누린다. 돈을 내지 않고 남의 차에 올라타는 사람처럼, 공공재에도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해서 사람들이 언제나 무임승차를 하려고 할까?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0명으로 하나의 집단을 만든 다음, 각 사람에게 50장씩의 표를 배정한다고 하자. 각 사람이 이 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는 것이 이 실험의 내용이다. 각 사람은 자신에게 배정된 50장의 표를 ‘개인’이라고 써서 있는 흰색 상자와 ‘공공’이라고 써서 있는 푸른색 상자에 나누어 넣게 된다. 어떤 사람이 표 1장을 흰색 상자(개인)에 넣으면 실험이 끝난 후 그 사람은 천 원을 받게 된다. 반면에 표 1장을 푸른색 상자(공공)에 넣으면 본인을 포함하여 그 집단에 속하는 모든 사람이 5백 원씩 받게 된다. 집단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바람직한 결과는 모든 사람이 가진 50표를 전부 푸른색 상자에 넣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흰색 상자에 넣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된다.

그런데 실험의 결과는 무임승차를 하려는 경향이 의외로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을 조금씩 달리해서 여러 번 실험을 거듭해 보았지만, 사람들이 가진 표를 전부 흰색 상자에 넣는 경우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평균적으로 자신이 가진 표의 40퍼센트에서 60퍼센트에 이르는 표를 푸른색 상자에 넣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이 가진 표의 거의 반을 자발적으로 기여한 것이다.

[문제 2] 제시문 (다)~(마)에는 화를 내는 인물이 나타난다. 제시문 (다), (라), (마)에서 인물이 화를 내는 ‘이유’와 그 이후의 ‘변화’를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00~550자]

(다) 지난주, 19세기 미국 소설 강의 시간에, 나는 한 학생에게 「주홍 글씨」의 첫 장면을 읽도록 시켰다.

“김영수, 23쪽 첫째 단락을 읽어 보세요.”

그러나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래서 다시 되풀이했다.

“23쪽 첫째 문단 말이야.”

또다시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러더니 갑자기 영수가 아닌 서훈이가 책을 읽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단지 의아해했지만 가만히 생각하니 은근히 부아가 치밀었다. 학기가 시작되고 두어 달이 지났으니 모든 학생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학생들 또한 내가 자기들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호명한 영수가 아닌 서훈이가 책을 읽을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나에 대한 반항이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 모욕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나는 화를 눌러 참고 책을 다 읽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냉담하게 말했다.

“지금 책 읽은 학생이 김영수예요?”

나는 정색을 하고 선생으로서의 위엄과 자존심을 건드린 두 사람을 노려보았다.

“자기 이름들도 몰라요? 결석한 친구 대신 대리 대답하는 학생들이 있다더니, 그렇게 하는 것이 아예 버릇이 돼서 이젠 친구 이름을 자기 이름인 줄로 착각할 정도인가?”

나는 야유까지 했다.

영수와 서훈이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어서 강의를 계속했지만, 수업이 끝나고도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그리고 오후에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학생 하나가 찾아와 진상을 알려 주었다. 김영수는 아주 심각한 말더듬이 증세를 갖고 있고, 그 증세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거나 읽거나 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더욱 악화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아까 갑자기 말문이 막혀 책을 읽을 수도, 그렇다고 말을 더듬어서 못 읽겠다고 설명할 수도 없는 처지였을 것이고, 그 사정을 잘 아는 서훈이가 당황하는 친구를 도와주려고 대신 읽었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정말이지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어렸을 때 나도 한때 말더듬이 비슷한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영수가 느꼈을 충격과 고뇌, 그리고 수업 시간 이후의 기분을 잘 알 수 있었다. 미안하다고 해야겠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라) [앞부분 줄거리] 폐 전문 외과 의사인 양회기는 폐 질환을 앓고 있는 김인옥으로부터 수술을 요청받지만, 병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며 거절한다. 인옥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꼭 살아야 한다며 수술을 간청하지만, 회기는 수술 결과가 나쁠 경우에 받을 원망과 책임감을 의식하여 인옥을 냉정하게 대한다. 얼마 후 인옥의 남편인 상현이 회기를 찾아온다. 그는 회기가 인옥의 수술을 거절했다는 말에 안심하면서, 성공 가능성이 낮은 수술을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며 아내의 폐 수술을 해 주지 말 것을 거듭 당부한다.

회기 (추궁하듯) 부인을 미워하시오?

상현 미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와 어린것들이 벌써 오래전부터 그 덕으로 살아왔는데……. (하며 고통스러운 빛으로 입술을 깨문다.)

회기 그러나 선생께서 수술을 반대하는 이유를 나는 이해할 수 없는데요…….

상현 수술을 해서 몸이 회복된다면 내 아내는 더 불행해질 거예요. 그리고 나도…….

회기 아니, 불행해지다니……. 건강해야 더 벌어서 아이들도 편하게……. 어찌 되었든 부인 때문에 온 식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오?

상현 (눈물을 글썽거리며) 아내는 항상 나를 무능하다고 빈정대지만…… 그렇지만 나는 그런 아내에게 대해서 한마디 대꾸도 못하는 바보였죠…….

회기 (미심쩍게) 내가 알기엔 부인께서는 가족을 위해서 수술을 받아야겠다고 한사코 고집하는 것을…….

상현 아닙니다. 그건…….

회기 (조용하나 위엄 있게) 그렇지만, 내버려 두면 부인께서 어떻게 된다는 건 아시고 계시죠?

상현 별수 없죠. 죽고 사는 건 인력으로 막을 수 없으니까.

회기 (물결 불쾌감이 솟으며) 아니, 그럼 부인이 죽어도 괜찮단 말ियो?

상현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그대로 두는 게죠. 그 돈이 있으면 나와 어린것들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회기 (노골적으로 분노를 터뜨리며) 그건 너무 심하지 않소?

상현 심한 건 내 아내죠. 그 병이 어떤 병이라고 수술을 합니까? 그것도 공으로 한다면 또 모르지만, 돈 쓰고 저 죽고 하면, 남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회기 (외치며) 그건 살인이나 다름없소!

(이 말이 떨어지자 금숙은 의아한 표정으로 회기를 쳐다본다.)

상현 뭐라구요? (일어서서 손가방을 쥐며) 아무튼 실례했습니다. (하며 문을 닫고 나가 버린다.)

(회기는 감전된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고 금숙은 회기를 주시하고만 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회기 (여전히 허공을 바라보며) 정 간호사! 아까 그 환자의 주소 알지!

금숙 예, 접수부를 보면…….

회기 좋아! 그럼 속달 우편으로 보내요. 수술을 받고 싶으면 편지 받는 즉시 찾아오라고!

금숙 (놀란 표정으로) 아니, 그렇지만…….

회기 (속삭이듯) 자신은 있어! 그 대신 수혈용 혈액을 충분히 준비할 것을 잊지 마! 알겠어? 이번 환자는 꼭 살려 보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군!

(마) [앞부분 줄거리] 육이오 전쟁으로 ‘나’의 외가 식구들이 친가 식구들과 같이 살고 있던 ‘나’의 집으로 피란을 오면서 모두 함께 살게 된다. 삼촌은 빨치산, 외삼촌은 국군이었어서 서로 거북한 상황이었지만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다툼 없이 잘 지낸다. 그러다가 외삼촌의 전사 소식이 날아들자, 상심한 외할머니는 장맛비가 쏟아지는 하늘을 향해 빨갱이를 다 쏘어버리라고 저주를 퍼붓는다. 삼촌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던 할머니는 이것을 삼촌이 죽어 버렸으면 좋겠다는 말로 받아들여 외할머니와 큰 싸움을 벌인다. 그 뒤로 빨치산과 국군의 전투가 벌어지고 빨치산의 주검을 읍내에 늘어놓았다는 소식이 들리자, 식구들은 삼촌이 죽었을 것이라는 체념에 빠진다. 그러나 할머니는 삼촌이 살아 돌아온다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신앙처럼 믿으면서 삼촌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식구들을 채근한다. 점쟁이가 삼촌이 살아 돌아오는 날이라고 말해 준 그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할머니는 밤새도록 등을 환하게 밝혀 놓으라고 한다.

우리는 우리가 대문 쪽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이내 함성을 들었다. 꿈틀꿈틀 기어 오는 기다란 것이 거기에 있었다. 눈어림으로만도 사람 키보다 훨씬 큰 한 마리의 구렁이었다. 동시에 찌지는 듯한 비명이 등 뒤에서 들렸다.

“아악!”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마치 흰 옷가지가 구겨져 흘러내리듯 그렇게 마루 위로 고꾸라지는 할머니의 모습을 나는 목격했다. 식구들이 모두 안방에만 매달려 수족을 주무르고 얼굴에 찬물을 뿜어대는 등 야단법석을 떨어 가며 할머니가 어서 깨어나기를 빌었다.

고비에 다다른 혼란의 사이를 틈탄 구렁이는 아욱과 상추가 자라고 있는 텃밭 이랑을 지나 어느새 감나무에 올라앉아 있었다. 그러자 외할머니는 천천히 감나무 아래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에구 이 사람아, 집안일이 못 잊어서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왔는가?”

꼭 물어 보려는 아이한테 자장가라도 불러 주는 투로 조용히 속삭이는 그 말을 듣고 누군가 큰 소리로 웃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자 외할머니의 눈이 단박에 세모꼴로 변했다.

“어떤 창사구 빠진 잡놈이 그렇게 히득거리고 섰냐? 누구냐? 어서 이리 썩 나오니라. 주리 댈 놈!”

외할머니의 대갈 호령에 사람들은 쥐 죽은 소리도 못 했다. 외할머니는 몸을 돌려 다시 구렁이를 상대로 했다.

“자네 보다시피 노친께서는 기력이 여전하시고 따른 식구들도 모다덜 잘 지내고 있네. 그러니께 집안일일랑 아모 염려 말고 어서어서 자네 가야 할 디로 가소.”

외할머니는 꼭 산 사람을 대하듯 위를 올려다보면서 조용조용히 말을 건네고 있었다.

감나무 가지를 친친 감았던 몸뚱이가 스르르 풀리면서 구렁이는 땅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떨어진 자리에서 잠시 머뭇거린 다음, 구렁이는 꿈틀꿈틀 기어 외할머니 앞으로 다가왔다. 외할머니가 한쪽으로 비켜서면서 길을 터 주었다. 그것은 방향을 바꾸어 헛간과 부엌 사이 공지를 천천히 지나갔다.

“고맙네, 이 사람! 집안일은 죄다 성님한테 맡기고 자네 혼자 몸뚱이나 지발 성혀서 먼 길을 편안히 가소. 뒷일은 아모 염려 말고 그저 편안히 가소. 증말 고맙네, 이 사람아.”

장마철에 무성히 돌아난 죽순과 대나무 사이로 모습을 완전히 감추기까지 외할머니는 우물결에 서서 마지막 당부의 말로 구렁이를 배웅하고 있었다.

줄도한 지 서너 시간 만에야 겨우 할머니는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다.

“깻냐?”

이것이 맑은 정신을 되찾고 나서 맨 처음 할머니가 꺼낸 말이였다. 할머니가 까무러친 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고모가 조용히 설명해 주었다. 할머니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사랑채에서 쉬고 있던 외할머니가 아버지 뒤를 따라 큰방으로 건너왔다. 외할머니로서는 벌써 오래전에 할머니하고 한 판 단단히 벌인 이후로 처음 있는 큰방 출입이였다.

“고맙소.”

정기가 꺼진 우묵한 눈을 치켜 간신히 외할머니를 올려다보면서 할머니는 목이 짹 메었다.

“야한티서 이야기는 다 들었소. 내가 당혀야 할 일을 사부인이 대신 맡었구랴. 그 험헌 일을 다 치르노라고 얼마나 수고시켰으꼬?”

“인자는 다 지나간 일이닝게 그런 말씀 고만두시고 어서어서 뭍이나 잘 추시리기라우.”

“고맙소, 참말로 고맙구랴.”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다. 외할머니가 그 손을 잡았다. 손을 맞잡은 채 두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문제 3] 제시문 (바)의 ‘촌장’이 제시문 (사)의 회장장 건립 여부의 결정권자가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하여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하여 쓰고, 그 선택에 대해 제시문 (아)를 근거로 옹호하거나 비판하고, 예상되는 반론에 대해 반박하시오. [40점, 600-660자]

(바) [앞부분 줄거리] 새로 파수꾼이 된 소년 ‘다’는 망루가 세워진 황야로 온다. 파수꾼 ‘가’가 망루 위에서 “이리 떼다, 이리 떼! 이리 떼가 몰려온다!”라고 외치면 파수꾼 ‘나’는 망루 아래에서 북을 두드려 마을에 알린다. 마을 사람들은 파수꾼의 북소리를 듣고 허둥대다가 지붕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거나, 우물에 빠져 죽기도 한다. 어느 날 ‘다’는 처음부터 이리 떼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사실을 적은 편지를 망루로 보급품을 날라 주는 운반인에게 부탁하여 촌장에게 보낸다. 편지를 전하기 전에 내용을 읽어 본 운반인은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퍼뜨린다.

촌장은 편지를 꺼내 다에게 보인다.

촌장 이것, 내가 보낸 거니?

다 네, 촌장님.

촌장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이 편지를 가져온 운반인이 도중에 읽어 본 모양이더라. “이리 떼는 없고, 흰 구름뿐.” 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단다. 조금 후엔 모두들 이곳으로 몰려올 거야. 물론 네 탓은 아니다. 넌 나 혼자만을 와 달라고 하지 않았니? 몰려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불청객이지. 더구나 어떤 사람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더라.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고 딸기라도 따러 가고 싶다. 이리 떼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엔 으레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단다.

다 촌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촌장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니?

다 촌장님도 아시는군요?

촌장 난 알고 있지.

다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죠? 왜 말하지 않은 거예요?

촌장 말해 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다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 “이리 떼가 몰려온다.”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는데 그게 더 좋아요?

촌장 얘야, 이리 떼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 떼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그들은 질서를 만든 거야. 질서, 그건 마을을 지켜 주는 거란다.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겐 미안해. 수천 개의 쓸모없는 텃들을 보살피고 양철 북을 요란하게 두들겼다. 허나 말이다,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만약 네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가 된다. 저 파수꾼은 늙도록 헛북이나 친 것이 되고,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 버린다. 얘야, 넌 이렇게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진 않겠지?

다 왜 제가 헛된 짓을 해요? 제가 본 흰 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저는 그걸 보여 주려는 겁니다. 이제 곧 마을 사람들이 온다죠? 잘됐어요. 저는 망루 위에 올라가서 외치겠어요. 그럼 촌장님, 저와 같이 망루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함께 외치세요.

촌장 난 마을 사람들에게 왜 이리 떼를 만들었던가, 그걸 알려 줘야 해. 그럼 그들도 날 이해해 줄 거야. (은밀한 목소리로) 얘, 네가 본 그 흰 구름 있잖니, 그건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냐?

다 아뇨. 그렇지만 난 오늘 외치고 싶어요.

촌장 그것 봐. 넌 흰 구름을 믿지도 않아. 내일이면 변할 것 같으니까, 오늘 꼭 외치려고 그러는 거지. 아하, 넌 네가 본 그 아름다운 걸 믿지도 않는구나!

다 (창백해지며) 그건, 그건 아니에요!

춘장 그래? 그럼 너는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 (괴로워하는 파수꾼 다들 껴안으며) 오늘은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나도 내일은 너를 따라 흰 구름이라 외칠 테니.

다 꼭 약속하시는 거죠?

춘장 물론 약속하지. 정말 약속한다니까.

파수꾼 다들 망루 위에 올라간다. 긴 침묵. 마침내 부르짖는다.

다 이리 떼다, 이리 떼! 이리 떼가 몰려온다!

파수꾼 가의 손이 번쩍 들리며 그도 외친다. 파수꾼 나는 신이 나서 양철 북을 두드린다. 북소리, 한동안 계속된다.

가 북소리 중지! 이리 떼는 몰려갔다!

춘장 주민 여러분! 이것으로 진상은 밝혀졌습니다. 흰 구름은 없으며 이리 떼뿐입니다. 이 망루는 영구히 유지되어야겠지요. 양철 북도 계속 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이리의 습격 때까지 잠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하여 돌아가십시오. 가시거든 마을 광장에 다시 모이시기 바랍니다. 수다쟁이 운반인의 처벌을 논의합시다. 그럼 어서 돌아가십시오. 이리 떼가 여러분을 물어뜯으러 옵니다.

(사) A시가 B산 인근에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접한 지역 주민들은 유해 물질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이 지역 주민들이 입는다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지역에 사는 한 주민은 “이 주변에서 B산 자락이 가장 공기가 좋아 15년 넘게 살고 있었는데, 화장장이라니 기가 막힌다.”라고 말하였다. 또 다른 주민은 “인구 10만 명이 사는 택지 지구에서 직선거리로 2km밖에 안 되는 곳에 화장장을 건립하면서 공청회도 열지 않아 주민들은 이를 전혀 몰랐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같은 논란에 화장장이 들어설 A시는 “건립될 시설이 최신식 첨단 설비로 건설되어 유해 물질이 허용 기준치의 10분의 1 이하로 배출되기 때문에 안전하고, 주변 주민들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할 의무도 없다.”라는 입장이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화장장 건립 저지 비상 대책 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성명서를 채택하고 대대적인 서명 작업에 들어갔다.

(아) 의무론적 윤리는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의무와 그 의무를 규정하는 도덕 규칙이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옳은 행위는 결코 위반해서는 안 되는 도덕 규칙들에 따른 행위이다. 도덕 규칙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이유는 그 행위가 가져올 결과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 규칙이 요구하는 것이 옳은 행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결과를 고려해서 하게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예상될 때에는 그 규칙을 실천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고 할지라도 결코 행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며, 아무리 나쁜 결과가 예상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실천해야만 하는 도덕 규칙들이 있다. 하지만 의무론적 윤리는 형식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우리의 실제 삶에 필요한 구체적인 행위 규칙을 제공해 줄 수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또한 행위의 결과와 행복을 도외시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결과론적 윤리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그 행위에 의해 야기된 결과를 근거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의하면 한 행위가 전체적으로 선한 결과를 야기한다면 옳은 행동이며, 악한 결과를 야기한다면 그른 행동이다. 의도가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가 악하다면 그 행위는 그른 행위가 된다. 또한 악한 의도나 동기를 가진 행위일지라도 선한 결과를 야기한다면 그 행위는 옳은 행위로 평가받는다. 결국 결과론적 윤리는 어떤 행위가 실행되기 이전에는 옳거나 그른 것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실행된 행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론적 윤리는 행위의 결과를 도덕의 기준으로 삼으므로 내면적 동기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죄가 없는 사람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 제시문 출전과 해설

- 제시문 (가) 「시장 실패의 의미와 원인」, 김종호 외 4인, 『경제』, 씨마스, 2019, 81쪽.
- 제시문 (나) 이준구, 「36.5도 인간의 경제학」, 이삼형 외 5인, 『독서』, 지학사, 2019, 64-68쪽.
- 제시문 (다) 장영희, 「미안합니다」, 한철우 외 6인, 『독서』, 비상, 2019, 85-90쪽.
- 제시문 (라) 차범석, 「성난 기계」, 민현식 외 12인, 『국어』, 좋은책신사고, 2018, 126-133쪽.
- 제시문 (마) 윤홍길, 「장마」, 박영민 외 7인, 『국어』, 비상교육, 2018, 66-78쪽.
- 제시문 (바) 이강백, 「파수꾼」, 신유식 외 9인, 『국어』, 미래엔, 2018, 40-49쪽.
- 제시문 (사) 「인간, 사회, 환경의 탐구에 통합적 관점이 필요한 이유는?」, 육근록 외 6인, 『통합사회』, 동아출판, 2018, 16쪽.
- 제시문 (아) 「옳고 그름의 기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황인표 외 9인, 『윤리와 사상』, 교학사, 2019, 145-152쪽.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변순용 외 10인, 『윤리와 사상』, 천재교과서, 2019, 137-144쪽.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경제』(씨마스, 2019)에서 ‘3. 시장 실패는 왜 발생하며, 그 대책은 무엇일까?’ 단원 중 ‘01 시장 실패의 의미와 원인’에서 발췌한 글이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시장 실패의 의미와 원인을 설명하고,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과 정부 실패, 그 보완 대책을 설명하는 것이다. 발췌한 글은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원인과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된 사례다. 해당 지문은 먼저 공유 자원의 개념을 제시하고, 공유 자원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소비되는 경향이 있음을 설명한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독서』(지학사, 2019)에 실린 이준구의 「36.5도 인간의 경제학」에서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수정·편집한 글이다. 이 글은 ‘추론적 읽기’ 단원에 수록되어 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 것이다. 「36.5도 인간의 경제학」은 전통적 경제학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실에 맞는 경제 이론과 경제 정책의 모색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글이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독서』(비상, 2019)에 실린 장영희의 「미안합니다」에서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수정·편집한 글이다. 이 작품은 ‘새롭게 바라보는 독서’ 단원 중 ‘감상적 읽기’ 영역에 수록되어 있으며, 단원의 학습 목표는 글의 내용에 공감하거나 감동한 부분을 찾으며, 글이 주는 즐거움과 깨달음을 수용하여 감상적으로 읽는 것이다. 「미안합니다」는 ‘미안합니다’라는 말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던 자신의 경험을 담은 수필이다. 이 작품에서 발췌한 제시문 (다)에는 무시당한다고 오해한 나머지 학생의 처지를 배려하지 못하고 화를 낸 일을 반성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국어』(좋은책신사고, 2018)에 수록된 차범석의 「성난 기계」에서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수정·편집한 글이다. 이 작품은 ‘삶을 담은 문학, 삶을 담아 쓰기’ 단원 중 ‘극 갈래의 이해’ 영역에 수록되어 있으며, 단원의 학습 목표는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쓰고, 이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 경험을 표현하면서 의미를 구성하고 삶의 가치를 탐색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성난 기계」는 냉정한 의사 회기가 양심을 회복하게 되는 과정을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형상화한 희곡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발췌한 제시문 (라)에는 의사 회기가 상현의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고 인간성을 회복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국어』(비상교육, 2018)에 실린 윤홍길의 「장마」를 출제 의도에 맞게 발췌하여 일부 편집, 수정하였다. 이 작품은 ‘2. 문학의 네 가지 빛깔’ 단원에 실렸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서사 갈래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며, 구성 요소와 전체의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소설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 「장마」는 6·25 전쟁으로 인한 민족적 비극과 이념적 갈등을 샤머니즘적 정서와 모성애를 통해 극복하고 화해하는 과정을 그리는 소설이다. 제시문 (마)에는 전쟁 중 돌아오지 못한 삼촌의 넋이 구령이로 나타나 돌아왔다고 믿는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등장한다. 해당 제시문에는 외할머니가 구령이를 맞아 대화를 나누고 배웅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국어』(미래엔, 2018)에 실린 이강백의 「파수꾼」을 출제 의도에 맞게 발췌하여 일부 편집한 글이다. 이 작품은 ‘1. 문학의 빛깔’ 단원 중 ‘(3) 극 갈래의 이해’에 실렸으며,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극 갈래의 개념과 특징을 알아보고, 희곡 「파수꾼」을 감상하며 문학적 형상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 작품은 권력자가 조작한 허구적 공포를 통해 유지되는 체제의 기만성과 그 진실을 은폐하려는 권력의 속성에 대한 비판을 제시하고 있다. 발췌한 부분에서 촌장은 존재하지 않는 ‘이리 떼’라는 허구적 공포를 조작하여 마을의 질서를 유지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파수꾼 소년 ‘다’를 교묘하게 회유하여 기만 체제에 동참시키고 있다.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 『통합사회』(동아출판, 2018) 교과서에 실린 「화장장 건립에 따른 갈등」을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편집한 글이다. ‘1.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단원 중 ‘(1) 인간, 사회, 환경의 탐구에 통합적 관점이 필요한 이유는?’에 실렸으며, 님비(NIMBY) 현상을 통합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주제 활동에 해당한다. 님비 현상이란 위험 시설, 기피 시설 등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는 시민들의 행동을 말하며, 제시문 (사)는 화장장 건립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역 주민의 이익이 희생되어도 좋은가에 관한 윤리적 질문을 다루고 있다.

제시문 (아)는 고등학교 『윤리와사상』(교학사, 2019)의 ‘6. 옳고 그름의 기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단원 중 ‘(1) 의무론과 칸트주의’ 그리고 ‘(2) 결과론과 공리주의’의 일부를 발췌하고, 고등학교 『윤리와사상』(천재교과서, 2019)의 ‘6.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단원 중 ‘(1) 의무론과 칸트주의’ 그리고 ‘(2) 결과론과 공리주의’의 일부를 발췌하여 통합한 글이다. 제시문 (아)는 의무론적 윤리론과 결과론적 윤리론의 특징을 비교하여 각각의 윤리 사상이 갖는 장점과 문제점을 서술하고 있다. 전자는 선한 의도와 보편성을, 후자는 좋은 결과와 유용성을 강조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각각 결과를 도외시한다거나 내면적 동기를 간과하는 등 한계를 갖는다.

2. 예시 답안

【문제 1】 제시문 (가)의 주장에 대해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20점, 300~330자]

제시문 (가)는 인간이 물질적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전제하에, 사람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유지를 과도하게 소비할 것이라 주장한다. 이 관점에서는 개인이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므로 공유 자원의 고갈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제시문 (나)에 따르면 사람들은 무임승차 기회가 있음에도 집단 전체의 바람직한 결과를 위해 사적 이익의 상당 부분을 자발적으로 양보하였다. 이는 인간이 오직 사익에만 매몰된 존재가 아님을 시사하며, 인간의 다각적인 동기를 간과한 채 공유 자원 고갈을 단정 짓는 (가)의 시각은 한계가 있다. [323자]

【문제 2】 제시문 (다)~(마)에는 화를 내는 인물이 나타난다. 제시문 (다), (라), (마)에서 인물이 화를 내는 ‘이유’와 그 이후의 ‘변화’를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00~550자]

(다)~(마)에는 각 인물이 화를 내는 상황이 나타난다. (다)의 ‘나’는 수업 중 책을 읽어보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고 다른 학생이 대신 읽는 상황을 선생인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느껴 화를 낸다. 그러나 이후 학생이 말다툼이 증세가 심해 책을 읽지 못했던 사정을 알게 되어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반성하고 미안한 감정을 느낀다. (라)의 ‘희기’는 아내의 생명보다 경제적 이득을 우선시하는 남편 상현의 비인간적인 태도에 분노한다. 이로 인해 희기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환자를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강한 의지와 직업적 사명감을 느끼는 변화를 겪게 된다. (마)의 ‘외할머니’는 구령이가 삼촌의 낯이 깃든 존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구령이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무례하게 웃음을 터뜨리는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며 화를 낸다. 이후 외할머니는 구령이를 배웅하고 갈등 관계였던 할머니의 고통에 공감하며 할머니와 적극 화해를 하게 된다. 이처럼 사람들은 모욕감, 생명 경시, 무례한 태도 등을 이유로 화를 내고, 타자 이해, 사명감 강화, 가족 화해 등의 변화를 겪는다. [539자]

【문제 3】 제시문 (바)의 ‘촌장’이 제시문 (사)의 화장장 건립 여부의 결정권자가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하여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하여 쓰고, 그 선택에 대해 제시문 (아)를 근거로 옹호하거나 비판하고, 예상되는 반론에 대해 반박하시오. [40점, 600~660자]

예시 답안 1) 옹호하는 경우:

(바)의 촌장이 (사)의 결정권자가 된다면, 화장장 건립의 사회적 유용성을 중시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촌장은 가상의 이리 떼로 주민의 희생을 요구하고 운반인을 처벌하거나 소년을 회유하며, 이를 질서 유지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한다. 이에 따라, 촌장은 화장장 건립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공익을 위한 불가피한 희생으로 강요할 것이다. 또한 불필요한 갈등 방지라는 명분으로 공청회 생략을 합리화하고, 유해 물질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은 안전성 수치를 내세워 근거 없는 기우로 치부할 것이다. 나아가 비상 대책 위원회의 활동을 사회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해 회유와 압박으로 무력화하며 사업을 완수할 것으로 예측된다. 촌장의 이러한 행보는 (아)의 결과론적 관점에 근거하여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화장장이 건립됨으로써 시민 전체가 누리게 될 이점은 화장장 건립 여부를 고려할 때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기준이기 때문이다. 물론, 의무론적 관점에서는 촌장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거나, 일부 주민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도덕적이지 않다고 비판할 수 있지만, 이는 원칙과 절차에만 집착하여 사회적 필요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시민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화장장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 [641자]

예시 답안 2) 비판하는 경우:

(바)의 촌장이 (사)의 결정권자가 된다면, 화장장 건립의 사회적 유용성을 중시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촌장은 가상의 이리 떼로 주민의 희생을 요구하고 운반인을 처벌하거나 소년을 회유하며, 이를 질서 유지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한다. 이에 따라, 촌장은 화장장 건립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공익을 위한 불가피한 희생으로 강요할 것이다. 또한 불필요한 갈등 방지라는 명분으로 공청회 생략을 합리화하고, 유해 물질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은 안전성 수치를 내세워 근거 없는 기우로 치부할 것이다. 나아가 비상 대책 위원회의 활동을 사회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해 회유와 압박으로 무력화하며 사업을 완수할 것으로 예측된다. 촌장의 이러한 행보는 (아)의 의무론적 관점에 근거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정칙과 절차 준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도덕 규칙이다. 불안을 외면하고 정보를 은폐하는 행위는, 주민을 행정 편의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물론 결과론적 관점에서는 화장장 건립이라는 사회 전체의 이득을 근거로 촌장의 결단을 옹호할 수 있다. 하지만 속임수를 이용하여 만든 질서는 시민의 신뢰를 깨뜨려, 결국 더 큰 갈등과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결과의 효율성보다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의 권리를 우선시해야 한다. [639자]

3. 채점 기준

[문제 1] 2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 (-5점)

- ①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 ②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 (20점)

1) 제시문 (가)에 제시된 공유지의 비극 개념과 제시문 (나)에 제시된 호모 에코노미쿠스 개념을 파악하여 두 개념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였는지 평가한다. (10점)

- ① 제시문 (가)에서 제시된 공유지의 비극은 개인들이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자원을 과도하게 소비하여 공유지가 결국 고갈되는 상황임을 명확하게 서술해야 함.
- ② 위에 제시된 공유지의 비극은 제시문 (나)에서 설명하고 있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전형적인 인간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서술해야 함.
- ③ 제시문 (나)에 따르면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유일한 관심은 물질적인 이윤의 극대화이므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공공재의 경우 과도하게 소비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서술해야 함.

- 공유지의 비극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를 개개인이 과도하게 소비하기 때문임을 파악하여 서술한 경우, 최대 5점 부여
- 공유지의 비극은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전형적인 인간형을 전제로 하며, 이는 인간의 유일한 관심이 물질적 이윤의 극대화라는 관점임을 파악하여 서술한 경우, 최대 5점 부여

2) 제시문 (나)의 관점을 토대로 제시문 (가)의 주장을 적절히 비판하였는지 평가한다. (10점)

- ① 제시문 (나)의 실험 결과로부터 실제로는 개인들이 사익 외에도 공동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본인의 이익 일부를 양보하므로 개인의 경제적 의사 결정이 다양한 동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추론해 서술해야 함.
- ② 개인에게 자발적 양보가 가능하므로 제시문 (가)의 주장과 달리 공유지 고갈이 필연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추론하여 서술해야 함.

- 제시문 (나)의 실험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익의 자발적인 양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경제적인 의사결정에는 물질적 이득 외에 다양한 동기가 작용한다는 점을 추론하여 썼을 경우, 최대 5점 부여
- 제시문 (나)에서 나타난 개인의 자발적 기여를 근거로 제시문 (가)가 주장하는 공유지 고갈이 필연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추론하여 서술하였을 경우, 최대 5점 부여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 최대 3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3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1]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20점)	① 제시문 (가)에 제시된 공유지의 비극 개념과 제시문 (나)에 제시된 호모 에코노미쿠스 개념을 파악하여 두 개념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였는지 평가함: 4~10점 부여	제시문 (가)의 공유지의 비극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를 개개인이 과도하게 소비하기 때문임을 파악하여 썼을 경우	2~5점
		공유지의 비극은 제시문 (나)에 나타난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전형적인 인간형을 전제로 하며, 이는 인간의 유일한 관심이 물질적 이윤 극대화와 여기는 관점임을 파악해 썼을 경우	2~5점
	② 제시문 (나)의 관점을 토대로 제시문 (가)의 주장을 적절히 비판하였는지 평가함: 4~10점 부여	제시문 (나)의 실험 결과에서 나타난 자발적인 양보 경향을 근거로, 경제적인 의사결정에는 물질적 이득 외에 다양한 동기가 작용한다는 점을 추론하여 썼을 경우	2~5점
		제시문 (나)에 나타난 개인의 자발적 기여를 근거로 제시문 (가)가 주장하는 공유지 고갈이 필연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추론하여 서술하였을 경우	2~5점

[문제 2] 40점 만점**1. 기술적(記述的) 측면 (-5점)**

- ①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②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 (40점)**1) 제시문 (다), (라), (마)에 등장하는 인물이 화를 내는 ‘이유’와 그 이후 나타난 ‘변화’를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33점)**

(다) **이유:** 수업 중 책을 읽어보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고 다른 학생이 대신 읽는 상황을 선생인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느낌. (5점)

변화: 학생이 말더듬이 증세가 심해 책을 읽지 못했던 사정을 알게 되어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반성하고 미안한 감정을 느낌. (6점)

(라) **이유:** 아내의 생명보다 경제적 이득을 우선시하는 남편 상현의 비인간적인 태도에 분노함. (5점)

변화: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환자를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강한 의지와 직업적 사명감을 느낌. (6점)

(마) **이유:** 구령이가 삼촌의 낯이 갠 존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구령이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웃는 사람들의 무례함에 호통을 치며 화를 냄. (5점)

변화: 구령이를 배웅하고 갈등 관계였던 할머니의 고통에 공감하며 할머니와 극적 화해를 하게 됨. (6점)

2) 세 개의 제시문에서 등장인물이 화를 내는 ‘이유’와 그 이후 나타난 ‘변화’를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서론/본론/결론)로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답안이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 구성을 갖추고 있고(3점), 결론 부분에서 각 제시문의 차이가 핵심적 표현으로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4점)

- ① 화를 내게 된 이유에 대한 핵심적 표현: 모욕감, 생명 경시, 무례한 태도
 ② 화를 낸 후 인물에게 나타난 변화에 대한 핵심적 표현: 타자 이해, 사명감 강화, 가족 화해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2]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각 제시문에서 등장인물이 화를 내게 된 이유와 그 이후 인물에게 나타난 변화를 찾아 제시 (33점)	관련 내용이 부재하거나 모두 틀린 경우	0점
		1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5~11점
		2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12~22점
		3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23~33점
	② 논리적 구성(3점)과 결론 제시 (4점)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	1~3점
		본론의 내용을 결론으로 잘 도출하여 요약했는지 여부	2~4점

[문제 3] 40점 만점**1. 기술적(記述的) 측면 (-5점)**

- ①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②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 (40점)**1) 제시문 (바)의 ‘촌장’이 제시문 (사)의 화장장 건립 여부의 결정권자가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하여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한다. (20점)**

- ① (바)의 촌장이 (사)의 결정권자가 된다면 해당 사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함. (4점)
 ② 행동 1)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할 것을 요구함. (4점)
 ③ 행동 2) 공청회 생략에 대해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합리화 함. (4점)
 ④ 행동 3) 설비의 안전성 수치를 근거로 주민들의 불안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치부함. (4점)
 ⑤ 행동 4) 비대위의 행동을 사회 질서 교란 행위로 규정함. (4점)

2) 결정권자의 선택에 대해 제시문 (아)를 근거로 옹호하거나 비판하되, 이에 반박하는 입장의 논리도 언급하여 설득력있게 반박한다. (20점)

- ① 옹호 혹은 비판할 때 근거가 되는 윤리관을 혼동하지 않고 정확히 이해함. 즉 결과론적 관점에 따라 옹호하거나, 혹은 의무론적 관점에 따라 비판함. (4점)
- ② 옹호 혹은 비판의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함. (4점)
 - 1) 옹호할 경우 전체의 이익을 중시한다는 사실을 밝힘.
 - 2) 비판할 경우 원칙의 준수를 중시한다는 사실을 밝힘.
- ③ 선택한 견해에 따라 예상 가능한 반박 논거를 이해함. (4점)
 - 1) 옹호할 경우 의무론적 관점에 근거한 비판이 예상됨. ②-2)
 - 2) 비판할 경우 결과론적 관점에 근거한 비판이 예상됨. ②-1)
- ④ 상대의 반박을 고려하여 본인의 주장을 당위성을 주장함. (6점)
 - 1) 옹호할 경우, 공공의 이익이라는 현실적 관점을 강조하여 본인의 주장을 정당화함.
 - 2) 비판할 경우, 절차적 정당성과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본인의 주장을 정당화함.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 최대 3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3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3]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바)의 '총장'이 (사)의 결정권자가 되었을 때의 선택과 행동 양상을 예측함 (20점)	(바)의 총장이 (사)의 결정권자가 될 경우 결과론적 윤리관에 입각하여 사업을 강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음.	4점
		(사)의 지문을 근거로 발생할 수 있는 4가지 갈등 상황을 파악하고 (바)의 내용을 바탕으로 적용할 수 있음.	항목당 4점, 총 16점
	② 결정권자의 선택에 대해 제시문 (아)를 근거로 옹호하거나 비판하되, 반대 입장의 논리도 언급함 (20점)	옹호 혹은 비판의 근거를 혼동하지 않고 밝힘.	4점
		옹호 혹은 비판의 이유를 분명히 제시함.	5점
		선택한 견해에 대해 예상되는 반대 입장의 내용을 이해함.	5점
		반론의 핵심을 정확히 짚고, 본인 주장의 당위성을 정확하게 반박함 (6점), 반대 입장을 언급했으나 본인 주장을 되풀이 할 경우는 (3점)	3~6점

2027학년도 모의논술 문제(창의형) 경영경제계열

[문제 1] 제시문 (가)~(다)에는 화를 내는 인물이 나타난다. 제시문 (가), (나), (다)에서 인물이 화를 내는 ‘이유’와 그 이후의 ‘변화’를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00~550자]

- (가)** 지난주, 19세기 미국 소설 강의 시간에, 나는 한 학생에게 「주홍 글씨」의 첫 장면을 읽도록 시켰다.
 “김영수, 23쪽 첫째 단락을 읽어 보세요.”
 그러나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래서 다시 되풀이했다.
 “23쪽 첫째 문단 말이야.”
 또다시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러더니 갑자기 영수가 아닌 서훈이가 책을 읽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단지 의아해했지만 가만히 생각하니 은근히 부아가 치밀었다. 학기가 시작되고 두어 달이 지났으니 모든 학생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학생들 또한 내가 자기들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호명한 영수가 아닌 서훈이가 책을 읽을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나에 대한 반항이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 모욕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나는 화를 눌러 참고 책을 다 읽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냉담하게 말했다.
 “지금 책 읽은 학생이 김영수예요?”
 나는 정색을 하고 선생으로서의 위엄과 자존심을 건드린 두 사람을 노려보았다.
 “자기 이름들도 몰라요? 결석한 친구 대신 대리 대답하는 학생들이 있다더니, 그렇게 하는 것이 아예 버릇이 돼서 이젠 친구 이름을 자기 이름인 줄로 착각할 정도인가?”
 나는 야유까지 했다.
 영수와 서훈이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어서 강의를 계속했지만, 수업이 끝나고도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그리고 오후에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학생 하나가 찾아와 진상을 알려 주었다. 김영수는 아주 심각한 말더듬이 증세를 갖고 있고, 그 증세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거나 읽거나 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더욱 악화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아까 갑자기 말문이 막혀 책을 읽을 수도, 그렇다고 말을 더듬어서 못 읽겠다고 설명할 수도 없는 처지였을 것이고, 그 사정을 잘 아는 서훈이가 당황하는 친구를 도와주려고 대신 읽었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정말이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어렸을 때 나도 한때 말더듬이 비슷한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영수가 느꼈을 충격과 고뇌, 그리고 수업 시간 이후의 기분을 잘 알 수 있었다. 미안하다고 해야겠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 (나)** **[앞부분 줄거리]** 폐 전문 외과 의사인 양회기는 폐 질환을 앓고 있는 김인옥으로부터 수술을 요청받지만, 병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며 거절한다. 인옥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꼭 살아야 한다며 수술을 간청하지만, 회기는 수술 결과가 나쁠 경우에 받을 원망과 책임감을 의식하여 인옥을 냉정하게 대한다. 얼마 후 인옥의 남편인 상현이 회기를 찾아온다. 그는 회기가 인옥의 수술을 거절했다는 말에 안심하면서, 성공 가능성이 낮은 수술을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며 아내의 폐 수술을 해 주지 말 것을 거듭 당부한다.
- 회기** (추궁하듯) 부인을 미워하시오?
상현 미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와 어린것들이 벌써 오래전부터 그 덕으로 살아왔는데……. (하며 고통스러운 빛으로 입술을 깨문다.)
회기 그러나 선생께서 수술을 반대하는 이유를 나는 이해할 수 없는데요…….

상현 수술을 해서 몸이 회복된다면 내 아내는 더 불행해질 거예요. 그리고 나도…….

회기 아니, 불행해지다니……. 건강해야 더 벌어서 아이들도 편하게……. 어찌 되었든 부인 때문에 온 식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오?

상현 (눈물을 글썽거리며) 아내는 항상 나를 무능하다고 빈정대지만…… 그렇지만 나는 그런 아내에게 대해서 한마디 대꾸도 못하는 바보였죠…….

회기 (미심쩍게) 내가 알기엔 부인께서는 가족을 위해서 수술을 받아야겠다고 한사코 고집하는 것을…….

상현 아닙니다. 그건…….

회기 (조용하나 위엄 있게) 그렇지만, 내버려 두면 부인께서 어떻게 된다는 건 아시고 계시죠?

상현 별수 없죠. 죽고 사는 건 인력으로 막을 수 없으니까.

회기 (뭉클 불쾌감이 솟으며) 아니, 그럼 부인이 죽어도 괜찮단 말ियो?

상현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그대로 두는 게죠. 그 돈이 있으면 나와 어린것들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회기 (노골적으로 분노를 터뜨리며) 그건 너무 심하지 않소?

상현 심한 건 내 아내죠. 그 병이 어떤 병이라고 수술을 합니까? 그것도 공으로 한다면 또 모르지만, 돈 쓰고 저 죽고 하면, 남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회기 (외치며) 그건 살인이나 다름없소!

(이 말이 떨어지자 금숙은 의아한 표정으로 회기를 쳐다본다.)

상현 뭐라구요? (일어서서 손가방을 쥐며) 아무튼 실례했습니다. (하며 문을 닫고 나가 버린다.)

(회기는 감전된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고 금숙은 회기를 주시하고만 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회기 (여전히 허공을 바라보며) 정 간호사! 아까 그 환자의 주소 알지!

금숙 예, 접수부를 보면…….

회기 좋아! 그럼 속달 우편으로 보내요. 수술을 받고 싶으면 편지 받는 즉시 찾아오라고!

금숙 (놀란 표정으로) 아니, 그렇지만…….

회기 (속삭이듯) 자신은 있어! 그 대신 수혈용 혈액을 충분히 준비할 것을 잊지 마! 알겠어? 이번 환자는 꼭 살려 보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군!

(다) [앞부분 줄거리] 육이오 전쟁으로 ‘나’의 외가 식구들이 친가 식구들과 같이 살고 있던 ‘나’의 집으로 피란을 오면서 모두 함께 살게 된다.

삼촌은 빨치산, 외삼촌은 국군이어서 서로 거북한 상황이었지만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다툼 없이 잘 지낸다. 그러다가 외삼촌의 전사 소식이 날아들자, 상심한 외할머니는 장맛비가 쏟아지는 하늘을 향해 빨갱이를 다 쏘어버리라고 저주를 퍼붓는다. 삼촌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던 할머니는 이것을 삼촌이 죽어 버렸으면 좋겠다는 말로 받아들여 외할머니와 큰 싸움을 벌인다. 그 뒤로 빨치산과 국군의 전투가 벌어지고 빨치산의 주검을 읍내에 늘어놓았다는 소식이 들리자, 식구들은 삼촌이 죽었을 것이라는 체념에 빠진다. 그러나 할머니는 삼촌이 살아 돌아온다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신앙처럼 믿으면서 삼촌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식구들을 채근한다. 점쟁이가 삼촌이 살아 돌아오는 날이라고 말해 준 그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할머니는 밤새도록 등을 환하게 밝혀 놓으라고 한다.

우리는 우리가 대문 쪽을 향해 오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이내 함성을 들었다. 꿈틀꿈틀 기어 오는 기다란 것이 거기에 있었다. 눈어림으로만도 사람 키보다 훨씬 큰 한 마리의 구렁이었다. 동시에 쩌지는 듯한 비명이 등 뒤에서 들렸다.

“아악!”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마치 흰 옷가지가 구겨져 흘러내리듯 그렇게 마루 위로 고꾸라지는 할머니의 모습을

나는 목격했다. 식구들이 모두 안방에만 매달려 수족을 주무르고 얼굴에 찬물을 뿜어대는 등 야단법석을 떨어 가며 할머니가 어서 깨어나기를 빌었다.

고비에 다다른 혼란의 사이를 틈탄 구렁이는 아욱과 상추가 자라고 있는 텃밭 이랑을 지나 어느새 감나무에 올라앉아 있었다. 그러자 외할머니는 천천히 감나무 아래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에구 이 사람아, 집안일이 못 잊어서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왔는가?”

꼭 물어 보려는 아이한테 자장가라도 불러 주는 투로 조용히 속삭이는 그 말을 듣고 누군가 큰 소리로 웃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자 외할머니의 눈이 단박에 세모꼴로 변했다.

“어떤 창사구 빠진 잡놈이 그렇게 히득거리고 섰냐? 누구냐? 어서 이리 썩 나오니라. 주리 댈 놈!”

외할머니의 대갈 호령에 사람들은 쥐 죽은 소리도 못 했다. 외할머니는 몸을 돌려 다시 구렁이를 상대로 했다.

“자네 보다시피 노친께서는 기력이 여전하시고 따른 식구들도 모다덜 잘 지내고 있네. 그러니께 집안일일랑 아모 염려 말고 어서어서 자네 가야 할 디로 가소.”

외할머니는 꼭 산 사람을 대하듯 위를 올려다보면서 조용조용히 말을 건네고 있었다.

감나무 가지를 친친 감았던 몸뚱이가 스르르 풀리면서 구렁이는 땅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떨어진 자리에서 잠시 머뭇거린 다음, 구렁이는 꿈틀꿈틀 기어 외할머니 앞으로 다가왔다. 외할머니가 한쪽으로 비켜서면서 길을 터 주었다. 그것은 방향을 바꾸어 헛간과 부엌 사이 공지를 천천히 지나갔다.

“고맙네, 이 사람! 집안일은 죄다 성님한테 맡기고 자네 혼자 몸뚱이나 지발 성혀서 먼 길을 편안히 가소. 뒷일은 아모 염려 말고 그저 편안히 가소. 증말 고맙네, 이 사람아.”

장마철에 무성히 돌아난 죽순과 대나무 사이로 모습을 완전히 감추기까지 외할머니는 우물결에 서서 마지막 당부의 말로 구렁이를 배웅하고 있었다.

졸도한 지 서너 시간 만에야 겨우 할머니는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다.

“갔냐?”

이것이 맑은 정신을 되찾고 나서 맨 처음 할머니가 꺼낸 말이었다. 할머니가 까무러친 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고모가 조용히 설명해 주었다. 할머니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사랑채에서 쉬고 있던 외할머니가 아버지 뒤를 따라 큰방으로 건너왔다. 외할머니로서는 벌써 오래전에 할머니하고 한 판 단단히 벌인 이후로 처음 있는 큰방 출입이었다.

“고맙소.”

정기가 꺼진 우묵한 눈을 치켜 간신히 외할머니를 올려다보면서 할머니는 목이 꼭 메었다.

“야한티서 이야기는 다 들었소. 내가 당혀야 할 일을 사부인이 대신 맡었구랴. 그 험헌 일을 다 치르노라고 얼마나 수고시켰으꼬?”

“인자는 다 지나간 일이닝게 그런 말씀 고만두시고 어서어서 뭍이나 잘 추시리기라우.”

“고맙소, 참말로 고맙구랴.”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다. 외할머니가 그 손을 잡았다. 손을 맞잡은 채 두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문제 2] 제시문 (라)의 ‘촌장’이 제시문 (마)의 회장장 건립 여부의 결정권자가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하여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하여 쓰고, 그 선택에 대해 제시문 (바)를 근거로 옹호하거나 비판하고, 예상되는 반론에 대해 반박하시오. [40점, 600-660자]

(라) [앞부분 줄거리] 새로 파수꾼이 된 소년 ‘다’는 망루가 세워진 황야로 온다. 파수꾼 ‘가’가 망루 위에서 “이리 떼다, 이리 떼! 이리 떼가 몰려온다!”라고 외치면 파수꾼 ‘나’는 망루 아래에서 북을 두드려 마을에 알린다. 마을 사람들은 파수꾼의 북소리를 듣고 허둥대다가 지붕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거나, 우물에 빠져 죽기도 한다. 어느 날 ‘다’는 처음부터 이리 떼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사실을 적은 편지를 망루로 보급품을 날라 주는 운반인에게 부탁하여 촌장에게 보낸다. 편지를 전하기 전에 내용을 읽어 본 운반인은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퍼뜨린다.

촌장은 편지를 꺼내 다에게 보인다.

촌장 이것, 내가 보낸 거니?

다 네, 촌장님.

촌장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이 편지를 가져온 운반인이 도중에 읽어 본 모양이더라. “이리 떼는 없고, 흰 구름뿐.” 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단다. 조금 후엔 모두들 이곳으로 몰려올 거야. 물론 네 탓은 아니다. 넌 나 혼자만을 와 달라고 하지 않았니? 몰려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불청객이지. 더구나 어떤 사람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더라.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고 딸기라도 따러 가고 싶다. 이리 떼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엔 으레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단다.

다 촌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촌장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니?

다 촌장님도 아시는군요?

촌장 난 알고 있지.

다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죠? 왜 말하지 않은 거예요?

촌장 말해 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다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 “이리 떼가 몰려온다.”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는데 그게 더 좋아요?

촌장 얘야, 이리 떼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 떼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그들은 질서를 만든 거야. 질서, 그건 마을을 지켜 주는 거란다.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겐 미안해. 수천 개의 쓸모없는 뿔들을 보살피고 양철 북을 요란하게 두들겼다. 허나 말이다,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만약 네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가 된다. 저 파수꾼은 늙도록 헛북이나 친 것이 되고,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 버린다. 얘야, 넌 이렇게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진 않겠지?

다 왜 제가 헛된 짓을 해요? 제가 본 흰 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저는 그걸 보여 주려는 겁니다. 이제 곧 마을 사람들이 온다죠? 잘됐어요. 저는 망루 위에 올라가서 외치겠어요. 그럼 촌장님, 저와 같이 망루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함께 외치세요.

촌장 난 마을 사람들에게 왜 이리 떼를 만들었던가, 그걸 알려 줘야 해. 그럼 그들도 날 이해해 줄 거야. (은밀한 목소리로) 얘, 네가 본 그 흰 구름 있잖니, 그건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냐?

다 아뇨. 그렇지만 난 오늘 외치고 싶어요.

촌장 그것 봐. 넌 흰 구름을 믿지도 않아. 내일이면 변할 것 같으니까, 오늘 꼭 외치려고 그러는 거지. 아하, 넌 네가 본 그 아름다운 걸 믿지도 않는구나!

다 (창백해지며) 그건, 그건 아니에요!

춘장 그래? 그럼 너는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 (괴로워하는 파수꾼 다들 껴안으며) 오늘은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나도 내일은 너를 따라 흰 구름이라 외칠 테니.

다 꼭 약속하시는 거죠?

춘장 물론 약속하지. 정말 약속한다니까.

파수꾼 다들 망루 위에 올라간다. 긴 침묵. 마침내 부르짖는다.

다 이리 떼다, 이리 떼! 이리 떼가 몰려온다!

파수꾼 거의 손이 번쩍 들리지며 그도 외친다. 파수꾼 나는 신이 나서 양철 북을 두드린다. 북소리, 한동안 계속된다.

가 북소리 중지! 이리 떼는 몰려갔다!

춘장 주민 여러분! 이것으로 진상은 밝혀졌습니다. 흰 구름은 없으며 이리 떼뿐입니다. 이 망루는 영구히 유지되어야겠지요. 양철 북도 계속 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이리의 습격 때까지 잠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하여 돌아가십시오. 가시거든 마을 광장에 다시 모이시기 바랍니다. 수다쟁이 운반인의 처벌을 논의합니다. 그럼 어서 돌아가십시오. 이리 떼가 여러분을 물어뜯으러 옵니다.

(마) A시가 B산 인근에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접한 지역 주민들은 유해 물질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이 지역 주민들이 입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지역에 사는 한 주민은 “이 주변에서 B산 자락이 가장 공기가 좋아 15년 넘게 살고 있었는데, 화장장이란니 기가 막힌다.”라고 말하였다. 또 다른 주민은 “인구 10만 명이 사는 택지 지구에서 직선거리로 2km밖에 안 되는 곳에 화장장을 건립하면서 공청회도 열지 않아 주민들은 이를 전혀 몰랐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같은 논란에 화장장이 들어설 A시는 “건립될 시설이 최신식 첨단 설비로 건설되어 유해 물질이 허용 기준치의 10분의 1 이하로 배출되기 때문에 안전하고, 주변 주민들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할 의무도 없다.”라는 입장이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화장장 건립 저지 비상 대책 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성명서를 채택하고 대대적인 서명 작업에 들어갔다.

(바) 의무론적 윤리는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의무와 그 의무를 규정하는 도덕 규칙이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옳은 행위는 결코 위반해서는 안 되는 도덕 규칙들에 따른 행위이다. 도덕 규칙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이유는 그 행위가 가져올 결과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 규칙이 요구하는 것이 옳은 행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결과를 고려해서 하게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예상될 때에는 그 규칙을 실천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고 할지라도 결코 행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며, 아무리 나쁜 결과가 예상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실천해야만 하는 도덕 규칙들이 있다. 하지만 의무론적 윤리는 형식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우리의 실제 삶에 필요한 구체적인 행위 규칙을 제공해 줄 수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또한 행위의 결과와 행복을 도외시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결과론적 윤리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그 행위에 의해 야기된 결과를 근거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의하면 한 행위가 전체적으로 선한 결과를 야기한다면 옳은 행동이며, 악한 결과를 야기한다면 그른 행동이다. 의도가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가 악하다면 그 행위는 그른 행위가 된다. 또한 악한 의도나 동기를 가진 행위일지라도 선한 결과를 야기한다면 그 행위는 옳은 행위로 평가받는다. 결국 결과론적 윤리는 어떤 행위가 실행되기 이전에는 옳거나 그른 것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실행된 행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론적 윤리는 행위의 결과를 도덕의 기준으로 삼으므로 내면적 동기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죄가 없는 사람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 어느 기업의 제품 생산 공정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이 상황에 기초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풀이 과정 포함)

- 이 공정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에너지 효율에 따라 1, 2, 3 (등급) 중 하나로 판정된다. 등급 변동성을 평가하기 위해 임의추출한 3개 제품의 등급을 각각 판정한 후, 이 중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를 확률변수 X 라 하고 그 기댓값을 E 라 하자. (단, 각 등급으로 판정될 확률은 동일하다.)
- 이 공정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성능지표는 평균이 m 이고 표준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생산된 제품 중 10개를 새롭게 임의추출할 때, 성능지표의 표본평균을 Y 라고 하자.
- 이 공정의 경제적 가치 V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V = 10Y^2 - aE - 20m \quad (\text{단, } a > 0 \text{ 인 실수})$$

- 관리자는 $1 \leq m \leq 10$ 인 범위에서 평균 m 을 전략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문제 3] 관리자가 V 의 기댓값을 최대화하도록 m 을 선택했을 때, V 의 기댓값이 800 이상이 되도록 하는 a 의 최댓값을 구하시오.
[20점, 원고지 작성법을 준수할 필요 없음]

1. 제시문 출전과 해설

- 제시문 (가) 「시장 실패의 의미와 원인」, 김종호 외 4인, 『경제』, 씨마스, 2019, 81쪽.
- 제시문 (나) 이준구, 「36.5도 인간의 경제학」, 이삼형 외 5인, 『독서』, 지학사, 2019, 64-68쪽.
- 제시문 (가) 장영희, 「미안합니다」, 한철우 외 6인, 『독서』, 비상, 2019, 85-90쪽.
- 제시문 (나) 차범석, 「성난 기계」, 민현식 외 12인, 『국어』, 좋은책신사고, 2018, 126-133쪽.
- 제시문 (다) 윤홍길, 「장마」, 박영민 외 7인, 『국어』, 비상교육, 2018, 66-78쪽.
- 제시문 (라) 이강백, 「파수꾼」, 신유식 외 9인, 『국어』, 미래엔, 2018, 40-49쪽.
- 제시문 (마) 「인간, 사회, 환경의 탐구에 통합적 관점이 필요한 이유는?」, 육근록 외 6인, 『통합사회』, 동아출판, 2018, 16쪽.
- 제시문 (바) 「옳고 그름의 기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황인표 외 9인, 『윤리와 사상』, 교학사, 2019, 145-152쪽.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변순용 외 10인, 『윤리와 사상』, 천재교과서, 2019, 137-144쪽.
- 「II-2-2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이준열 외 7인, 『수학』, 천재교육, 2022, 67-72쪽.
- 「II-2-3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배종숙 외 6인, 『수학』, 금성출판사, 2019, 74-77쪽.
- 「II-2-2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권오남 외 7인, 『수학』, 교학사, 2023, 65-67쪽.
- 「II-2-3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고성은 외 5인, 『수학』, 좋은책신사고, 2023, 64-67쪽.
- 「III-1-1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고성은 외 5인, 『확률과 통계』, 좋은책신사고, 2023, 79-84쪽.
- 「III-1-1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권오남 외 14인, 『확률과 통계』, 교학사, 2023, 82-88쪽.
- 「III-1-1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배종숙 외 6인, 『확률과 통계』, 금성출판사, 2019, 93-98쪽.
- 「III-1-1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이준열 외 7인, 『확률과 통계』, 천재교육, 2022, 83-89쪽.
- 「III-1-2 이산확률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고성은 외 5인, 『확률과 통계』, 좋은책신사고, 2022, 84-90쪽.
- 「III-1-2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과 표준편차」, 권오남 외 14인, 『확률과 통계』, 교학사, 2023, 89-95쪽.
- 「III-1-2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과 표준편차」, 배종숙 외 6인, 『확률과 통계』, 금성출판사, 2019, 99-102쪽.
- 「III-1-2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과 표준편차」, 이준열 외 7인, 『확률과 통계』, 천재교육, 2022, 91-96쪽.
- 「III-1-4 정규분포」, 고성은 외 5인, 『확률과 통계』, 좋은책신사고, 2020, 97-105쪽.
- 「III-1-4 정규분포」, 황선욱 외 9인, 『확률과 통계』, 미래엔, 2020, 97-104쪽.
- 「III-1-4 정규분포」, 권오남 외 14인, 『확률과 통계』, 교학사, 2020, 102-108쪽.
- 「III-1-5 정규분포」, 배종숙 외 6인, 『확률과 통계』, 금성출판사, 2019, 114-120쪽.
- 「III-1-4 정규분포와 그 성질」, 이준열 외 7인, 『확률과 통계』, 천재교육, 2022, 104-110쪽.
- 「III-2-1 모집단과 표본」, 고성은 외 5인, 『확률과 통계』, 좋은책신사고, 2020, 110-116쪽.
- 「III-2-2 모평균과 표본평균」, 권오남 외 14인, 『확률과 통계』, 교학사, 2020, 118-122쪽.
- 「III-2-1 모집단과 표본」, 배종숙 외 6인, 『확률과 통계』, 금성출판사, 2019, 126-130쪽.
- 「III-2-1 모집단과 표본」, 이준열 외 7인, 『확률과 통계』, 천재교육, 2022, 115-120쪽.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경제』(씨마스, 2019)에서 '3. 시장 실패는 왜 발생하며, 그 대책은 무엇일까?' 단원 중 '01 시장 실패의 의미와 원인'에서 발췌한 글이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시장 실패의 의미와 원인을 설명하고,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과 정부 실패, 그 보완 대책을 설명하는 것이다. 발췌한 글은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원인과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된 사례다. 해당 지문은 먼저 공유 자원의 개념을 제시하고, 공유 자원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소비되는 경향이 있음을 설명한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독서』(지학사, 2019)에 실린 이준구의 「36.5도 인간의 경제학」에서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수정·편집한 글이다. 이 글은 '추론적 읽기' 단원에 수록되어 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 것이다. 「36.5도 인간의 경제학」은 전통적 경제학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실에 맞는 경제 이론과 경제 정책의 모색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글이다.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독서』(비상, 2019)에 실린 장영희의 「미안합니다」에서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수정·편집한 글이다. 이 작품은 '새롭게 바라보는 독서' 단원 중 '감상적 읽기' 영역에 수록되어 있으며, 단원의 학습 목표는 글의 내용에 공감하거나 감동한 부분을 찾으려 하며, 글이 주는 즐거움과

깨달음을 수용하여 감상적으로 읽는 것이다. 「미안합니다」는 「미안합니다」라는 말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던 자신의 경험을 담은 수필이다. 이 작품에서 발췌한 제시문 (가)에는 무시당한다고 오해한 나머지 학생의 처지를 배려하지 못하고 화를 낸 일을 반성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국어』(좋은책신사고, 2018)에 수록된 차범석의 「성난 기계」에서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수정·편집한 글이다. 이 작품은 ‘삶을 담은 문학, 삶을 담아 쓰기’ 단원 중 ‘극 갈래의 이해’ 영역에 수록되어 있으며, 단원의 학습 목표는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쓰고, 이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 경험을 표현하면서 의미를 구성하고 삶의 가치를 탐색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성난 기계」는 냉정한 의사 회기가 양심을 회복하게 되는 과정을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형상화한 희곡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발췌한 제시문 (나)에는 의사 회기가 상현의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고 인간성을 회복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국어』(비상교육, 2018)에 실린 윤홍길의 「장마」를 출제 의도에 맞게 발췌하여 일부 편집, 수정하였다. 이 작품은 ‘2. 문학의 네 가지 빛깔’ 단원에 실렸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서사 갈래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며, 구성 요소와 전체의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소설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 「장마」는 6·25 전쟁으로 인한 민족적 비극과 이념적 갈등을 사머니즘적 정서와 모성애를 통해 극복하고 화해하는 과정을 그리는 소설이다. 제시문 (다)는 전쟁 중 돌아오지 못한 삼촌의 녀이 구렁이로 나타나 돌아왔다고 믿는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등장한다. 해당 제시문에는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맞아 대화를 나누고 배웅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국어』(미래엔, 2018)에 실린 이강백의 「파수꾼」을 출제 의도에 맞게 발췌하여 일부 편집한 글이다. 이 작품은 ‘1. 문학의 빛깔’ 단원 중 ‘(3) 극 갈래의 이해’에 실렸으며,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극 갈래의 개념과 특징을 알아보고, 희곡 「파수꾼」을 감상하며 문학적 형상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 작품은 권력자가 조작한 허구적 공포를 통해 유지되는 체제의 기만성과 그 진실을 은폐하려는 권력의 속성에 대한 비판을 제시하고 있다. 발췌한 부분에서 총장은 존재하지 않는 ‘이리 떼’라는 허구적 공포를 조작하여 마을의 질서를 유지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파수꾼 소년 ‘다’를 교묘하게 회유하여 기만 체제에 동참시키고 있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통합사회』(동아출판, 2018) 교과서에 실린 「화장장 건립에 따른 갈등」을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편집한 글이다. ‘1.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단원 중 ‘(1) 인간, 사회, 환경의 탐구에 통합적 관점이 필요한 이유는?’에 실렸으며, 님비(NIMBY) 현상을 통합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주제 활동에 해당한다. 님비 현상이란 위험 시설, 기피 시설 등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는 시민들의 행동을 말하며, 제시문 (마)는 화장장 건립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역 주민의 이익이 희생되어도 좋은가에 관한 윤리적 질문을 다루고 있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윤리와사상』(교학사, 2019)의 ‘6. 옳고 그름의 기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단원 중 ‘(1) 의무론과 칸트주의’ 그리고 ‘(2) 결과론과 공리주의’의 일부를 발췌하고, 고등학교 『윤리와사상』(천재교과서, 2019)의 ‘6.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단원 중 ‘(1) 의무론과 칸트주의’ 그리고 ‘(2) 결과론과 공리주의’의 일부를 발췌하여 통합한 글이다. 제시문 (바)는 의무론적 윤리론과 결과론적 윤리론의 특징을 비교하여 각각의 윤리 사상이 갖는 장점과 문제점을 서술하고 있다. 전자는 선한 의도와 보편성을, 후자는 좋은 결과와 유용성을 강조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각각 결과를 도외시한다거나 내면적 동기를 간과하는 등 한계를 갖는다.

2. 예시 답안

【문제 1】 제시문 (가)~(다)에는 화를 내는 인물이 나타난다. 제시문 (가), (나), (다)에서 인물이 화를 내는 ‘이유’와 그 이후의 ‘변화’를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00~550자]

(가)~(다)에는 각 인물이 화를 내는 상황이 나타난다. (가)의 ‘나’는 수업 중 책을 읽어보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고 다른 학생이 대신 읽는 상황을 선생인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느껴 화를 낸다. 그러나 이후 학생이 말더듬이 증세가 심해 책을 읽지 못했던 사정을 알게 되어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반성하고 미안한 감정을 느낀다. (나)의 ‘회기’는 아내의 생명보다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남편 상현의 비인간적인 태도에 분노한다. 이로 인해 회기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환자를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강한 의지와 직업적 사명감을 느끼는 변화를 겪게 된다. (다)의 ‘외할머니’는 구렁이가 삼촌의 녀이 깃든 존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구렁이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무례하게 웃음을 터뜨리는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며 화를 낸다. 이후 외할머니는 구렁이를 배웅하고 갈등 관계였던 할머니의 고통에 공감하며 할머니와 적극 화해를 하게 된다. 이처럼 사람들은 모욕감, 생명 경시, 무례한 태도 등을 이유로 화를 내고, 타자 이해, 사명감 강화, 가족 화해 등의 변화를 겪는다. [539자]

【문제 2】 제시문 (라)의 ‘총장’이 제시문 (마)의 화장장 건립 여부의 결정권자가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하여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하여 쓰고, 그 선택에 대해 제시문 (바)를 근거로 옹호하거나 비판하고, 예상되는 반론에 대해 반박하시오. [40점, 600~660자]

예시 답안 1) 옹호하는 경우:

(라)의 촌장이 (마)의 결정권자가 된다면, 화장장 건립의 사회적 유용성을 중시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촌장은 가상의 이리 떼로 주민의 희생을 요구하고 운반인을 처벌하거나 소년을 회유하며, 이를 질서 유지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한다. 이에 따라, 촌장은 화장장 건립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공익을 위한 불가피한 희생으로 강요할 것이다. 또한 불필요한 갈등 방지라는 명분으로 공청회 생략을 합리화하고, 유해 물질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은 안전성 수치를 내세워 근거 없는 기우로 치부할 것이다. 나아가 비상 대책 위원회의 활동을 사회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해 회유와 압박으로 무력화하며 사업을 완수할 것으로 예측된다. 촌장의 이러한 행보는 (바)의 결과론적 관점에 근거하여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화장장이 건립됨으로써 시민 전체가 누리게 될 이점은 화장장 건립 여부를 고려할 때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기준이기 때문이다. 물론, 의무론적 관점에서는 촌장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거나, 일부 주민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도덕적이지 않다고 비판할 수 있지만, 이는 원칙과 절차에만 집착하여 사회적 필요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시민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화장장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 [641자]

예시 답안 2) 비판하는 경우:

(라)의 촌장이 (마)의 결정권자가 된다면, 화장장 건립의 사회적 유용성을 중시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촌장은 가상의 이리 떼로 주민의 희생을 요구하고 운반인을 처벌하거나 소년을 회유하며, 이를 질서 유지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한다. 이에 따라, 촌장은 화장장 건립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공익을 위한 불가피한 희생으로 강요할 것이다. 또한 불필요한 갈등 방지라는 명분으로 공청회 생략을 합리화하고, 유해 물질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은 안전성 수치를 내세워 근거 없는 기우로 치부할 것이다. 나아가 비상 대책 위원회의 활동을 사회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해 회유와 압박으로 무력화하며 사업을 완수할 것으로 예측된다. 촌장의 이러한 행보는 (바)의 의무론적 관점에 근거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정직과 절차 준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도덕 규칙이다. 불안을 외면하고 정보를 은폐하는 행위는, 주민을 행정 편의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물론 결과론적 관점에서는 화장장 건립이라는 사회 전체의 이득을 근거로 촌장의 결단을 옹호할 수 있다. 하지만 속임수를 이용하여 만든 질서는 시민의 신뢰를 깨뜨려, 결국 더 큰 갈등과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결과의 효율성보다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의 권리를 우선시해야 한다. [639자]

[문제 3]

▶ 확률변수 X 는 가질 수 있는 값이 0, 1, 2뿐이며, 전체 경우의 수는 $3^3 = 27$ 개이다.

- $X = 0$ 인 경우: 3개 제품의 등급이 모두 동일한 경우이므로 총 3가지이다.

$$P(X=0) = \frac{3}{27} = \frac{1}{9}$$

- $X = 2$ 인 경우: 1과 3이 모두 적어도 한 번 나와야 한다.

- 1이 두 번, 3이 한 번 나오는 경우 → 3가지
- 1, 2, 3이 한 번씩 나오는 경우 → 6가지
- 1이 한 번, 3이 두 번 나오는 경우 → 3가지

$$P(X=1) = \frac{3+6+3}{27} = \frac{4}{9}$$

- $X = 1$ 인 경우

$$P(X=1) = 1 - P(X=0) - P(X=2) = 1 - \frac{1}{9} - \frac{4}{9} = \frac{4}{9}$$

▶ 따라서, 확률변수 X 의 확률분포표는 다음과 같다.

x	0	1	2
$P(X=x)$	$\frac{1}{9}$	$\frac{4}{9}$	$\frac{4}{9}$

이를 통해 확률변수 X 의 기댓값은 $E = 0 \times \frac{1}{9} + 1 \times \frac{4}{9} + 2 \times \frac{4}{9} = \frac{4}{3}$ 로 구해진다.

제품의 성능지표를 확률변수 Z 라 하면, $Z \sim N(m, 16)$ 이고, 임의추출한 10개 제품의 성능지표 표본평균인 Y 는 $Y \sim N(m, \frac{16}{10})$ 이다. 따라서,

$$E(Y^2) = \text{Var}(Y) + \{E(Y)\}^2 = \frac{16}{10} + m^2$$

이다.

▶ V 의 기댓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V) = E(10Y^2 - \frac{4}{3}a - 20m) = 10E(Y^2) - \frac{4}{3}a - 20m = 10m^2 - 20m + 16 - \frac{4}{3}a$$

이는 $m = 1$ 에서 최솟값을 가지는 이차함수 형태이므로, $1 \leq m \leq 10$ 범위에서 최댓값은 $m = 10$ 에서 발생한다.

▶ $m = 10$ 일 때의 $E(V)$ 값은 $816 - \frac{4}{3}a$ 이므로,

$$816 - \frac{4}{3}a \geq 800$$

$$a \leq 12$$

이다. 따라서 a 의 최댓값은 12이다.

3. 채점 기준

[문제 1] 2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 (-5점)

- ①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 ②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 (20점)

1) 제시문 (가)에 제시된 공유지의 비극 개념과 제시문 (나)에 제시된 호모 에코노미쿠스 개념을 파악하여 두 개념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였는지 평가한다. (10점)

- ① 제시문 (가)에서 제시된 공유지의 비극은 개인들이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자원을 과도하게 소비하여 공유지가 결국 고갈되는 상황임을 명확하게 서술해야 함.
- ② 위에 제시된 공유지의 비극은 제시문 (나)에서 설명하고 있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전형적인 인간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서술해야 함.
- ③ 제시문 (나)에 따르면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유일한 관심은 물질적인 이익의 극대화이므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공공재의 경우 과도하게 소비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서술해야 함.

- 공유지의 비극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를 개개인이 과도하게 소비하기 때문임을 파악하여 서술한 경우, 최대 5점 부여
- 공유지의 비극은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전형적인 인간형을 전제로 하며, 이는 인간의 유일한 관심이 물질적 이익의 극대화라는 관점임을 파악하여 서술한 경우, 최대 5점 부여

2) 제시문 (나)의 관점을 토대로 제시문 (가)의 주장을 적절히 비판하였는지 평가한다. (10점)

- ① 제시문 (나)의 실험 결과로부터 실제로는 개인들이 사익 외에도 공동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본인의 이익 일부를 양보하므로 개인의 경제적 의사 결정이 다양한 동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추론해 서술해야 함.
- ② 개인에게 자발적 양보가 가능하므로 제시문 (가)의 주장과 달리 공유지 고갈이 필연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추론하여 서술해야 함.

- 제시문 (나)의 실험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익의 자발적인 양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경제적인 의사결정에는 물질적 이득 외에 다양한 동기가 작용한다는 점을 추론하여 썼을 경우, 최대 5점 부여
- 제시문 (나)에서 나타난 개인의 자발적 기여를 근거로 제시문 (가)가 주장하는 공유지 고갈이 필연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추론하여 서술하였을 경우, 최대 5점 부여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 최대 3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3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1]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20점)	① 제시문 (가)에 제시된 공유지의 비극 개념과 제시문 (나)에 제시된 호모 에코노미쿠스 개념을 파악하여 두 개념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였는지 평가함: 4~10점 부여	제시문 (가)의 공유지의 비극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를 개인이 과도하게 소비하기 때문임을 파악하여 썼을 경우	2~5점
		공유지의 비극은 제시문 (나)에 나타난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전형적인 인간형을 전제로 하며, 이는 인간의 유일한 관심이 물질적 이윤 극대화라 여기는 관점임을 파악해 썼을 경우	2~5점
	② 제시문 (나)의 관점을 토대로 제시문 (가)의 주장을 적절히 비판하였는지 평가함: 4~10점 부여	제시문 (나)의 실험 결과에서 나타난 자발적인 양보 경향을 근거로, 경제적인 의사결정에는 물질적 이득 외에 다양한 동기가 작용한다는 점을 추론하여 썼을 경우	2~5점
		제시문 (나)에 나타난 개인의 자발적 기여를 근거로 제시문 (가)가 주장하는 공유지 고갈이 필연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추론하여 서술하였을 경우	2~5점

[문제 2]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 (-5점)

- ①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 ②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 (40점)

1) 제시문 (라)의 '촌장'이 제시문 (마)의 화장장 건립 여부의 결정권자가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하여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한다. (20점)

- ① (라)의 촌장이 (마)의 결정권자가 된다면 해당 사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함. (4점)
- ② 행동 1)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할 것을 요구함. (4점)
- ③ 행동 2) 공청회 생략에 대해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합리화 함. (4점)
- ④ 행동 3) 설비의 안전성 수치를 근거로 주민들의 불안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치부함. (4점)
- ⑤ 행동 4) 비대위의 행동을 사회 질서 교란 행위로 규정함. (4점)

2) 결정권자의 선택에 대해 제시문 (바)를 근거로 옹호하거나 비판하되, 이에 반박하는 입장의 논리도 언급하여 설득력있게 반박한다. (20점)

- ① 옹호 혹은 비판할 때 근거가 되는 윤리관을 혼동하지 않고 정확히 이해함. 즉 결과론적 관점에 따라 옹호하거나, 혹은 의무론적 관점에 따라 비판함. (4점)
- ② 옹호 혹은 비판의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함. (4점)
 - 1) 옹호할 경우 전체의 이익을 중시한다는 사실을 밝힘.
 - 2) 비판할 경우 원칙의 준수를 중시한다는 사실을 밝힘.
- ③ 선택한 견해에 따라 예상 가능한 반박 논거를 이해함. (4점)
 - 1) 옹호할 경우 의무론적 관점에 근거한 비판이 예상됨. ②-2)
 - 2) 비판할 경우 결과론적 관점에 근거한 비판이 예상됨. ②-1)
- ④ 상대의 반박을 고려하여 본인의 주장을 당위성을 주장함. (6점)
 - 1) 옹호할 경우, 공공의 이익이라는 현실적 관점을 강조하여 본인의 주장을 정당화함.

2) 비판할 경우, 절차적 정당성과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본인의 주장을 정당화함.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 최대 3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3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2]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라)의 '총장'이 (마)의 결정권자가 되었을 때의 선택과 행동 양상을 예측함 (20점)	(라)의 총장이 (마)의 결정권자가 될 경우 결과론적 윤리관에 입각하여 사업을 강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음.	4점
		(마)의 지문을 근거로 발생할 수 있는 4가지 갈등 상황을 파악하고 (라)의 내용을 바탕으로 적용할 수 있음.	항목당 4점, 총 16점
	② 결정권자의 선택에 대해 제시문 (바)를 근거로 옹호하거나 비판하되, 반대 입장의 논리도 언급함 (20점)	옹호 혹은 비판의 근거를 혼동하지 않고 밝힘.	4점
		옹호 혹은 비판의 이유를 분명히 제시함.	5점
		선택한 견해에 대해 예상되는 반대 입장의 내용을 이해함.	5점
		반론의 핵심을 정확히 짚고, 본인 주장의 당위성을 정확하게 반박함 (6점), 반대 입장을 언급했으나 본인 주장을 되풀이 할 경우는 (3점)	3~6점

[문제 3] 20점 만점

1. 확률변수 X 의 기댓값을 올바르게 계산한 경우: +8점

2. 확률변수 Y 의 분포를 올바르게 구하고, 평균 분산 공식을 이용하여 $E(Y^2)$ 을 올바르게 계산한 경우: +7점

3. V 의 기댓값을 m 에 대한 이차함수 형태로 올바르게 구하고 최댓값을 올바르게 구한 경우: +5점

※ 계산 실수로 틀렸어도 논리 전개 과정이 맞으면 해당 부분에 1~2점의 부분 점수를 부여함.

※ 각 부분에서 바르게 답안을 작성한 경우에도 답안의 완성도에 따라 총점 20점 이내에서 ± 1 점 추가 점수 부여 가능함.

2027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가이드북 **인문계열**

202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 기출문제 및 해설

1. 202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 기출문제(일반형) 인문사회계열 75
2. 202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 기출문제(일반형) 경영경제계열 87



1. 202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 기출문제(일반형) 인문사회계열

문제 및 제시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앞부분 줄거리] ‘난장이’ 가족이 사는 낙원구 행복동에 철거 계고장*이 배달되자, 가난한 가족은 입주권을 팔고 이사해야 할 처지에 내몰린다.

동사무소 앞에 사람들이 서 있었다. 쇠망치를 든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헐어 버린 집들 공터를 가로질러 우리 집을 향해 오고 있었다. 어머니가 밥상을 차렸다. 우리의 밥상에 우리 선조들 대부터 묶어 흘려보낸 시간들이 올라앉았다. 그것을 잡아 칼날로 눌렀다면 피와 눈물, 그리고 힘없는 웃음소리와 발은기침 소리가 그 마디마디에서 흘러 떨어졌을 것이다. 대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이 집을 싸고돌았다. 그들이 우리의 시멘트 담을 쳐부수었다. 먼저 구멍이 뚫리더니 담은 내려앉았다. 먼지가 올랐다. 우리는 말없이 식사를 계속했다. 승냥을 다 마시자 어머니가 밥상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우리는 어머니가 싸 놓은 짐을 하나하나 밖으로 끌어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나왔다. 쇠망치를 든 사람들 앞에 종이와 볼펜을 든 사나이가 서 있었다. 쇠망치를 든 사람들이 집을 쳐부수기 시작했다. 한꺼번에 달라붙어 집을 쳐부수었다. 지섭이 사나이를 향해 걸어갔다.

“방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지섭이 물었다. 사나이는 몇 초 후에야 지섭의 말을 알아들었다. 그가 말했다.

“삼십 일까지 철거를 하게 돼 있었죠? 시한이 지났어요.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 철거 작업을 했습니다. 더 이상 할 이야기도 없습니다.” 사나이가 돌아서려고 했다.

지섭이 재빨리 말했다.

“지금 선생이 무슨 일을 지휘했는지 아십니까? 편의상 오백 년이라고 하겠습니다. 천 년도 더 될 수 있지만. 선생은 오백 년이 걸려 지은 집을 헐어 버렸습니다. 오 년이 아니라 오백 년입니다.”

“그만 비켜요.”

“당신이 텃을 놓았습니다. 당신이 아니라면 당신 상부에서. 백여 세대 이상이 여기다 생활 터전을 잡는 것을 몰랐어요? 텃을 놓은 게 아닙니까? 가서 말해요, 내가 치더라구.”

설마 하고 서 있던 사나이는 고개도 돌리지 못했다. 지섭의 주먹이 사나이의 안면에 정통으로 들어갔다. 사나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상체를 수그렸다. 우리가 말릴 사이도 없었다. 쇠망치를 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였다. 그들은 뒤늦게 몰려와 지섭에게 달려들었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치고, 받고, 밟았다.

일은 간단히 끝났다. 지섭은 땅에 죽은 듯 쓰러져 있었다. 사람들이 지섭을 일으켜 세웠다. 지섭의 얼굴은 피에 젖었다. 피는 머리에서 얼굴로 흘러내렸다. 그들이 지섭을 끌고 갔다. 그들은 올 때처럼 곧바로 공터를 가로질러 갔다.

*계고장(戒告狀): 행정상의 의무 이행을 재촉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나) 당시의 사회적 통념으로 새로운 가설이 무시되고 과학의 발전이 늦춰질 뻔했던 사례가 또 있다. 1854년 8월 런던의 브로드가에 퍼진 콜레라는 불과 열흘 만에 주민 5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 갔다. 당시 과학자들은 별다른 증거 없이 오염된 공기로 콜레라가 전염된다고 주장했다. 보통 악취가 나는 하수구나 늪지대 근방에서 전염병이 유행했기

때문에 공기로 병이 전염된다는 주장은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었던 것이다.

그러나 영국의 의사 존 스노만은 예외였다. 그는 대담하게도 공기가 아니라 물이 콜레라균의 매개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입증하려고 했다. 그는 빈민가를 돌아다니면서 콜레라의 전염 양상을 관찰하고 발병자와 사망자의 집 위치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최초 발병자의 집 지하에 있는 정화조와 브로드가 지하에 있는 상수도의 거리가 가까운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그는 최초 발병자의 장에서 나온 세균이 정화조와 토양층을 통하여 브로드가의 상수도에 유입되었고, 그 상수도에서 물을 길어 먹었던 사람들이 콜레라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무모한 듯 보였던 존 스노의 연구는 콜레라의 전염 경로를 설명하여 콜레라 예방에 공헌했을 뿐 아니라 현대 의학의 연구 방법에도 큰 밑거름이 되었다. 만약 존 스노가 오염된 공기로 병이 전염된다는 기존의 지배적 통념에 간혀 있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콜레라에 감염되어 목숨을 잃었을지 모를 일이다. 콜레라의 감염 경로를 밝힌 존 스노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학의 도약은 대개 이단적 발상을 통해 이루어졌다. 용기 있는 이단을 수용할 때에 발전과 도약이 가능했던 것이다. 기존 사회의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이상한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충고이다.

- (다) 처음부터 고모는 여자를 믿지 못했다. 그런 고모의 속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자는 자주 고모한테 말했다. 우리 식구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나 시집왔어요. 나 아저씨 좋아요. 여자는 한국말을 꽤 빨리 배웠다. 말끝을 추켜올리는 이상한 억양도 많이 누그러졌고, 피부도 한결 하얘졌다. 그럴수록 고모는 여자를 더 경계했다.

여자가 시집온 지 2년쯤 지났을 때다. 아버지는 저녁이면 여자를 앉혀 놓고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재미있는 놀이를 하나 찾아낸 것처럼 아버지는 그 일에 열중했다. 저녁에 학원에서 돌아와 현관에 들어서면 아버지와 여자가 머리를 맞댄 채 쿡쿡거리며 웃기도 했고, 한글 카드로 알아맞히기 게임이나 받아쓰기를 하기도 했다. 어떨 땐 태국 쌀국수를 끓여 밤참으로 먹었다. 젊은 배우들이 출연해 사랑을 키워 가는 드라마를 가까이 붙어 앉아 보기도 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종일 내가 돌아오기만 기다리던 예전의 아버지가 아니었다. 여자와 함께 새로운 행복을 키워 가는 듯 보였다.

[중간 부분 줄거리] 외국에서 온 동네의 색시들이 돈을 훔쳐 달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고모는 여자 또한 그럴까 봐 의심한다. 여자는 자신을 의심하는 고모에게 자신은 남편을 사랑하기에 도망가지 않을 거라 말한다. 몇 달 뒤, '나'는 읍내 기차역 근처에서 여자가 동남아시아 사내와 이야기하는 장면을 휴대 전화로 찍는다.

역 앞에서 여자가 낯선 사내와 만나는 사진을 나는 아버지와 고모에게 보여 주었다. 고모는 펄쩍펄쩍 뛰었다. 여자를 보자마자 앞섶을 잡아 흔들고 발로 차고 머리카락을 잡아채 마당에 머리를 짓궂기까지 했다. 참다못한 여자가 고모 손목을 비틀어 등 뒤로 꺾어 넘어뜨렸다. 어려서부터 야자 농장에서 일한 여자의 팔 힘은 예상보다 셌다. 나 이 집 식구야. 나 팔려 온 거 아니고, 시집온 거 맞잖아. 그런데 이게 뭐야. 당신들 다 미쳤어. 나 길거리에서 고향 사람 만났어. 그게 죄야? 그거 우리나라에선 죄 아냐. 당신들 나라 이상해. 여자가 울부짖으며 소리쳤다. 고모와 나는 여자의 서슬에 놀라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버지는 영원히 입을 다물었다. 우리가 법석을 떠는 동안 아버지가 흥분으로 의식을 잃었다는 걸 그때까지 아무도 몰랐다.

그것이 내가 본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여자와 나의 인연은 낡은 실밥처럼 약해졌다.

- (라) 황만근이 없어졌다. 새벽에 혼자 경운기를 타고 집을 나간 황만근은 늘 들일을 나가면 돌아오는 시각인 저물녘에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 회관 앞, 황만근이 직접 심어 놓은 등나무 덩굴 아래, 직접 짠 평상에 사람들이 모였다. 먼저 이장이 입을 열었다.

“만그인지 반그인지 그 바보 자식 하나 때문에 소여물도 못 하러 가고 이기 뭐라. 스무 바리나 되는 소가 한꺼번에

밥 굶는 게 중요한가, 바보 자식 하나가 어데 가서 술 처먹고 집에 안 오는 게 중요한가, 씨그랄.”

아침밥을 먹기도 전 황만근의 아들이 찾아와 황만근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길래 열걸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된 민 씨는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생각하고 참견을 했다.

“어제 썰기 대회 한다 하고 간 사람이 누구누구십니까. 황만근 씨하고 같이 간 사람은요? 썰기 대회 하는 동안 본 사람은 없나요?”

자리에 모인 대여섯 명의 황 씨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더니 모두 고개를 흔들었다. 민 씨는 이장이 썰기 대회 전날 황만근을 따로 불러 무슨 말을 건네던 것을 기억해 냈다.

“그제 밤에 내일 썰기 대회 한다고 사람들 모였을 때 이장님이 황만근 씨에게 뭐라고 하셨죠. 모임 끝난 뒤에.”

민 씨는 자기도 모르게 따지는 어조가 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왜 황만근 씨만 못 오고 있나 하는 겁니다.”

“내가 아나. 읍에 가 보이 장날이더라고. 보나 마나 어데서 술 처먹고 주질러 앉았을 끼라. 백 리 길을 경운기를 끌고 갔으이 시간도 마이 걸릴 끼고.”

다른 사람들은 말이 없었고 민 씨와 이장만이 공을 주고받는 꼴이 되어 버렸다.

“글쎄, 그 자리에 꼭 황만근 씨만 경운기를 끌고 갔어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경운기를 끌고 오라는 게 내 말이랴? 투쟁 방침이 그렇다 카이.”

“그럼 이장님은 왜 경운기를 안 타고 가고 트럭을 타고 가셨나요. 이장님부터 술선수범을 해야지 다른 동민들이 따라 할 텐데, 지금 거꾸로 되었잖습니까.”

“내사 민사무소에서 인원 점검하고 다른 이장들하고 의논도 해야 되고 올때나 바쁜 사람인데 경운기를 타고 언제 가고 말고 자빠졌나. 다른 동네 이장들도 민소 앞에서 모이 가이고 트럭 타고 갔는 거를. 진짜로 경운기를 끌고 갔으나 군 대회에는 늦어도 한참 늦었지. 군청에 갔는데 비가 와 가이고 온 사람도 밋 없더마. 소리마 밋 분 지르고 왔지. 군청까지 경운기를 타고 갈 수나 있던가. 국도에 차들이 미치페이팬구로 썩썩 달리는데 받치만 우애라고.”

“그러니까 국도를 갈 때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경운기를 여러 대 끌고 가자는 거였잖습니까. 시위도 하고 의지도 보여 준다면서요.”

기어이 민 씨는 버럭 소리를 지르고야 말았다.

“이장이니 지도자니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방침을 정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양복 입고 자가용 타고 간 사람은 오고, 방침대로 경운기 타고 간 사람은 오지도 않고, 이게 무슨 경우냐구요.”

그러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누구도 적극적으로 황만근을 찾아 나서려 하지 않았다.

일주일 뒤에 황만근은 돌아왔다. 그의 아들이 그를 안고 돌아왔다. 한 항아리밖에 안 되는 그의 뼈를 담고 돌아왔다.

(마) [앞부분 줄거리] 여수에서 국군 14연대가 반란을 일으키자 좌익 반군들은 순천까지 세력을 확대한다. 곧 벌교 지역 좌익 세력들까지 반군에 합세하여 벌교를 장악한다. 아들 김범우가 피신해 있는 동안, 지주인 아버지 김사용은 인민재판에 불려 나간다. 김사용 집안에서 일하는 문 서방이 달려와서 소식을 전한다.

“작은서방님, 작은서방님, 어르신네가, 어르신네가 살아나셨구만요, 살아나셨다니게요.”

문 서방이 사립문을 차고 들며 숨이 넘어가고 있었다.

“무슨 소리요, 문 서방!”

“금께, 어르신 차례가 되셨는디, 위메 참말로 환장히졌등거. 어르신네는 두 눈 딱 감고 단상에 꼳꼳하게 스셨는디,

누가 별떡 일어남으로 소리 질르기를, 김사용은 지주지만 인민의 적은 아니다. 큰아들 범준은 독립투사고 김사용은 독립 자금을 댔다. 인민의 피를 제대로 쓴 것이다. 고것만이 아니라 큰아들 김범준은 해방되고 3년이 지난 지금껏정 소식이 없다. 못될 말로 죽은 것이라면 조국 독립을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바친 것이다. 그라고 지주 김사용은 작인*들한테 질로 후하게 현 사람이다. 고건 시상이 다 아는 일이다. 그렇게 김사용은 숙청에서 빠져 현다, 고 허드랑게요. 그 말을 위원장이 접수한다고 발표하고는 또 모인 사람들한테 워떻게 혈랑가 묻드만요. 워메, 고때 사람 미치겄등거. 근디 여그저그서 옹소, 옹소, 허는 소리가 터짐으로 박수를 안 치겄소. 그러서 어르신이 화를 면히시고 단상을 내려오시는데……. 을때나 죄시럽고 눈물이 나든지…….”

문 서방은 목이 잠기며 눈물을 흘렸다. 그런 문 서방의 그지없이 착하고 선량함이 그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고맙소, 문 서방.”

김범우는 애써 웃어 보이며 말했다.

“무신 당찮은 말썹이시더요. 정작 고마운 사람은 따로 있제라. 현디 말이요, 서방님. 인민재판이라등가 먼가가 끝나고 적이는 굿판이 벌어졌는디, 워메 징허기도 허고…….”

“어디서 말인가요?”

김범우는 한결 느긋해진 태도로 말하고 있는 문 서방에게 눈길을 돌렸다.

“워디긴 워디어라, 북국민핵교 마당에서 인민재판을 끝내고 그 질로 소화다리로 끌고 갔구만이라. 사람덜이 별 떼맹기로 모였는디, 사람덜한테 귀경시키대끼 줄줄이 세워 놓고 죄엿당께요.”

“문 서방도 그걸 구경했단 말이요?”

“하면이라, 징허기는 헐어도 그건 돈 내고도 못헐 존 귀경거리였는디요.”

“그게 무슨 소리요, 문 서방. 남들은 죽어 가는데 그걸 보고 좋은 구경거리라니.”

김범우의 음성은 뜨거웠고 눈 가장자리에는 파르르 경련이 일었다.

“존 귀경거리고말고라. 죄는 진 대로 가고 공은 닦은 대로 간다고, 즈그눔덜이 고약하게 해 감서 배 터지게 묵고 살았응게 고렇게 당혀서 싸제라. 고것들이 하나씩 죽어 자빠지는데, 씨영쿠* 잘됐다. 씨영쿠 잘되얏다, 허는 소리가 속에서 절로 솟기드만요. 고런 맘이 워디 나 혼자뿐이었을랍디여. 말을 안 헐응게 그렇게 귀경허는 전부가 다 똑같은 맘이었을 끼구만이라.”

문 서방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해 있었다. 그의 눈은 증오로 타고,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김범우는 하나의 악마를 보고 있었다. 아버지를 위해 눈물을 머금던 아까의 그 착하고 선량하던 모습은 간 곳이 없었다. 김범우는 섬뜩하게 끼쳐 오는 두려움을 느꼈다.

*작인(作人): 소작인. 다른 사람의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사람.

*씨영쿠: ‘시원하게’의 방언.

- (바) 리비히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식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필수 영양소 가운데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넘치는 요소가 아니라 가장 부족한 요소라는 이론이다. 식물이 잘 자라려면 성장에 필요한 질소, 인산, 칼륨, 석회 등 여러 요소가 있는데, 어느 하나가 부족하게 되면 다른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는 이야기다. 즉, 많은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성장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어디 식물에만 해당하는 법칙이겠는가? 동물의 성장, 인간의 성장과 발달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회나 국가의 역량도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생태계의 삶과 지속 가능성에도 리비히의 법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은 최하위 존재에 달려 있다.

도시도 생태계다. 도시가 건강하게 지속 가능하려면 상위 포식자들만 먹고살아서는 안 된다. 도시 생태계의

바탕을 이루는 하위 존재들도 먹고살아야 한다. 도시에 비싼 집, 새 집, 큰 집만 있다면 살아가기 힘들 것이다. 썩 집, 헌 집, 그리고 작은 집이 함께 있어야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들도 들어가 살 집이 있고, 젊은 사업가들이 창업을 위한 공간도 마련할 수 있다. 제인 제이컵스가 강조한 도시의 생명력과 다양성은 이른바 우리가 사는 도시도 생태계와 같으니, 물건 다루듯 하지 말고 도시 생태계를 좀 더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바꿔 말하면, 낡은 집이나 오래된 건물을 무조건 철거하지 말고 잘 살려서 오래 쓰라는 이야기이기도 할 것이다.

(사) 아마 3월이 되자마자였을 것이다. 샛노란 꽃 두 송이가 땅에 닿게 피어 있었다. 하도 키가 작아서 하마터면 밟을 뻔했다. 그러나 빛깔은 진한 황금색이어서 아직 아무것도 싹트지 않은 황량한 마당에 몹시 생동스러워 보였다. 그러다가 아주 시들어 버릴 줄 알았는데 다음 날 해만 뜨면 다시 활짝 핀다. 그러나 마냥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곧 안 깨어나고 저 버리는 날이 있겠기에 그게 피어 있는 동안만이라도 누구에게든 보여 주고 자랑하고 싶어서 나는 집에 손님만 오면 그걸 구경시킨다. 그러나 내가 기대하는 것만치 신기해하는 이가 별로 없다. 어떤 친구는 마당에 피는 꽃이 백 가지도 넘는다고 해서 부러워했는데 이런 것까지 쳐서 백 가지나고 기막힌 듯이 물었다. 그 친구는 아마 기화요초*가 어우러진 광경을 상상했나 보다. 내가 백 가지도 넘는다고 한 것은 복수초 다음으로 피어날 민들레나 제비꽃, 할미꽃까지 다 합친 수효이다.

곧 4월이 되면 목련, 매화, 살구, 자두, 앵두, 조팝나무 등이 다투어 꽃을 피우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날짜를 달리해 순서대로 피면서 그 그늘에 제비꽃이나 민들레, 은방울꽃을 거느린다. 수선화는 벚꽃이 필 무렵이나 필 것 같고 상사초는 잎이 시들어 지상에서 사라지고 나서도 한참이나 더 있다가 꽃대를 밀어 올릴 것이다. 이렇게 그것들을 기다리고 마중하다 보니 내 머릿속에 출석부가 생기게 되고, 출석부란 원래 이름과 함께 번호를 매기게 되어 있는지라 백 번이 넘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것들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멋대로 피고 지면 이름이 궁금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것들이 올해도 하나도 결석하지 않고 전원 출석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것들이 뿌리로, 씨로 잠든 땅을 함부로 밟지 못한다. 그것들이 왕성하게 자랄 여름에는 그것들이 목마를까 봐 마음 놓고 어디 여행도 못 할 것이다. 그것들은 출석할 때마다 내 가슴을 기쁨으로 뛰놀게 했다. 백 식구는 대식구이다. 나에게 그것들을 부양할 마당이 있다는 걸 생각만 해도 뿌듯한 행복감을 느낀다. 그것들은 내가 기다리지 않아도 올 것이다. 그래도 나는 기다린다. 기다리는 기쁨 때문에 기다린다.

*기화요초(琪花瑤草): 옥같이 고운 꽃에 핀 구슬같이 아름다운 꽃.

(아)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은 어떤 생물체의 유용한 유전자를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해 유전자 일부를 변형시켜 만든 생물체를 말한다. 지금까지 개발된 것은 대부분 식물이기 때문에 GMO라고 하면 통상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가리킨다. 미국 식품 및 농업 정책 연구소가 발표한 2006년 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 미국에서만 바이오 기술을 이용한 GMO 작물 재배로 4백만 톤의 증산이 가능했고, 이에 따라 14억 달러의 원가가 절감되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농약 사용도 3만 톤이나 줄여 전체적인 경제 효과가 20억 달러에 달했다고 한다. 또 다국적 농업 회사인 B사에서는 병충해에 강한 목화 종자를 개발했는데, 통계에 의하면 이 목화 종자를 경작하면서 농약 사용량이 크게 줄었다고 한다.

GMO 업체는 GMO 기술을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명분과 연결한다. 갈수록 부족해지는 식량 문제를 해결해 인류 생존을 도모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 바로 유전자 변형 기술 개발이라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미국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C사의 GMO 콩 종자는 일반 종자의 두 배 가까운 값을 치러야만 구매할 수 있다. 또한 반드시 제초제와 함께 묶음으로 구매해야 한다. 다른 제초제를 사용하면 잡초와 함께 콩도 죽기 때문이다. 특정 제초제를 계속 사용하면 내성이 생긴 잡초가 생기기도 한다. GMO 콩을 재배하여 수확량이 늘기는 했지만, 추가로

소요되는 생산비를 벌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풍부한 수확을 보장하는 GMO 종자가 전 세계를 먹여 살린다는 선전과 달리, GMO 종자는 더욱 많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

한편, 세계 환경 단체들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미래 세대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알 수 없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유전자 변형 종자에 대한 내성 증가로 자연 생태계가 교란 및 파괴될 수 있는 만큼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아니라 재앙의 시초가 될 수 있다며 GMO 업계가 내세우고 있는 지속 가능성을 일축한다.

- (자)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여러 가지 기회 중 하나를 선택했다는 것은 다른 어떤 기회를 포기했다는 말과 같다. 이때 선택의 대가, 즉 선택의 비용은 그 선택으로 포기한 기회의 가치이며, 이를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취업 대신 대학 진학을 선택했을 때의 비용을 생각해 보자. 대학 진학 선택의 비용으로 우리는 대학 등록금, 책값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경제적 비용 중 명시적으로 드러난 부분만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같은 비용을 명시적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는 어떤 경제적 행위를 할 때 실제로 지출해야 하는 돈을 뜻한다.

그러나 명시적 비용만이 기회비용의 전부는 아니다. 대학 진학을 선택함으로써 그 시간 동안 취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포기해야 한다. 직접 돈이 들지는 않지만 선택을 위해 포기한 잠재적 이득 역시 기회비용의 일부이다. 이를 암묵적 비용이라고 한다. 암묵적 비용이란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된 다른 대안의 가치를 의미한다.

- (차) 1855년 미국의 대통령 프랭클린 피어스는 지금의 미국 워싱턴주 수쿠아미 지역에 살던 아메리칸 인디언에게 대표단을 보내 땅을 팔라고 요구하였다. 그러자 시애틀 추장은 그에 대한 대답으로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우리는 대지의 일부분이며, 대지는 우리의 일부분이다. 들꽃은 우리의 누이이고, 순록과 말과 독수리는 우리의 형제이다. 강의 물결과 초원에 핀 꽃들의 수액, 조랑말의 땀과 인간의 땀은 모두 하나이다. 모두가 같은 부족, 우리의 부족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대지에게 일어나는 일은 대지의 아들들에게도 일어난다. 사람이 삶의 거미줄을 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사람 역시 한 올의 거미줄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가 거미줄에 가하는 행동은 반드시 그 자신에게 되돌아오게 마련이다. 사람이 땅을 파헤치는 것은 곧 그들 자신의 삶도 파헤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안다. 대지는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며, 인간이 오히려 대지에게 속해 있다. 그것을 우리는 안다.

[문제 1] 제시문 (가)~(라)에는 저항을 하는 개인이 나타난다.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개인이 저항한 ‘이유’와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타인의 곤경에 대해 보이는 태도를 중심으로, 제시문 (라)의 ‘민 씨’와 제시문 (마)의 ‘문 서방’의 차이점을 쓰고, 제시문 (라)의 ‘이장’과 제시문 (마)의 ‘문 서방’의 유사점을 쓴 뒤, 제시문 (라)의 ‘이장’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 제시문 (바)와 (사)에서 각각 찾아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3] 제시문 (아)에 나타난 ‘GMO 업계’의 입장을 제시문 (자)를 활용하여 비판하고, 제시문 (사)와 (차)를 토대로 ‘지속 가능성’을 위해 GMO 업계가 고려해야 할 점을 서술하시오. [20점, 330~350자]

1. 평가 목표와 출제 의도

평가 목표

인문사회계열 논술 시험은 고교 교육 과정에서 배운 지식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모두 갖춘 통합형 인재를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수험생들의 추론적·논리적 사고력에 기초한 종합적 사고력과 자신의 주장을 적절한 언어에 담아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2026년 논술에서 사용된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글에서 선별하였고, 논술 문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다양한 각도에서 독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교육부의 '고등학교 핵심 성취기준'에 부합되도록 출제하였다. 2026 인문사회계열 논술의 핵심 키워드는 다양한 상황에서 '저항을 한 이유'와 그로 인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1) 국어, 문학, 통합사회, 경제 등 다양한 교과 영역에서 '저항을 한 이유'와 그로 인한 '결과'라는 주제와 직간접으로 연관성이 있는 제시문을 읽고 그 요지와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텍스트 독해력, 2) 제시문에서 '특정한 상황에서 개인이 저항을 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종합하는 맥락 해석능력, 3) 제시문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는 비판적 능력, 4) 특정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 '이유'와 '결과'를 기술할 수 있는 분석력 그리고 5) 이러한 능력을 토대로 주어진 시간에 문제에 대한 답을 정확한 문장으로 구성하여 표현하는 논리적 글쓰기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출제 의도와 논제 접근 방법

[문제 1]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1) 다양한 제시문을 읽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 독해력, 2) 발견한 내용을 자연스러운 말로 기술할 수 있는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주어진 네 개의 제시문을 꼼꼼하게 읽고 지문에 등장하는 개인이 저항을 한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러한 저항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찾아낸 후, 이를 자신의 언어로 변환하여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된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문제 2]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1) 제시문을 정확하게 읽고 그 핵심 요지를 파악하는 독해력, 2) 제시문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는 비판력, 3) 제시된 두 개의 글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활용하는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먼저 타인의 곤경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제시문 (라)와 제시문 (마)의 등장인물 '민 씨'와 '문 서방'이 보이는 차이점을 파악하고, 제시문 (라)의 '이장'과 제시문 (마)의 '문 서방'이 타인의 곤경에 대한 태도에 나타나는 유사점을 찾아내고, 제시문 (바)와 (사)의 중심 주제를 파악한 뒤, 이를 사용해 제시문 (라)의 '이장'에게 필요한 자세를 서술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문제 3]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1) GMO를 둘러싼 경제적, 환경적 논쟁을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포괄하는 기회비용 개념을 토대로 체계화하여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리적 글을 쓸 수 있는 능력, 2) 자연의 속도와 순리를 존중하는 사상과 인간과 생태계가 상호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생태 중심주의 자연관을 주어진 제시문에서 찾아 이를 토대로 완결된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2. 제시문 출전과 해설

- 제시문 (가):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이승원 외 8인, 『문학』, 좋은책신사고, 2019, 226-231쪽.
- 제시문 (나): 유정식, 「용기 있는 이단자들의 반란」, 박안수 외 11인, 『국어』, 비상교육, 2018, 240-241쪽.
- 제시문 (다): 김재영, 「꽃가마배」, 정민 외 26인, 『국어』, 해냄에듀, 2018, 275-286쪽.
- 제시문 (라):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류수열 외 7인, 『문학』, 금성출판사, 2019, 308-314쪽.
- 제시문 (마): 조정래, 「태백산맥」, 조정래 외 26인, 『문학』, 해냄에듀, 2019, 318-323쪽.
- 제시문 (바): 정석, 「도시생태계와 종다양성」, 고형진 외 5인, 『독서』, 동아출판사, 2019, 96-100쪽.
- 제시문 (사): 박완서, 「꽃 출석부」, 박영목 외 4인, 『독서』, 천재교육, 2019, 76-78쪽.
- 제시문 (아): 강건희, 「누가 스티브 잡스를 이길 것인가」 & KBS 스페셜 제작팀, 「종자 세계를 지배하다」, 정창우 외 12인, 『통합 사회』, 미래엔, 2018, 274-275쪽.
- 제시문 (자):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 김중호 외 4인, 『경제』, 씨마스, 2019, 19쪽.
- 제시문 (차): 류시화,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박병기 외 11인, 『통합 사회』, 비상교육, 2018, 50쪽.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문학』(좋은책신사고, 2019)에 실린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했으며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한 글이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가난한 노동자 가족의 삶을 다룬 1970년대의 연작 소설이다. 제시문은 연작 소설 중 네 번째 이야기로, 「난장이」 가족의 집이 철거된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과 주변인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특히 지섭은 철거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항의하며 격렬히 저항한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국어』(비상교육, 2018)에 실린 유정식의 「용기 있는 이단자들의 반란」을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한 글이다. 「용기 있는 이단자들의 반란」은 기존의 학설에 도전하는 일은 이단자로 몰릴 수도 있는 어려운 일임에도 그것에 과감히 도전하며 새로운 목소리를 낸 사람들의 의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제시문이다. 특히 유럽 사회에 큰 피해를 입힌 전염병 콜레라의 감염 경로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과학적 연구 관찰을 시도한 의사 존 스노의 사례를 통해, 잘못된 사회적 통념이 과학의 발전을 늦출 수도 있으며, 그것에 도전하는 새로운 목소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국어』(해냄에듀, 2018)에 실린 김재영의 「꽃가마배」를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했으며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한 글이다. 「꽃가마배」는 현실의 문제를 드러냄으로써 삶을 성찰하게 하는 소설이다. 외국에서 온 결혼이주여성이 남편과 함께 가족의 행복을 꾸려나가고자 하지만, 고모와 '나'의 의심과 편견에 의한 폭력적 처우로 인해 결국 행복한 가족의 모습에 균열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준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문학』(금성출판사, 2019)에 실린 성석제의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를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했으며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한 글이다.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는 농촌 마을에서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가난하고 무지한 농부 황만근의 일대기를 골계를 섞어 그려 낸 작품이다. 제시문에서는 황만근의 안위가 염려스러운 상황에서도 무책임하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비정한 이장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문학』(해냄에듀, 2019) 교과서에 실린 조정래의 「태백산맥」을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했으며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내용 중, 여순사건을 배경으로 이데올로기의 갈등과 대립의 실상을 등장인물의 갈등을 다룬 부분에서 발췌하였다. 여기에서 문서방은 인민재판의 결과를 검범우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모시던 지주 김사용이 무사하게 풀려났음에 안도하면서도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다른 지주들의 죽음을 통쾌해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독서』(동아출판사, 2019) 교과서에 실린 「도시 생태계와 종 다양성」을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했으며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리비히의 법칙」을 생태계 및 도시에 확대 적용하여, 도시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구성요소가 모두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글에서는 간과되기 쉬운 존재일지라도 나름의 역할과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 『독서』(천재교육, 2019) 교과서에 실린 「꽃 출석부」를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했으며 일부 중략 표시를 생략한 글이다. 「꽃 출석부」는 생활에서 발견되는 소박한 기쁨을 담백하게 기술한 수필이다. 화자는 마당에 핀 꽃에 개화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부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돌본다. 이 글에서는 소박한 것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볼 수 있다.

제시문 (아)는 고등학교 『통합 사회』(미래엔, 2018) 교과서에 실린 강건희의 「누가 스티브 잡스를 이길 것인가」와 KBS 스페셜 제작팀의 「종자 세계를 지배하다」를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생략하였다. 두 글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이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인가에 대해 낙관적, 부정적 전망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전자의 글쓴이는 GMO 업계의 주장을 바탕으로 GMO가 곡물 생산성의 비약적 발전에 공헌하고 농약과 같은 생산요소 투입을 줄여준다고 설명한다. 반면, 후자는 GMO가 농가에 새로운 비용의 지출을 초래한다고 말하며, 높은 종자 가격, 특수 제초제 사용 필요성, 잡초의 내성 증가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예로 든다. 또한 GMO 기술은 미래 세대와 자연 생태계에 어떻게 작용할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안전하지 않은 기술이라고 주장한다.

제시문 (자)는 고등학교 『경제』(씨마스, 2019) 교과서에 실린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을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재편집한 글로서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생략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기회비용이란 선택을 위해 포기한 것의 가치임을 설명하면서, 이를 구성하는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차이를 서술한다. 명시적 비용이란 어떤 경제적 행위를 할 때 실제로 지출해야 하는 돈이며, 암묵적 비용이란 그러한 행위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한 대안이나 기회가 제공할 수 있었던 이득을 의미한다. 기회비용은 명시적, 암묵적 비용을 모두 고려해서 산정된다.

제시문 (차)는 고등학교 『통합 사회』(비상교육, 2018) 교과서에 실린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를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생태 중심주의 자연관을 설명하기 위한 제시문 가운데 하나로, 제시문에서 아메리칸 인디언 추장 시애틀은 모든 생명체가 자연의 일부이며, 인간과 자연은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말한다. 이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모색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오늘날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 예시 답안

[문제 1] 제시문 (가)~(라)에는 저항을 하는 개인이 나타난다.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개인이 저항한 ‘이유’와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가)~(라)에는 저항을 하는 상황과 개인이 나타난다. (가)에서 지섭은 공권력의 일방적 철거 집행이 평범한 사람들의 오랜 삶의 터전을 짓밟는 행위임을 비판하며 격렬히 저항한다. 그 결과 폭력적인 진압에 의해 무력하게 저지당한다. (나)에서 존 스노는 콜레라가 공기로 전염된다는 통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저항한다. 그 결과 직접 조사와 관찰을 통해 물이 전염원이라는 사실을 발견해 콜레라 예방과 의학 연구 방법 발전에 공헌한다. (다)에서 여자는 편견에 젖은 가족의 폭력에 견디다 못해 차별적 시선에 항의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저항한다. 그 결과 아버지와 여자가 이룬 부부의 행복이 파괴되고 가족은 해체된다. (라)에서 민 씨는 황만근의 존재를 무시하고 마을 대표로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이장에게 환멸을 느껴 저항한다. 그 결과 이장의 사실 은폐와 위선이 밝혀지고 마을 사람들은 황만근의 실종에 이장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처럼 각 인물들은 강압적 공권력, 잘못된 통념, 부당한 편견, 책임 회피 등을 이유로 저항을 하고, 무력 진압, 의학 발전, 가족 해체, 진실 규명 등의 결과를 얻는다. (569자)

[문제 2] 타인의 곤경에 대해 보이는 태도를 중심으로, 제시문 (라)의 ‘민 씨’와 제시문 (마)의 ‘문 서방’의 차이점을 쓰고, 제시문 (라)의 ‘이장’과 제시문 (마)의 ‘문 서방’의 유사점을 쓴 뒤, 제시문 (라)의 ‘이장’에게 필요한 자제가 무엇인지 제시문 (바)와 (사)에서 각각 찾아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라)의 민 씨는 모두에게 똑같은 방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황만근만 경운기를 타고 갔던 상황의 불합리함을 인식하고, 이장의 변명에 적극적으로 항변한다. 한편 (마)의 문 서방은 자신과 친한 정도에 따라 인민재판 결과의 정당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지만, 김사옹의 위기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라)의 이장은 본래 멸시하던 황만근이 귀가하지 않은 이유가 술 때문이라 단정하고 그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는다. (마)의 문서방은 지주들이 평소 작인에게 못되게 굴었다는 이유로 그들의 죽음에 기뻐한다. 이장과 문서방은 자신의 이익과 무관하다고 여기는 타인에 대한 이해나 연민이 없으며 그들의 생명에 무관심하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바)에 따르면, 식물이나 동물과 마찬가지로 도시와 사회의 성장을 위해서는 간과되기 쉬운 사소한 것들도 필요하다. 따라서 이장은 황만근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사)에서 ‘나’는 남들의 눈에 하찮게 보이는 꽃들도 세심하게 관찰하며 애정을 쏟는다. 그러므로 이장은 황만근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560자)

[문제 3] 제시문 (아)에 나타난 ‘GMO 업계’의 입장을 제시문 (자)를 활용하여 비판하고, 제시문 (사)와 (차)를 토대로 ‘지속 가능성’을 위해 GMO 업계가 고려해야 할 점을 서술하시오. [20점, 330~350자]

(아)의 GMO 업계는 GMO를 선택하면 생산 원가가 절감되고 농약 사용이 줄어 명시적 비용이 적다고 말한다. 그러나 (자)에 의하면, GMO는 비싼 종자, 특수 제초제 사용, 잡초의 내성 증가로 인한 지출이 추가돼 명시적 비용이 커지며, 미래 세대 안전성과 생태계 보호라는 가치를 포기하는 암묵적 비용을 수반하므로 전체 기회비용은 오히려 높을 수 있다. (사)에 따르면 수많은 꽃이 피고 지는 일도 자연적으로 정해진 질서가 있다. (차)에 따르면 인간과 자연은 서로의 일부로서,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 인간을 지키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GMO 업계는 자연의 속도와 섭리, 인간과 생태계의 공존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350자)

4. 채점 기준

[문제 1]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 (-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 (40점)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개인이 저항을 한 ‘이유’와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각각 찾아 정확하게 작성했는지 평가한다. (32점)

(가) **이유:** 공권력의 일방적 철거 집행이 평범한 사람들의 오랜 삶의 터전을 짓밟는 행위임을 비판함 (4점)

결과: 폭력적인 진압에 의해 무력하게 저지당하고 끌려감 (4점)

(나) **이유:** 콜레라가 공기로 전염된다는 통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함 (4점)

결과: 직접 조사와 관찰을 통해 물이 전염원이라는 사실을 발견해 콜레라 예방과 의학 연구 방법 발전에 공헌함 (4점)

(다) **이유:** 편견에 젖은 가족의 폭력에 견디다 못해 차별적 시선에 항의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함 (4점)

결과: 아버지와 여자가 이룬 부부의 행복이 파괴되고 가족은 해체됨 (4점)

(라) **이유:** 황만근의 존재를 무시하고 마을 대표로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이장에게 환멸을 느낌 (4점)

결과: 이장의 사실 은폐와 위선이 밝혀지고 마을 사람들은 황만근의 실종에 이장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됨 (4점)

2) 네 개의 제시문에서 개인이 저항을 한 ‘이유’와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서론/본론/결론)로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즉, 글을 시작하는 도입 부분과 글을 맺는 결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8점)

(1) 하나의 완성된 논리적인 글로 구성하라고 요구하므로, 답안이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 구성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함 (3점)

(2) 서론에서 문제를 요약하고, 결론에서 각 제시문의 차이가 핵심적 표현으로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함 (3점)

(3) 저항한 이유와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논리적이고 요약적으로 드러나도록 완결된 문장으로 서술되었는지 평가함 (2점)

[예시]

서론: (가)~(라)에는 저항을 하는 상황과 개인이 나타난다.

결론: 이처럼 각 인물들은 강압적 공권력, 잘못된 통념, 부당한 편견, 책임 회피 등을 이유로 저항을 하고, 무력 진압, 의학 발전, 가족 해체, 진실 규명 등의 결과를 얻는다.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1]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각 제시문에서 각각 개인이 저항을 한 이유와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찾아 제시 (32점)	4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함	25~32점
		3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함	17~24점
		2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함	9~16점
		1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함	4~8점
	논리적 구성 (3점)과 서론, 본론, 결론 제시 (3점) 및 저항한 이유와 결과의 논리적, 요약적 구조화 (2점)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	1~3점
		본론의 내용을 결론으로 잘 도출하여 요약했는지 여부 (참신성도 고려)	1~3점
		이유와 결과가 논리적, 요약적으로 구조화되었는가 여부	1~2점

[문제 2]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 (-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 (40점)

1) 제시문 (라)의 ‘민 씨’와 제시문 (마)의 ‘문 서방’의 차이점을 썼는지 평가한다. (15점)

- (1) 제시문 (라)에서 민씨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상황을 인식했다는 점을 찾아내고, 이장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했다는 것을 서술한 경우 (8점)
 (2) 제시문 (마)에서 문 서방이 자의적 기준에 의해 타인을 평가했다는 점을 찾아내고, 김사옹이 위기에 처했음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을 서술한 경우 (7점)

2) 제시문 (라)의 ‘이장’과 제시문 (마)의 ‘문 서방’의 유사점을 썼는지 평가한다. (15점)

- (1) 제시문 (라)에서 이장이 평소 무시했던 황만근이 귀가하지 않은 이유를 술에 취했기 때문이라 단정한 사실을 찾아내고, 황만근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은 것을 서술한 경우 (5점)
 (2) 제시문 (마)에서 문 서방이 지주들에게 반감이 있다는 사실을 찾아내고, 이들의 죽음에 기뻐했다는 것을 서술한 경우 (5점)
 (3) 이장과 문 서방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타인을 평가하며, 이해와 연민이 없이 타인의 생명에 무관심했다는 유사점을 서술한 경우 (5점)

3) 제시문 (라)의 ‘이장’에게 필요한 자세를 제시문 (바)와 (사)에서 찾아 서술했는지 평가한다. (10점)

- (1) 제시문 (바)에서 도시나 사회의 성장을 위해서는 사소한 요소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찾아 이장의 태도에 적용하여 서술한 경우 (5점)
 (2) 제시문 (사)에서 하찮게 보이는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찾아 서술한 경우 (5점)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2]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라)의 민 씨와 (마)의 문 서방의 차이점을 썼는지 평가 (15점)	(라)에서 민 씨에게 일관된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적극적으로 항변했다는 것을 씀	8점
		(마)에서 문 서방이 재판 결과를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내용을 찾아 씀	7점
	(라)의 이장과 (마)의 문 서방의 유사점을 썼는지 평가 (15점)	(라)에서 이장의 특징을 찾아 씀	5점
		(마)에서 문 서방의 특징을 찾아 씀	5점
		민 씨와 문 서방의 유사점 찾아 정리함	5점
	(라)의 이장이 갖추어야 할 자세를 (바)와 (사)에서 찾아 썼는지 평가 (10점)	(바)에서 특징을 찾아 이장의 자세에 적용함	5점
		(사)에서 특징을 찾아 이장의 자세에 적용함	5점

[문제 3] 2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 (-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330~35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 (20점)

1) 제시문 (아)에 나타난 GMO 업계의 주장을 제시문 (자)에 설명된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명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하였는지 평가한다. (12점)

- (1) GMO 업계에 따르면, GMO는 작물의 생산 원가를 낮추고 농약 투입 규모를 줄일 수 있으므로 명시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공헌할 수 있으나, 높은 종자 가격, 특수한 제초제 구매 강요, 잡초 내성 증가로 인한 제초제 추가 사용이라는 새로운 비용이 추가돼 전체적으로 명시적 비용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기술한 경우. (8점)
- (2) 환경 단체에 따르면, GMO는 미래 세대에게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자연 생태계의 교란과 파괴를 초래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안정성과 생태계 보호라는 가치를 희생시키는 암묵적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합쳐 전체적으로 오히려 기회비용을 더 높일 수 있음을 이해하여 기술한 경우. (4점)

2) 제시문 (아)의 GMO 업계가 ‘지속 가능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자세를 제시문 (사)의 자연 존중, 제시문 (차)의 생태 중심주의 자연관에서 각각 찾아 설명하였는지 평가한다. (8점)

- (1) 집 마당에 시간과 계절의 변화에 따라 각자 정해진 시기에 다양한 꽃들이 피어나고 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그 순서를 기다리며 자연의 섭리와 속도를 존중하는 자세를 이해하고 기술한 경우. (4점)
- (2) 생태주의 자연관에 따라 인간과 자연은 서로의 일부이며, 상호 연결되어 있어 생태계에 일어나는 일은 인간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하여 인간과 생태계의 공존을 존중하는 자세를 찾아 기술한 경우. (4점)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3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3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3]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20점)	① (아)의 GMO 업계의 주장을 제시문 (자)에 설명된 기회비용,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명확하게 서술 (12점)	(아)에 나타난 GMO 업계 논리를 (자)의 명시적 비용 개념으로 설명하여, 원가 절감과 농약 사용 감소로 명시적 비용이 낮다는 논지를 제시	2-4점
		(아)에 나타난 GMO의 부작용인 비싼 종자 값, 특수 제초제 사용과 자연의 내성 증가를 추가적인 명시적 비용으로 파악하여 논지를 제시	2-4점
		非GMO 작물이 미래 세대와 생태계에 안정성을 가지는 데 반해, GMO는 이를 포기하는 암묵적 비용을 수반하므로, GMO의 전체 기회비용이 오히려 더 높을 수 있다는 논지를 제시	2-4점
	②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아)의 GMO 업계가 고려해야 할 자세로서 (사)와 (차)에서 자연의 질서, 생태계 존중을 각각 찾아 명확히 서술 (8점)	(사)에서 수많은 꽃이 각자 자연이 정한 순서대로 차례로 피고 지는 모습을 자연의 섭리와 규칙으로 파악한 논지를 제시	2-4점
		(차)에서 인간과 자연은 서로의 일부이며 긴밀히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인간과 생태계의 공존이 중요하다는 논지를 제시	2-4점

202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 기출문제(일반형) **경영경제계열**

문제 및 제시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앞부분 줄거리] ‘나’는 이사 온 지 삼 년째 되던 해 봄에 나물 장수 아주머니가 흰 철쭉을 망연히 바라보고 있음을 알게 된다. ‘나’는 그 아주머니가 집터의 옛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모셔 사연을 들어 보기로 한다.

아주머니는 원래 일정 말기에 황해도의 한 농촌 마을에서 갓 스물에 이곳으로 출가를 해 왔는데, 예의 흰 철쭉은 그녀가 시집을 오기 전에는 친정집 채소밭 가에 서 있었던 것이었다. 그것을 어느 봄 친정어머니가 모처럼 딸네 집 먼 나들이를 오면서 고향 부모 정물로 파다 심어 주고 간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친정어머니가 그것을 심고 간 그해 여름 바로 8·15 해방을 맞게 됐고, 이어 서로 간에 소식이나마 오갈 길이 끊기고 말았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그 철쭉이라도 해마다 흰 꽃을 피워 주어 아주머니는 그것으로 이 30여 년을 고향 식구들 대하듯 마음을 달래 왔노라고 하였다. 아주머니는 뒤늦게 집을 팔고 떠난 것이 후회스러운 듯 아쉬운 한숨까지 지었다.

아주머니네는 성남 변두리에 셋방 한 칸을 얻어 살면서 인근 산간으로 나물 뜯이를 나다니고 있었는데, 하룻밤은 느닷없이 피곤한 잠결에 옛날 살던 집 철쭉꽃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아주머니가 꿈속에서 본 것은 다만 흰 철쭉꽃만이 아니었다. 아주머니가 봄마다 꽃 꿈을 꾸고 그것을 보러 오고, 그 꽃으로 마음을 놓고 돌아가는 것은 그녀가 아직도 고향과 친정어머니를 잊지 못하고 거기서 친정의 무고를 믿고 싶은 애절한 기원과 기다림 때문이었다.

아내나 나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1년에 한 번씩 우리 집을 찾아 나무가 계속 꽃을 잘 피워 주고 있는 것만 보고 가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하였다. 다음 해에도 5월로 접어들자 철쭉은 어김없이 흰 꽃을 만발했고, 아주머니도 때맞춰 나물 광주리를 이고 동네를 찾아왔다. 이듬해에도 또 그 이듬해에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집에 산나물을 꽃 값으로 선물하고 꽃을 보고 안심스레 오던 길을 돌아갔다. 우리는 갈수록 철쭉의 생육 상태에 마음이 쓰이고 있었다. 나무에 어떤 병충해라도 끼지 않을까, 거름이 부족하거나 넘치지는 않을까, 겨울철 추위에 동해를 입지나 않을까…… 봄이 되면 꽃이 제대로 피어 줄지 어떨지 지레 조바심이 쳐지기까지 하였다. 우리로선 그저 철쭉이나 계속 잘 보살피는 것뿐이었다. 그러면서 모조록 그녀가 마음속의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기만을 빌었다. 그 희망으로 자신을 지탱했다가 이듬해 봄에도 꽃을 보러 오기를 진심으로 빌었다.

(나) [앞부분 줄거리] 대학에 재학하던 병국은 고향인 석교 마을로 돌아온다. 고향에 내려온 이후 병국은 동진강 일대의 환경 문제에 관심을 둔다. 어느 날, 병국은 동생 병식이 철새 도래지에서 새들을 독살하는 이들과 한패일 것이라는 의심을 한다.

“입 닫아.” 병국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괜히 엄숙 떨지 마.”

“너 그날 석교천 방죽에서 새를 독살하고 오던 길이지?”

“그게 뭘 어쨌다는 거야?” 병식의 표정에서 장난기가 사라졌다.

“뻔뻔스런 자식. 언제부터 그 짓 시작했어? 왜 새를 죽여, 죽인 새로 뭘 해?”

병국이 언성을 높였다.

“별 말코 같은 소릴 다 듣는군. 날아다니는 새도 임자 있나? 지구의 새를 형이 몽땅 사들였어?”

“누가 네게 그 일을 시켜? 그 사람을 대.”

“형이 고발할 테야? 날아다니는 새 잡아 박제한다구? 그건 죄가 되구, 허가 낸 사냥총으로 새 잡는 치들은 죄가 안 된다 말이지?” 병식이 코웃음 쳤다.

“희귀조가 멸종되고 있다는 건 너도 알지? 인간이 새를 창조할 순 없어.”

“개떡 같은 이론은 집어치워. 지구상에는 삼십억 넘는 새가 살아. 그중 내가 몇 마리를 죽였다 치자, 형은 그게 그렇게 안타까워?”

“박제하는 놈을 못 대겠어?” 병국이가 의자에서 일어나 아우 먹살을 틀어쥐었다.

“못 볼겠다면? 형이 고발해 봐. 형 손에 아우가 쇠고랑 차지!”

“말이면 다야!” 병국의 주먹이 아우 턱을 갈겼다.

“형이 날 쳤어!” 그는 마른 장작개비 같은 형을 바닥에 내동댕이치곤 의자를 치켜들었다. 형 면상에다 의자를 찍으려다 그 짓은 차마 못 하겠다는 듯 손을 내렸다.

“오늘은 내가 참아. 몰래 맞을 짓을 했담 형한테 맞아 주겠어. 그러나 내가 새를 독살한 것도 아니구, 심심풀이로 족제비 따라 개펄로 나갔는데, 치사하게 동생을 고발해!”

병식은 가방을 챙겨 들더니 출입문을 열어젖혔다.

박제품이 보호조가 아닌 이상 처벌 대상인지 어떤지도 모호했다. 나무 한 그루를 베어도 처벌받는 산림법 벌칙이 조류에는 해당이 되지 않았다. 새의 독살은 자기 살점을 뜯어내는 고통과 같았기에 야생 동물 보호 협회와 협의해서 강구책을 세우기로 했다.

병국은 중앙 공원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발걸음이 무거웠고 마음도 편치 않았다. 황혼 무렵, 바다로 향해 자맥질하는 새 떼를 구경하기로 결정했다. 마침 옹포리행 버스가 와서 승차했다. 뒷좌석에 앉자 그는 눈을 감았다. 피곤에 찌들어 잠을 자듯 늘어졌다. 사냥꾼이 도요새를 수렵하고, 중금속에 오염된 폐수와 폐수를 터 삼은 물고기가 도요새에게는 오히려 독이었다. 왜 도요새가 당하는 피해만 환상으로 떠올랐는지 몰랐다.

(다) [앞부분 줄거리] 명은이 외할머니는 ‘나(건호)’에게 명은이의 말동무가 되어 주어 고맙다는 인사와 자주 놀러 오라는 말을 한다. 그리고 부모가 한꺼번에 죽는 것을 보고 명은이의 눈이 멀었으니 명은이 앞에서는 절대 부모 이야기, 사람이 죽고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 장님 이야기는 꺼내지 말라고 당부한다.

바로 그때였다. 종소리가 데엥, 하고 묵중하게 울렸다.

“딸고만이 아버지가 시방 종을 치고 있는 중이여. 명은이 너, 딸고만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지? 딸고만이 아버지는…….” 다섯 번째로 또 딸을 낳고 나서 지어 준 이름이 딸고만이였다. (중략)

“억울한 사람은 누구든지 종을 칠 수 있다고?” 느슨히 잡고 있던 내 손을 갑자기 꼭 움켜쥐면서 명은이가 물었다. 나는 괜스레 우쭐해진 나머지 얼굴에 허세를 부리고 말았다.

“그렇다니께. 아무나 다 종을 침시나 맘속으로 소원을 빌으면은 그 소원이 죄다 이뤄진디야.”

명은이가 내게 무리한 부탁을 해 온 것은 신광 교회 종탑에서 색다른 경험을 한 바로 그다음 날이었다.

“건호야, 날 다시 교회로 데려가 줘. 제발 부탁이야. 딱 한 번만 내 손으로 직접 종을 쳐 보고 싶어. 내 손으로 울리는 종소리를 듣고 싶을 뿐이야.”

나는 명은이의 진짜 속셈이 무엇인가를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다. 동화 속의 늙고 병든 백마를 흉내 내고 싶은 것이었다. 버림받은 백마처럼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성주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이었다. 다름 아닌 눈을 뜨고 싶다는 소원을 하나님에게 전할 속셈임이 틀림없었다.

“알었다고. 알었다니깐.” 끝끝내 명은이의 간청을 뿌리칠 재간이 내게 없다는 사실을 나는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다.

명은이 손을 잡고 신광 교회 돌계단을 오르는 동안 내 온몸은 사뭇 떨렸다. 명은이가 소원을 이룰 수만 있다면 딸고만이 아버지한테 맞아 죽어도 상관없다고 각오를 다지면서 나는 젖은 빨래를 쥐어짜듯 모자라는 용기를 빨끈 쥐어짰다. 신광 교회는 어둠 속에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까마득한 종탑 꼭대기를 올려다보며 연거푸 심호흡을 해댔다. 명은이 손에 밧줄을 쥐여 주고 나서 나는 양팔을 뻗어 밧줄에다 내 몸무게를 몽땅 실었다. 나는 죽을힘을 다해 밧줄을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소원 빌을 준비를 해!”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데엥, 하고 첫 번째 종소리가 울렸다. 그 첫 소리를 울리기까지가 힘들었다. 뎡그렁 뎡, 뎡그렁 뎡, 기세 좋게 울려 대는 종소리에 귀가 갑자기 멎어버렸다.

“소원을 빌어! 소원을 빌어!”

한창 종 치는 일에 고부라져 있었던 탓에 딸고만이 아버지가 달려오는 줄도 까맣게 몰랐다. 기차 화통 삶아 먹은 듯한 고향과 동시에 그가 와락 덤벼들어 내 손을 밧줄에서 잡아떼려 했다. 한데 엉클어져 악착스레 종을 쳐 대는 두 아이를 혼잣손으로 좀처럼 떼어 내기 어렵게 되자 나중에는 딸고만이 아버지도 밧줄에 함께 매달리고 말았다. 그 어느 때보다 기운차게 느껴지는 종소리가 어둠에 잠긴 세상 속으로 멀리멀리 퍼져 나가고 있었다. 명은이 입에서 별안간 울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때때옷을 입은 어린애를 닮은 듯한 그 울음소리를 무동 태운 채 종소리는 마치 하늘 끝이라도 닿으려는 기세로 독수리처럼 높이높이 솟구쳐 오르고 있었다.

(라) 강남 부동산 박 씨의 동업자인 고흥택 말에 의하면 한때는 강남땅을 떡 주무르듯 했던 큰손이었다가 밝힐 수 없는 모종의 사건으로 한재산 다 날리고 달랑 맨손으로 부천에 내려와 별 볼 일 없는 거간꾼이 돼 버렸다는 박 씨였다. 별 볼 일 없다고는 하지만 박 씨가 원미동에서 한재산 단단히 붙잡았다는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청소부가 쓰레기를 모아 태운 공터도 강남 부동산에서 계약서 쓰고 강 노인이 팔아넘긴 땅이었다. 이것을 빼고도 소방 도로 왼쪽에는 팔아 버리지 않은 땅이 백 평 남짓한 덩어리로 셋이나 되었다. 문제는 그 비싼 땅에다가 강 노인은 한사코 푸성귀 따위나 가꾸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데 있었다. 지난 몇 년간 여러 차례 임자가 나섰건만 이제는 절대 땅을 팔지 않겠다는 강 노인 고집에 막혀, 시청으로 통하는 2차선 도로의 양편으로는 여전히 밭농사가 계속되는 중이었다.

강 노인이 팽이를 내던지고 밭 끄트머리로 걸어가는 사이 언제 나왔는지 부동산의 박 씨가 알은체를 하였다. 박 씨의 면상을 보는 일이 강 노인으로서의 괴롭기 짝이 없었다. 얼굴만 마주쳤다 하면 땅을 팔아 보지 않겠느냐고 은근히 회유를 거듭하더니 지난겨울부터는 임자가 나섰다고 숯제 집까지 찾아와서 온갖 감언이설을 다 늘어놓는 박 씨였다.

“아직도 늦은 것은 아니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여름마다 똥 냄새 풍겨 주는 밭으로 두고 있느니 평당 백만 원 이상으로 팔아넘기기가 그리 쉬운 일입니까. 이제는 참말이지 더 이상 땅값이 오를 수가 없게 돼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영감님도 욕심 그만 부리고 이만한 가격으로 임자 나섰을 때 후딱 팔아 치우시요. 영감님이 아무리 기다리셔도 인자 더 이상 오르기는 어렵다는데 왜 못 알아들으실까잉. 할머니도 팔아 치우자고 저 야단인디…….” 고흥택은 이제 강 노인 마누라까지 쳐들고 나선다.

“아직도 유 사장 마음은 이 땅에 있는 모양이니께 금액이야 영감님 마음에 맞게 잘 조정해 보기로 하고, 일단

결정해 뿌리시요!”

땅값 따위에는 관계없이 땅을 팔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을 누차 했건만 박 씨의 말본새는 언제나 저 모양이다. 서울 것들이란. 저들이 원래 전라도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으나 강 노인에게 있어 동네 사람들은 어쨌거나 모두 서울 끄나풀들이었다. 겨울 동안 좀 쉬고 있는 밭에다가 망할 놈의 연탄재나 내다 버리는 못된 습성까지 떠올리면 더욱 괴씸하기 짝이 없는데, 그가 아는 서울 것들의 내력은 모조리 그런 것투성이였다. (중략)

강 노인이 시들시들한 잎사귀를 펼쳐 보는데 미용실 여주인이 그를 불렀다.

“오늘 저희 집에서 반상회 있어요. 아무래도 오늘 저녁에는 정미 엄마가 가만있을 것 같지 않네요. 아까도 무궁화 연립에 사는 이들꺼정 물려와서 한바탕 쏟아 놓고 갔어요. 꼭 참석하셔야 해요.”

동네 사람들이 극성을 부리는 데에도 까닭은 있었다. 강 노인네 땅덩이들이 팔려서 거기에 변듯한 건물들이 들어서야 이 거리가 완벽하게 채워지기 때문이었다. 동네 신수가 흰해야 집값도 오를 터인데 강 노인 밭이 저리고 있어서야 제값대로 보지 않는다는 불만들이 클 것임은 자명했다.

다음 날 아침, 첫새벽부터 밭에 나갔던 강 노인은 그만 입을 짝 벌리고 선 채 말을 잃었다. 세상에 이런 법은 없었다. 이제 손가락만 한 고추 모종이 깔려 있는 밭에 여기저기 연탄재들이 나뒹굴고 있지 않은가. 독기 어린 동네 사람들이 저지른 것임은 대변에 알 수 있었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여도 이런 짓거리까지 해 댈 줄이야 짐작도 못 했던 강 노인이었다. 강 노인은 밭으로 달려들어 가서 닥치는 대로 연탄재를 길가에 내던졌다. 서울 것들이나 되니 살아 있는 밭에 해코지할 생각을 갖지, 땅을 아는 자라면 저 시퍼런 하늘이 무서워서라도 감히 이따위 행패를 생각이나 하겠는가.

강 노인은 그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여야만 했다. 자식 농사는 포기한 지 오래지만 해마다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는 재미만큼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그였다. 씨 뿌린 땅에서 거두어들이는 수확이 아닌 답에야 어찌 땅 팔아서 그 돈으로 쌀 사고 채소 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마지막 땅 조각을 붙들고 있다는 위안이 강 노인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마) [앞부분 줄거리] ‘나’는 대학 졸업 후 직장에 들어가 돈을 다루는 업무를 맡는다. 하지만 곧, 돈 세는 기계가 되어 버린 스스로의 모습에 환멸을 느끼고 고향을 찾는다.

고향 집에서 며칠을 보내며 내 살아온 지난날들을 더듬다 보니 자연스레 공책에다 뭔가를 끼적이게 되었다. 나도 모르게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대단한 내용을 담은 글은 아니었으나 글을 쓰다 보니 내 마음이 가라앉고 위안이 되었다. 어쩌면 나는 그 누구도 아닌 내 영혼을 쓰다듬는 글과 내 마른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 주기 위해 글을 끼적이고 있는지도 몰랐다. 비록 시는 아니지만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스스로를 위한 글을…….

나는 더욱 글에 매달렸다. 때로는 내가 고등학교 때의 선생님이 되어 보기도 하고, 직장의 상사가 되어 보기도 했다. 글이란 게 묘해서 화자가 누가 되었든 결국 쓰는 사람 얘기였다. 나는 그렇게 다시 글을 쓰는 사람이 되었다. 고등학교 때는 공부 기계가 되기를 거부하다 보니 시를 쓰게 되었고,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엔 돈 세는 기계가 되기를 거부하다 보니 글을 쓰게 되었다.

휴가가 끝난 뒤에도 나는 직장에 다시 나갈 생각조차 하지 않고 글에만 매달렸다. 처음에는 낯두리도 있고 푸념도 있었지만 차츰 내 글의 방향과 형식이 잡혀 갔다. 결국 글을 쓰다 보니 세상을 건지느니 인생을 풍요롭게 하느니 하는 것보다는 뭐니 뭐니 해도 스스로를 위해 글을 쓴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의 얘기를 쓰는 것 같은데도 끝내 그 글을 통해 위로를 받는 이는 나 자신이었으니까.

그렇게 날마다 썼다. 한때는 시에 목숨을 건 적도 있지만 새로 쓰는 글은 시가 아니었다. 소설 쪽에 더 가까운

글이었다. 소설 쓰는 걸 업으로 삼은 뒤에도 옛날 생각은 더욱 하지 않았다. 그저 새로 태어나야 하는 나에게만 관심을 두었다.

- (바) 직업은 첫째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다. 인간은 직업 활동을 통해서 생존에 필요한 재화를 얻고 물질적, 정신적, 문화적 풍요를 향유하며 삶의 보람과 긍지를 갖게 된다. 맹자는 “백성이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 바른 마음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했다. 즉 기본적인 생계가 유지되어야만 일상생활에서 도덕적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직업은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능동적인 활동이다. 인간은 직업을 통해 개성을 발휘하고 자아를 실현하며 바람직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수 있다. 실천 윤리학자 싱어는 무의미한 노동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치 있는 목적을 설정하고 능동적으로 일을 함으로써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할 바람직한 기준은 무엇일까? 만약 직업이 돈과 명예, 권력 등 외재적인 가치 추구만을 위한 도구가 된다면 행복한 직업 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보았다. 결국 직업이 행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일 그 자체가 어떤 것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직업과 일 그 자체는 행복한 삶의 바탕이 된다. 직업 생활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직업관을 가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소질과 적성, 능력, 가치관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 (사) 배고플 때 밥 먹는 걸 욕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피곤할 때 잠자는 걸 욕심이라고 하지 않지요. 추울 때 옷 입고 따뜻한 곳을 찾는 것을 욕심이라고 하지 않아요. 배가 부르데도 식탐 때문에 꾸역꾸역 먹는 것, 다른 사람이 굶어 죽는데도 나누어 먹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욕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기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괴로워합니다. 그 괴로움의 밑바닥에는 욕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욕심을 내려놓고 대신에 원(願)을 세우라고 합니다.

이때 욕심과 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괴로운 마음에 시달린다면 그것은 욕심이에요. 반면 원을 세운 사람은 바라는 바를 이루려고 노력은 하되 실패해도 낙담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아요.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 다시 도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크든 작든 원을 세우고 연구하고 노력하면 실력이 붙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당장은 실패할지 몰라도 결국 성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실력도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더 잘 해결해 보려고 연구하고 노력한다면 그건 원입니다. 그러다 이걸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라는 판단이 들면 아무리 오랫동안 해 온 일이라도 툭툭 털어 버리고 다른 일을 합니다.

결국 욕심을 버리라는 뜻은 무조건 부자가 되지 말라, 출세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 정말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욕심으로 하지 말고 원을 세워 성취해 보라는 것입니다. 원을 세우고 그 원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할 때 삶에 재미가 붙고 활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바라는 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 (아) 어렸을 때 만화 「뽀빠이」를 보는데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말라깽이 올리브는 어느 날 먹성이 아주 좋은, 기름기 쫄쫄 흐르는 남자의 구애를 받게 되지요. 그런데 그 남자는 이렇게 외쳐요. “당신의 머리카락은 스파게티 가락처럼 아름다워요.”, “당신과 나 사이는 샌드위치 속의 베이컨과 계란 사이처럼 가까워요.” 그때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먹보는 먹보같이 사랑하고, 계산적인 사람은 계산적으로 사랑하고, 깨끗한 사람은 깨끗하게 사랑하겠구나.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아주 좋아하면 세상만사를 그걸로 설명할 수도 있구나.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좋아하는 사람 눈에는 세상이 온통 돈으로 보인다고. 그때 이후로 줄곧 제게 남은 문제는 하나였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사랑할 것인가? 무언가를 사랑하면 그 무언가를 사랑하는 모습

그대로 세상을 사랑하게 되겠구나.

저는 뭔가를 깊이 좋아하는 사람은 그 하나의 사랑에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모든 가치를 부여하고 그 하나의 사랑에서 출발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구하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비인격적으로 취급하는 일이 만연하는 세상에서, 모든 것이 거래되는 세상에서 사랑만은 유일하게 거래할 수 없습니다. 사랑만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기에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됩니다. 우리에게 오늘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치를 두는 것을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나를 바꾸어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힘 있게 존재할 수 있는 방식 아닐까요?

[문제 1] 제시문 (가)~(라)에는 어떤 대상에 대한 인물의 애착이 나타난다.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각각 나물 장수 아주머니, 병국, 명은, 강 노인이 애착을 보이는 ‘대상’과 그 ‘이유’를 쓰고,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그 애착에 대해 부부, 병식, 건호, 동네 사람들이 보이는 각각의 ‘반응’과 그 ‘이유’를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제시문 (바)와 (사)를 각각 고려하여 제시문 (라)의 ‘박 씨’와 제시문 (마)의 ‘나’가 직업에 대해 보이는 태도의 차이점을 쓰고, 제시문 (라)의 ‘박 씨’에게 필요한 자세를 제시문 (아)를 바탕으로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 다음 상황에 기초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풀이 과정 포함)

- 제마일에 대한 애정이 커서 행사 참여도가 높은 고참여 주민 20명과 그렇지 않은 저참여 주민 10명이 살고 있는 어떤 마을에서, 주민들의 행사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마을사랑 쿠폰’을 지급하려고 한다.
-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쿠폰 지급 정책이 제안되었다.
 - 정책 1: 고참여 주민에게는 각각 $\frac{4}{5}$ 의 확률로, 저참여 주민에게는 각각 $\frac{2}{5}$ 의 확률로 쿠폰 한 장을 지급한다. 각 주민에 대한 지급 여부는 서로 독립이다.
 - 정책 2: 먼저 고참여 주민 17명, 저참여 주민 6명을 임의로 선택해 쿠폰을 한 장씩 지급한다. 다음으로 쿠폰을 받지 못한 모든 주민 중 임의로 2명을 선택해 쿠폰을 한 장씩 지급한다.
- 각 정책에서 고참여 주민에게 지급한 쿠폰의 개수를 X , 저참여 주민에게 지급한 쿠폰의 개수를 Y 라고 할 때, 정책의 효능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text{효능}) = E(X) - \frac{7}{10}V(X) + \frac{1}{5}E(Y) - a\{E(X) + E(Y)\} + 10$$

- 두 정책 중 효능이 더 높은 정책을 선택하며, 만약 효능이 같다면 ‘정책 1’을 선택한다.

[문제 3] ‘정책 1’이 ‘마을사랑 쿠폰’의 지급 정책으로 선택되기 위한 a 의 최솟값을 구하시오. [20점, 원고지 작성법을 준수할 필요 없음]

1. 평가 목표와 출제 의도

평가 목표

경영경제계열 논술 시험은 고교 교육 과정에서 배운 지식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모두 갖춘 통합형 인재를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수험생들의 추론적 · 논리적 사고력에 기초한 종합적 사고력과 자신의 주장을 적절한 언어에 담아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2026학년도 논술에서 사용된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글에서 선별하였고, 논술 문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다양한 각도에서 독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교육부의 '고등학교 핵심 성취기준'에 부합되도록 출제하였다. 2026학년도 경영경제계열 논술의 핵심 키워드는 '애착'으로, 1번 문항의 경우 애착을 보이는 '대상'과 그 '이유, 그리고 주변인들이 애착에 보이는 '반응'과 그 '이유'를 묻고 있다. 2번 문항의 경우 직업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에 대한 질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 '애착'과 직간접으로 연관성이 있는 제시문을 읽고 그 요지와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텍스트 독해력, 2) 각 제시문의 인물이 직업을 대하는 태도를 도출하여 이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거나 함축하는 내용에 비추어 분석, 요약, 종합하는 맥락적 사고력, 3) 직업을 대하는 태도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거나 함축하는 내용에 비추어 이해하고, 이를 여타 제시문에 비추어 비판하는 유추적 사고력, 4) 이러한 능력을 토대로 주어진 시간에 문제에 대한 답을 정확한 문장으로 구성하여 표현하는 논리적 글쓰기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출제 의도와 논제 접근 방법

[문제 1]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1) 동일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제시문을 읽고 그 핵심 요지를 파악하는 독해력, 2) 제시문의 내적 요소들을 다양한 맥락에 비추어 해석함으로써 제시문의 논지를 밝히고 그 논지의 차이를 비교하고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해 내는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주어진 제시문 (가)~(라)를 꼼꼼하게 읽으면서 등장인물이 보이는 애착의 대상과 그 이유를, 그리고 주변인들이 보이는 반응과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자신의 언어로 압축하고, 단순 요약이 아닌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된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문제 2]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1) 제시문을 정확하게 읽고 그 핵심 요지를 파악하는 독해력, 2) 특정 글의 논지에 근거하여 다른 글에서 문제점을 도출하는 비판적 사고력, 3) 서로 보완적인 관점들을 활용하여 특정한 목적을 위해 취해야 할 태도를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제시문 (라)의 박 씨와 (마)의 '나'가 직업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를 이해하고, 제시문 (바)와 (사)로부터 판단 기준을 도출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라)의 박 씨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 추론하여 기술해야 한다.

[문제 3]

일상생활에서의 복잡한 상황을 더 쉽게 표현하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상황을 확률적 문제로 계량화하는 작업은 아주 중요하다. 특히, 상황에 따른 확률변수와 확률분포를 이해하는 과정은 확률적 상황 및 성질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본 문제에서는 이항분포와 이산확률변수의 확률분포를 이용하여 두 개의 조건에 따른 기댓값 및 분산을 각각 계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두 조건을 비교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2. 제시문 출전과 해설

- 제시문 (가): 이청준, 「흰 철쭉」, 김동환 외 5인, 『국어』, 교학사, 2019, 347-355쪽.
- 제시문 (나): 김원일, 「도요새에 관한 명상」, 고형진 외 12인, 『국어』, 동아출판, 2018, 233-240쪽.
- 제시문 (다): 윤흥길, 「종탑 아래에서」, 박영목 외 5인, 『국어』, 천재교육, 2018, 151-169쪽.
- 제시문 (라): 양귀자, 「마지막 땅」, 박영민 외 5인, 『국어』, 비상교육, 2018, 270-283쪽.
- 제시문 (마): 박상률,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 조정래 외 5인, 『문학』, 해냄에듀, 2019, 108-113쪽.
- 제시문 (바): 편집진, 「직업 생활과 행복한 삶」, 차우규 외 5인, 『생활과 윤리』, 금성출판사, 2018, 79-81쪽.
- 제시문 (사): 법륜, 「욕심은 내려놓고 원은 세운다」, 류수열 외 5인, 『국어』, 금성출판사, 2018, 310-311쪽.
- 제시문 (아): 정혜윤,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최원식 외 5인, 『문학』, 창비, 2019, 56-57쪽.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국어』(교학사, 2019)에 실린 이청준의 글 「흰 철쭉」을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에서는 등장인물의 애착 대상을 찾아내고 애착 관계에 대한 주변인물의 반응과 이유를 유추하는 데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원문의 내용을 유지하는 선에서 작품의 일부분을

수정, 편집하였다. 「힌 철쭉」은 남북 이산가족의 아픔과 한을 통해 우리 민족의 분단 현실을 형상화한 소설로, 분단의 과정에서 빚어진 가족 및 사회 공동체의 붕괴와 분단 상황이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 이야기한다. 이 제시문에서 부부는 새로 이사 온 집의 조경수인 힌 철쭉의 자태에 감동한다. 몇 년 후 힌 철쭉을 망연히 바라보는 옛 주인 아주머니의 사연을 듣고, 그녀에게 깊은 연민을 느끼며 그녀가 철쭉을 보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지속할 수 있도록 철쭉을 정성으로 돌본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국어』(동아출판, 2018)에 실린 김원일의 「도요새에 관한 명상」을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에서는 등장인물의 애착 대상을 찾아내고 애착 관계에 대한 주변인물의 반응과 이유를 유추하는 데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원문의 내용을 유지하는 선에서 작품의 일부분을 수정, 편집하였다. 「도요새에 관한 명상」은 동진강 하구에 거주하는 한 가족을 통해 생태환경 문제와 분단 문제를 파헤친 소설이다. 작가는 동생과 형, 아버지 세 명의 인물을 모두 화자로 등장시켜 이들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다룬다. 이 제시문에서 사용한 제2장에서는 형 병국의 시각에서 생태, 환경 문제를 다루며 성장 이데올로기에 빠져 중요한 가치들을 간과하였던 1970년대 한국 사회를 고발한다. 형 병국은 새를 독살하여 박제사에게 넘기는 친구를 도와 용돈벌이를 하는 동생 병식과 대립한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국어』(천재교육, 2018)에 실린 윤홍길의 「종탑 아래에서」를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에서는 등장인물의 애착 대상을 찾아내고 애착 관계에 대한 주변인물의 반응과 이유를 유추하는 데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원문의 내용을 유지하는 선에서 작품의 일부분을 수정, 편집하였다. 「종탑 아래에서」는 전쟁의 충격으로 눈이 멀게 된 소녀와 그 소녀의 처지를 마음 아파하는 소년의 이야기이다. 건호는 군청 관사를 지나다가 전쟁으로 부모를 한꺼번에 잃고 그 충격으로 눈이 먼 채 외갓집 식구를 따라 익산에 내려와 있던 명을 알게 된다. 이 제시문에서 명은 건호에게 소원을 이뤄주는 종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교회의 종을 치게 해 달라고 간청한다. 건호는 명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마침내 명과 함께 종을 치는 데 성공하고, 명은 마음속으로 소원을 빈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국어』(비상교육, 2018)에 실린 양귀자의 「마지막 땅」을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에서는 등장인물의 애착 대상을 찾아내고 애착 관계에 대한 주변인물의 반응과 이유를 유추하는 데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원문의 내용을 유지하는 선에서 작품의 일부분을 수정, 편집하였다. 「마지막 땅」의 배경이 된 1980년대는 산업화,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서울의 주택난과 부동산 투기가 겹치며 본격적인 신도시 개발이 시작된 시기이다. 이 제시문에 나타난 강 노인과 동네 사람들의 대립은 삶의 근원인 땅이 도시화의 흐름 속에서 개발의 대상이자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인식이 변화하게 되는 당시 사회를 잘 보여준다. 시대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땅의 전통적 가치를 끝까지 붙잡고자 하는 강 노인은 공동체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문학』(해냄에듀, 2019) 교과서에 수록된 박상률의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을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글은 '나'가 대학 졸업 후 직장에 들어가 돈을 다루는 일을 하다가, 휴가 동안 우연히 글쓰기에 몰입하며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나'는 다양한 주제로 끊임없이 글을 쓰면서 글쓰기를 통해 스스로 위안을 얻고, 일을 통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는다. 이를 통해 독자는 진정한 일의 의미와 자기 삶의 방향에 대해 성찰할 수 있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금성출판사, 2018) 교과서에 수록된 「직업 생활과 행복한 삶」을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글은 직업의 의미를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하나는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 재화를 얻고 정신적·문화적 풍요를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생계유지 활동이고, 다른 하나는 개성을 발휘하고 자아를 실현하며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자아실현 활동이다. 나아가 직업 선택의 기준과 행복의 관계를 설명하며, 바람직한 직업관이 필요한 이유를 삶의 궁극적 행복 추구와 연결해 제시한다.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 『국어』(금성출판사, 2018) 교과서에 실린 법륜의 「욕심은 내려놓고 원은 세운다」를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욕심과 원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욕심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괴로워하며, 적은 노력으로 큰 것을 얻으려는 마음을 뜻한다. 반면, 원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되 실패하더라도 쉽게 낙담하거나 괴로워하지 않는다. 특히, 문제가 생길수록 연구하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무엇을 바랄 때 욕심이 아니라 원으로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노력하는 삶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함을 독자에게 성찰하게 한다.

제시문 (아)는 고등학교 『문학』(창비, 2019) 교과서에 실린 정혜윤의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를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삶의 핵심적 가치를 설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면 그 가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관점 그대로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는 깨달음을 제시한다. 나아가 인간을 비인격적으로 취급하고 모든 것이 거래되는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거래될 수 없는 사랑의 가치를 강조한다. 따라서 의미 있는 삶의 가치를 찾고, 그 가치를 바탕으로 사랑함으로써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한다.

문제 3번 수리논술 문제에 사용된 지문은 다음 교과서에 나오는 주요 개념들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 권오남 외, 『확률과 통계』, III-1-1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교학사, 2023, 80-88쪽.
- 이준열 외, 『확률과 통계』, III-1-1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천재교육, 2024, 82-90쪽.
- 고성은 외, 『확률과 통계』, III-1-1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좋은책신사고, 2020, 78-83쪽.
- 권오남 외, 『확률과 통계』, III-1-2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평균)과 표준편차, 교학사, 2023, 89-95쪽.
- 이준열 외, 『확률과 통계』, III-1-2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과 표준편차, 천재교육, 2024, 91-97쪽.
- 고성은 외, 『확률과 통계』, III-1-2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과 표준편차, 좋은책신사고, 2020, 86-91쪽.
- 권오남 외, 『확률과 통계』, III-1-3 이항분포, 교학사, 2023, 96-101쪽.
- 이준열 외, 『확률과 통계』, III-1-3 이항분포, 천재교육, 2024, 98-103쪽.
- 고성은 외, 『확률과 통계』, III-1-3 이항분포, 좋은책신사고, 2020, 92-96쪽.

3. 예시 답안

[문제 1] 제시문 (가)~(라)에는 어떤 대상에 대한 인물의 애착이 나타난다.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각각 나물 장수 아주머니, 병국, 명은, 강 노인이 애착을 보이는 ‘대상’과 그 ‘이유’를 쓰고,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그 애착에 대해 부부, 병식, 건호, 동네 사람들이 보이는 각각의 ‘반응’과 그 ‘이유’를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각 제시문에는 특정 대상에 대한 애착과 주변인들의 반응이 드러난다. 제시문 (가)에서는 고향과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을 달래주는 철쭉에 대한 아주머니의 애착이 드러나며, 부부는 아주머니의 희망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그녀를 향한 연민을 가지고 철쭉을 정성으로 돌본다. (나)에서는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은 병국이 새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고, 병식은 형의 말에 공감하지 못하고 형이 자신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여 형의 말에 비아냥거리며 반항한다. (다)의 명은은 건호가 들려준 종에 관한 이야기에 자신의 소원을 이뤄줄 종에 대한 애착이 생기고, 건호는 명은을 향한 애정과 안타까움에 명은이 종을 칠 수 있도록 두려움을 무릅쓰고 온 힘을 다한다. (라)에서는 생명을 키워내고 농사에 보람을 느끼게 해 주는 땅에 대한 강 노인의 애착이 드러나며, 동네 사람들은 집값이 오르는 것을 방해하는 강 노인에게 땅을 팔 것을 종용하고 급기야 땅을 훼손한다. 이처럼 각각의 인물은 그리움, 환경보호, 간절한 바람, 땅의 본질 등을 이유로 애착을 형성하고, 주변인들은 연민, 냉담함, 질질함, 분노 등의 태도로 그 애착에 대해 반응한다. (568자)

[문제 2] 제시문 (바)와 (사)를 각각 고려하여 제시문 (라)의 ‘박 씨’와 제시문 (마)의 ‘나’가 직업에 대해 보이는 태도의 차이점을 쓰고, 제시문 (라)의 ‘박 씨’에게 필요한 자세를 제시문 (아)를 바탕으로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제시문 (바)를 고려하면 (라)의 ‘박 씨’는 생계유지라는 직업의 목적에는 충실하지만, 본질적 가치가 아닌 돈이라는 외재적 가치만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직업을 통한 궁극적인 행복에 이르기 어렵고, 나아가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다. 반대로 (마)의 ‘나’는 생계유지만을 위한 직업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위안하는 글쓰기라는 목적 자체에 집중함으로써 직업을 통해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 (사)를 고려할 때, (라)의 ‘박 씨’의 태도는 큰돈을 벌었음에도 계속해서 돈을 추구하며, 강 노인의 분명한 거절 의사에도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도 없이 맹목적인 회유로 일관한다는 점에서 욕심에 가깝다. 반면 (마)의 ‘나’의 태도는 눈앞의 성취에 연연하지 않고 글쓰기 자체에 온전히 몰입하여 계속해서 다양한 시도를 한다는 점에서 원에 가깝다. 제시문 (아)를 바탕으로 볼 때 (라)의 ‘박 씨’에게는 세상을 돈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다른 가치를 찾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가치를 통해 세상을 사랑할 때 비로소 타인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569자)

[문제 3] ‘정책 1’이 ‘마을사랑 쿠폰’의 지급 정책으로 선택되기 위한 a 의 최솟값을 구하시오. [20점, 원고지 작성법을 준수할 필요 없음]

(1) 정책의 효능을 구하기 위해, 각 정책에 대해 $E(X)$, $V(X)$, $E(Y)$ 를 구해야 한다.

(2) 정책 1에서 X 는 $B\left(20, \frac{4}{5}\right)$ 의 이항분포를 따른다. 따라서 $E(X) = 20 \times \frac{4}{5} = 16$ 이고 $V(X) = 20 \times \frac{4}{5} \times \frac{1}{5} = \frac{16}{5}$ 이다.

(3) 정책 1에서 Y 는 $B\left(10, \frac{2}{5}\right)$ 의 이항분포를 따른다. 따라서 $E(Y) = 10 \times \frac{2}{5} = 4$ 이다.

(4) 따라서 정책 1의 정책 효능을 U_1 이라 하면

$$U_1 = 16 - \frac{7}{10} \times \frac{16}{5} + \frac{1}{5} \times 4 - a \times 20 + 10 = 26 - \frac{36}{25} - 20a = \frac{614}{25} - 20a$$

이다.

(5) 정책 2에서 고참여 주민 중 나중에 쿠폰을 받은 사람의 수를 Z 라 하면, Z 의 확률분포는 다음과 같다.

Z	0	1	2	합계
$P(Z=z)$	$\frac{{}_4C_2}{{}_7C_2} = \frac{2}{7}$	$\frac{{}_3C_1 \times {}_4C_1}{{}_7C_2} = \frac{4}{7}$	$\frac{{}_3C_2}{{}_7C_2} = \frac{1}{7}$	1

(6) 위의 표를 통해 Z 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면 $E(Z) = 0 \times \frac{2}{7} + 1 \times \frac{4}{7} + 2 \times \frac{1}{7} = \frac{6}{7}$ 이고, $E(Z^2) = 0^2 \times \frac{2}{7} + 1^2 \times \frac{4}{7} + 2^2 \times \frac{1}{7} = \frac{8}{7}$, 따라서

$$V(Z) = \frac{8}{7} - \left(\frac{6}{7}\right)^2 = \frac{20}{49} \text{이다.}$$

(7) $X = 17 + Z$ 이므로 $E(X) = 17 + E(Z) = 17 + \frac{6}{7}$, $V(X) = V(Z) = \frac{20}{49}$ 이다.

(8) 정책 2에서 저참여 주민 중 나중에 쿠폰을 받은 사람의 수를 W 라 하면, $W = 2 - Z$ 이므로 $E(W) = 2 - E(Z) = \frac{8}{7}$ 이다. 따라서

$$E(Y) = 6 + E(W) = 6 + \frac{8}{7} \text{이다.}$$

(9) 따라서 정책 2의 정책 효능을 U_2 라 하면

$$U_2 = 17 + \frac{6}{7} - \frac{7}{10} \times \frac{20}{49} + \frac{1}{5} \times \left(6 + \frac{8}{7}\right) - a \times \left(17 + \frac{6}{7} + 6 + \frac{8}{7}\right) + 10 = 29 - 25a$$

이다.

(10) 정책 1이 선택되기 위한 조건은 $U_1 \geq U_2$ 이므로 다음과 같은 일차부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26 - \frac{36}{25} - 20a \geq 29 - 25a$$

(11) 위의 일차부등식을 풀면 정책 1이 선택되기 위한 a 의 최솟값은 $\frac{111}{125} = 0.888$ 이다.

4. 채점 기준

[문제 1]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 (-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pm 1 \sim 25$ 자	1점 감점
± 26 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 (40점)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등장인물의 애착이 드러나는 ‘대상’과 그 ‘이유’ 그리고 주변인들의 ‘반응’과 그 ‘이유’를 각각 찾아 정확하게 작성했는지 평가한다. 단, 제시문을 해석할 때 명시적 내용만 아니라 함축적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 (32점)

(가) 대상과 이유: 고향과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을 달래주는 철쭉에 대한 아주머니의 애착이 드러난다. (4점)

반응과 이유: 부부는 아주머니의 희망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그녀를 향한 연민을 가지고 철쭉을 정성으로 돌본다. (4점)

(나) 대상과 이유: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은 병국이 새에 대한 애착을 드러낸다. (4점)

반응과 이유: 병식은 형이 중요시하는 가치에 공감하지 못하고 괜한 일로 자신을 의심한다고 생각하여 형에게 반항한다. (4점)

- (다) **대상과 이유:** 명은은 건호가 들려준 종에 관한 이야기에 자신의 소원을 이뤄줄 종에 대한 애착이 생긴다. (4점)
반응과 이유: 건호는 명은을 향한 애정과 안타까움에 명은이 종을 칠 수 있도록 두려움을 무릅쓰고 온 힘을 다한다. (4점)
- (라) **대상과 이유:** 생명을 키워내고 농사에 보람을 느끼게 해 주는 땅에 대한 강 노인의 애착이 드러난다. (4점)
반응과 이유: 동네 사람들은 집값이 오르는 것을 방해하는 강 노인에게 땅을 팔 것을 종용하고 급기야 땅을 훼손한다. (4점)

2) 네 개의 제시문에서 등장인물의 애착이 드러나는 ‘대상’과 그 ‘이유’ 그리고 주변인들의 ‘반응’과 그 ‘이유’를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서론/본론/결론)로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즉, 글을 시작하는 도입 부분과 글을 맺는 결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또한 네 가지 요소를 나열적으로 서술하기 보다는 완결된 문장으로 이유가 적절히 드러나게 작성했는지 평가한다. (8점)

- ① 하나의 완성된 논리적인 글로 구성하라고 요구하므로, 답안이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 구성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함 (3점)
 ② 서론에서 문제를 요약하고, 결론에서 각 제시문의 차이가 핵심적 표현으로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함 (3점)
 ③ 애착의 이유와 반응의 이유가 논리적으로 드러나도록 완결된 문장으로 서술했는지 평가함. (2점)

[예시]

서론: 각 제시문에는 특정 대상에 대한 애착과 주변인들의 반응이 드러난다.

결론: 이처럼 각각의 인물은 그림움, 환경보호, 간절한 바람, 땅의 본질 등을 이유로 애착을 형성하고, 주변인들은 연민, 냉담함, 절실함, 분노 등의 태도로 그 애착에 대해 반응한다.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1]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각 제시문에서 각각 애착의 대상, 이유, 반응, 이유를 제시 (32점)	4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함	25~32점
		3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함	17~24점
		2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함	9~16점
		1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함	4~8점
	논리적 구성 (2점) 및 결론 제시 (6점)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	1~3점
		본론의 내용을 결론으로 잘 도출하여 요약했는지 여부 (참신성도 고려)	1~3점
		애착의 이유와 반응의 이유가 논리적으로 드러나도록 서술했는지 여부	1~2점

[문제 2]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 (-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 (40점)

1) 제시문 (바)와 (사)를 각각 고려하여 제시문 (라)의 ‘박 씨’와 제시문 (마)의 ‘나’가 직업에 대해 보이는 태도의 차이점을 써라. (28점)

- ① 제시문 (바)를 고려하면 (라)의 ‘박 씨’는 생계유지라는 직업의 목적에는 충실하지만, 본질적 가치가 아닌 돈이라는 외재적 가치만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직업을 통한 궁극적인 행복에 이르기 어렵고, 나아가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을 기술함 (7점)

- ② 반대로 (마)의 '나'는 생계유지만을 위한 직업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위안하는 글쓰기라는 목적 자체에 집중함으로써 직업을 통해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을 추구했다는 점을 서술함 (7점)
- ③ (사)를 고려할 때, (라)의 '박 씨'의 태도는 큰돈을 벌었음에도 계속해서 돈을 추구하며, 강 노인의 분명한 거절 의사에도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도 없이 맹목적인 회유로 일관한다는 점에서 욕심에 가깝다는 점을 기술함 (7점)
- ④ 반면 (마)의 '나'의 태도는 눈앞의 성취에 연연하지 않고 글쓰기 자체에 온전히 몰입하여 계속해서 다양한 시도를 한다는 점에서 원에 가깝다는 점을 기술함 (7점)

2) 제시문 (라)의 '박 씨'에게 필요한 자세를 제시문 (아)를 바탕으로 서술하시오. (12점)

- ① (라)의 '박 씨'에게는 세상을 돈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다른 가치를 찾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이 서술됨 (6점)
- ② 새로운 가치를 통해 세상을 사랑할 때 비로소 타인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기술함 (6점)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2]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제시문 (바)와 (사)를 각각 고려하여 제시문 (라)의 '박 씨'와 제시문 (마)의 '나'가 직업에 대해 보이는 태도의 차이점을 제시함 (28점)	제시문 (바)를 고려하면 (라)의 '박 씨'는 생계유지라는 직업의 목적에는 충실하지만, 본질적 가치가 아닌 돈이라는 외재적 가치만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직업을 통한 궁극적인 행복에 이르기 어렵고, 나아가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다라는 점을 기술함	7점
		반대로 (마)의 '나'는 생계유지만을 위한 직업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위안하는 글쓰기라는 목적 자체에 집중함으로써 직업을 통해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을 추구했다는 점을 서술함	7점
		(사)를 고려할 때, (라)의 '박 씨'의 태도는 큰돈을 벌었음에도 계속해서 돈을 추구하며, 강 노인의 분명한 거절 의사에도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도 없이 맹목적인 회유로 일관한다는 점에서 욕심에 가깝다는 점을 기술함	7점
		반면 (마)의 '나'의 태도는 눈앞의 성취에 연연하지 않고 글쓰기 자체에 온전히 몰입하여 계속해서 다양한 시도를 한다는 점에서 원에 가깝다는 점을 기술함	7점
	제시문 (라)의 '박 씨'에게 필요한 자세를 제시문 (아)를 바탕으로 서술함 (12점)	(라)의 '박 씨'에게는 세상을 돈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다른 가치를 찾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이 서술됨	6점
		새로운 가치를 통해 세상을 사랑할 때 비로소 타인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기술함	6점

[문제 3] 20점 만점

- 정책 1의 효능을 정확히 구하면 +9점
 - $E(X)$, $E(Y)$ 를 정확히 구하면 각 +3점
 - $V(X)$ 를 정확히 구하면 +3점
- 정책 2의 효능을 정확히 구하면 +9점
 - $E(X)$, $E(Y)$ 를 정확히 구하면 각 +3점
 - $V(X)$ 를 정확히 구하면 +3점
- 답을 정확히 계산하면 +2점

※ 논리 전개 과정이 맞으면 답이 틀리더라도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채점자는 답안의 완성도에 따라 ±1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CAU